

**ANIVERSARIO**  
COREA-COLOMBIA

**한국 - 콜롬비아  
수교60주년 기념**

## 대한민국 외교부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1차관  
장호진

외교부 2차관  
이도훈

주콜롬비아대한민국 대사  
이왕근

책자발간 감수  
前 주콜롬비아대한민국 대사  
추종연

편집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3등서기관  
강형찬

## 콜롬비아공화국 외교부

대통령  
구스타보 프란시스코 페트로 우레고

부통령  
프란시아 엘레나 마르케스 미나

외교부 장관  
알바로 레이바 두란

외교부 차관  
프란시스코 호세 코이 그라나도스

외교부 다자협력 차관  
라우라 힐 사바스타노

외교부 사무총장  
호세 안토니오 살라사르 라미레스

책자발간 감수  
주한콜롬비아대사관 대사대리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

편집  
주한콜롬비아대사관 2등서기관  
루스 앙헬라 카리요 크루스

인쇄 2023년 04월 24일  
발행 2023년 04월 25일  
발행처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디자인·인쇄 자유기획인쇄(02-2263-0270)  
ISBN : 978-89-86948-61-5  
이 저작물은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본으로  
나뉘어 인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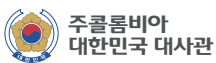
**ANIVERSARIO**

COREA-COLOMBIA

대한민국-콜롬비아

# 한국 - 콜롬비아 수교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미래 60년을 향하여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 목 차

<b>PROLOGO</b>	08	<b>발간사</b> 박 진 · 외교부 장관
	10	<b>발간사</b> 알바로 레이바 두란 (ÁLVARO LEYVA DURÁN)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
	12	<b>축사</b> 추종연 · 前 주콜롬비아 대사
	14	<b>축사</b>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 (Francisco Alberto González) 주한콜롬비아대사관 대사대리
<b>전통협력분야</b>	<b>제1부</b>	<b>한-콜롬비아 관계 전반</b>
	20	<b>미래60년의 한-콜롬비아 관계 증진 방향</b> 추종연 · 前 주콜롬비아 대사
	38	<b>환갑 : 콜롬비아-한국 관계를 위한 새로운 주기</b> 프란시스코 호세 코이 그라나도스 (Francisco J. Coy G.) 콜롬비아 외교부 차관
	<b>제2부</b>	<b>한-콜롬비아 통상·투자</b>
	48	<b>한-콜롬비아 통상 및 투자</b> 김원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72	<b>무역, 투자 그리고 산업 장</b> 니콜라스 우리베 루에다 (Nicolás Uribe Rueda)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회장

### 제3부 **한-콜롬비아 FTA**

- 84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와 과제**  
권기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재호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98 **한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6년 간**  
마누엘 라이란 (Manuel Rayran)  
콜롬비아 엑스테르나도 대학 교수

### 제4부 **한-콜롬비아 개발협력**

- 110 **대콜롬비아 개발협력 : 지원성과 과제**  
정상희 · 계명대학교 교수
- 124 **한-콜롬비아 협력 우정 그리고 발전**  
파울라 루이스 카마초 (Paula Ruiz Camacho)  
콜롬비아 엑스테르나도 대학 교수

### 제5부 **한-콜롬비아 한국전 참전사**

- 136 **그라시아스 바따온 콜롬비아 (Batallón Colombia)**  
이병용 · 사진작가
- 156 **한국전쟁에서 콜롬비아의 역할**  
헤수스 에두아르도 모레노 펠라에스  
(Jesús Eduardo Moreno Peláez)  
콜롬비아 육군 중령
- 양헬리카 마리아 곤살레스 곤살레스  
(Angélica María González González)  
콜롬비아 국방대학교 전략 및 지정학 석사

### 제6부 **한-콜롬비아 공공외교(문화)**

- 172 **한국의 대콜롬비아 공공외교**  
손혜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교수
- 186 **콜롬비아와 한국 : 공공, 문화, 전략 외교의 역사**  
마우리시오 하라미요 하시르 (Mauricio Jaramillo Jassir)  
로사리오(Rosario)대학 부교수

- 194 **콜롬비아의 시청각 산업**  
 클라우디아 트리야나 소토 (Claudia Triana Soto)  
 콜롬비아 프로이마헤네스 이사

**미래협력분야 제7부 과학·기술·혁신·환경·지속가능성**

- 214 **한국-콜롬비아 그린경제 협력방향과 이슈**  
 하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연구교수
- 224 **건강기능식품산업 한국과 콜롬비아의 협력 방안**  
 최수영 · 코스맥스엔비티(주) 수석연구원·부장
- 236 **한국의 경제 사례**  
 세사르 페라리 (César Ferrari)  
 콜롬비아 공화국 대통령실 경제 고문

**제8부 한-콜롬비아 보건·의료 협력**

- 246 **한-콜롬비아 보건의료**  
 광재성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256 **콜롬비아와 한국 : 협력과 동맹,  
그리고 우정의 60년**  
 릴리안 카롤리나 곤살레스 링콘  
 (Lilian Carolina González Rincón)  
 보건사회보호부 국제관계 및 협력국 ·  
 대한민국 담당 국제협력자문관
- 디마스 알레한드로 바스케스 데 알바  
 (Dimas Alejandro Vásquez De Alba)  
 보건사회보호부 홍보국 소속 기자

**부 록**

- 264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 272 **양국 교류 주요 사진 (고위인사 교류 · 문화교류)**



한국과 콜롬비아의  
수교 6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 한민국과 콜롬비아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외교부가 공동으로 ‘한국-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기념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콜롬비아의 대문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당신의 손을 잡고 가슴을 울리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Un verdadero amigo es quien te toma de la mano y te toca el corazón)”고 하였습니다.

콜롬비아는 71년전 중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전투 병력을 한국전쟁에 파견하며, 한국인들의 손을 잡아 주었고 한국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5천여명의 콜롬비아 젊은이들이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흘려 싸웠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희생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역사적 사실의 기반 위에서 양국은 1962년 수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은 이처럼 굳건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 왔으며,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FTA 발효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또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4회의 정상교류와 4회의 국무총리 및 부통령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80개 가까운 협정 및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학술행사가 개최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 60년을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이루어진 굳건한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토대로 이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양국은 생명다양성, 수소, 교통·환경 인프라, 전자정부, 조선, 보건의료, 문화컨텐츠 등의 분야로 협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교 60주년 기념 책자는 그러한 미래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콜롬비아간 미래협력을 위한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양국 집필진과 양국 대사관 직원 그리고 한-중남미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국 간 가슴을 울리는 우정이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 알바로 레이바 두란 (ÁLVARO LEYVA DURÁN)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

### 외교 관계

### 60년의 한국

**한** 국과 콜롬비아의 인연은 양국이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던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때부터 한국 국민은 콜롬비아에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됐다. 당시 연인원 약 5,100명에 이르는 한국전 파병 부대인 보병 제1대대 ‘바타욘 콜롬비아 (Batallón Colombia)’가 한국 땅을 밟았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당시 전투 병력을 파병한 16개 UN 회원국 중 하나이며, 대의를 위해 참전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이다.

1962년 7월 10일, 정일관 주미 대한민국대사는 콜롬비아 겸임 대사로서 신임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당시 주일대사였던 라파엘 나바스 파르도 (Rafael Navas Pardo) 장군을 겸임 대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한국 겸임 대사로 신임장을 제출한 최초의 대사는 엔리케 몰라노 캄푸사노 (Enrique Molano Campuzano) 당시 주일대사로, 그의 신임장 제출은 1964년 7월 9일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형제애에 기반해, 60년이 지난 지금 양국 관계는 매우 다채롭고 역동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투자와 통상, 지식 공유 등 전략적 부문의 협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한국은 우리에게 국제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국임을 강조하고 싶다. 콜롬비아는 2021-2025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었다. 동 기간 사회기반시설 구축, 이민 이슈, 농수산업 생산성, 산업 다각화의 분야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전개될 것이다. 또한 팬데믹 대응과 베네수엘라 이민자 유입 문제, 콜롬비아 평화 정착에 한국이 보내준 지원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날 양국은 경제·통상 관계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폭 넓고 접근성이 높은 시장을 제공하며, 한국 투자자들과 다양한 제품들은 양자 FTA라는 투명한 법적 틀 안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한다.

이러한 노선을 유지하며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정부는 양국 교역 확대와 호혜적 협력 관계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로써 기술집약적 산업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탈탄소 경제 달성을 이루고자 한다.

여기에 더불어,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을 본보기로 삼아,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과학 및 학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콜롬비아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은 새로운 통상과 투자 기회의 땅이자 국가 경험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 발전 양태에 대한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양자 관계의 주요 분야와 핵심 협력 테마를 다루고자 한다. 양국은 양자 관계 평가, 미래 협력, 무역 전망, FTA 개선, 개발협력,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 공공외교, 혁신, 환경, 지속가능성, 보건 의료에서의 과학기술 협력 등에서 공동의 비전 제시를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해오고 있다.

국민의 안녕을 위한 우리의 전략적 관계 구축과 공동의 노력에 긍지를 느낀다.

# 축사



추종연

前 주콜롬비아대사

## 한-콜롬비아 수교60주년

### 기념책자 발간 축하

**한** 국과 콜롬비아 인사들이 양국관계를 표현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친구, 혈맹, 전략적 동반자 등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국가간의 관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식어이지만, 콜롬비아 현지에서 듣는 그 말에는 진정성이 듬뿍 담겨있습니다. 그 용어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70여년 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 지금까지의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그 말속에 배어있습니다.

양국 국민간에는 정서적인 친밀감이 매우 높습니다. 콜롬비아 사람들은 한국, 한국 사람, 한국산 제품, 한국의 발전 역사 및 한국문화를 좋아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콜롬비아에서 한국의 이미지 또한 매우 긍정적이고 한국 프리미엄이 매우 큼니다. Gustavo Petro 대통령도 한국의 발전 역사를 깊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콜롬비아인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에





서 유일하게 5천명 이상의 전투병력을 파병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되찾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콜롬비아와의 관계에 많은 인연을 쌓아 왔습니다. 저의 콜롬비아 근무기간 중인 2012년 양국관계가 50주년을 맞았고 수교 50주년 기념책자를 발간했으며 그 해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11년간 양국 간에 대통령 방문 4회, 부통령 또는 국무총리 방문 4회 등 총 8회의 정상급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7회의 정상급 교류에 관여했습니다.

우리는 콜롬비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거나 잘못된 정보 또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콜롬비아 국명인 Colombia를 Columbia로 잘못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마약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2016년에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불법무장단체인 FARC와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치안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콜롬비아는 5천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12배 가까운 중남미의 견실한 중견국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생산하며, 태양열,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도 풍부합니다. 니켈, 구리, 에메랄드 등 광물자원이 많으며 커피, 꽃, 아프리카 팜 등 농산물도 많이 생산됩니다. 콜롬비아는 생명다양성 세계 2위 국가라 유전자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와 2016년 7월 FTA를 발효시켰습니다.

수교 60주년 기념 책자는 과거 60년이 아니라 미래 60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념책자 제작에 참여한 양국의 필진은 대부분 중남미/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이며 한-콜롬비아 관계 증진에 관여한 분들입니다. 이 책자가 미래의 한-콜롬비아 관계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축사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  
(Francisco Alberto González)

주한콜롬비아대사관 대사대리

한-콜롬비아 수교60주년

기념책자 발간 축하

누리호가 인공 끝에 지구 궤도에 위성을 배치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2022년 6월, 전 세계는 한국의 끈기와 불굴의 의지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로써 한국은 과학과 노력,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며 위성 발사에 성공해, 이 같이 어려운 과학적 도전을 이뤄낸 몇 안 되는 국가 반열에 드는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

콜롬비아의 박수갈채에는 감탄과 존경이 가득 담겨있었다. 아울러 혈맹으로 맺어진 형제가 이뤄낸 경이로운 업적에 대한 기쁨의 박수갈채이기도 하였다. 가족 중 한 명이 목표한 바를 이루면 모두가 이를 제 일처럼 여기듯 말이다.

71년 전 한국과 콜롬비아의 시선은 하늘과 우주 정복의 꿈이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향해 있었다. 안티오키아(Antioquia), 쿤디나마르카(Cundinamarca), 톨리마(Tolima), 킨디오(Quindío) 출신으로 구성된 콜롬비아 세대 ‘바타온 콜롬비아



(Batallón Colombia)’는 부산, 춘천, 음성, 서울 및 한국 전역에서 남침에 맞서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군과 참호를 공유하였다. 1962년 양국의 외교 관계 수립은 콜롬비아 대대 파병 후 11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혈맹에 도장을 찍은 것이었다.

한국인들이 품고 있는 콜롬비아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은 이러한 연대에서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특히 유의미하고 중요한 사실은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과, 최근 2021-2025 한국ODA 중점 협력국으로 콜롬비아가 선정된 것이다. COVID-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콜롬비아 보건 당국에 이토록 관대하고 큰 도움의 손길을 건넨 동맹국은 없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8월 24-26일, 나는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Juan Carlos Caiza) 전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함께 이반 두케(Iván Duque) 대통령의 국빈 방문단에 기여하는 영광을 누렸다. 두케 대통령 방한 기간에 역사적인 ‘대통령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청와대가 중남미 국가 수반과 채택한 최초의 선언문이다. 또한 동계기에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건 협력 협정과 정보통신 및 커뮤니케이션, 전자정부, 과학 기술, 농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생태계, 예술 문화 및 창의 산업,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및 실종자 대우 등에 관한 8개의 기관간 양해각서가 채택되었다.

한편,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 당시 콜롬비아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에 달했으나, 71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한국 경제가 콜롬비아 경제 규모의 6배를 상회한다는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이는 세계 경제 10위, 세계 무역 규모 7위, 인터넷 보급 속도 4위 및 블룸버그 혁신 지수 1위를 달성하기까지 한국이 지나온 행보를 살펴보라는 명백한 메시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적 성공과 굳건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소프트파워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인들의 헌신과 끈기를 콜롬비아가 배워 나가자는 독려의 메시지가기도 하다.

이 책은 1962년 이후 국가의 명운을 결정해온 16명의 대통령과 그들이 이끄는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건과 성취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 중 두케 대통령과 페트로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2022년, 정권 교체 과정에서 동 책자 발간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이 책은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 관계의 미래에 있어 양국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지난 60년 동안 콜롬비아는 1991년 헌법을 채택해 민주제도의 변혁과 강화를 이루고, 평화의 길을 걸어 왔다. 2016년 평화 협정 체결식에서 “콜롬비아에 평화가 깃들리라”를 외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콜롬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시 반 전 사무총장은 “콜롬비아인들은 분쟁 종식에 대한 희망을 결코 잃지 않았다” 고 말했다. 콜롬비아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이라는 큰 뜻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지 모르나, 우리가 지금껏 이뤄온 것을 기반으로 ‘완전한 평화’를 위해 페트로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은 결단코 이르고 할 수 없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 6년이 흐른 지금, 페트로 대통령은 환태평양 발전을 함께 이끄는 주역으로서 콜롬비아의 역할에 관심을 표하였다. 페트로 대통령은 한국과 콜롬비아 양자 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열 것이며, 이 책은 앞으로 4년의 페트로 대통령 재임기간뿐만 아니라 향후 60년간 이룩할 과업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양국 간 15,000km에 이르는 거리를 단축할 주역은 바로 안티오키아(Antioquia), 쿤디나마르카(Cundinamarca), 톨리마(Tolima), 킨디오(Quindío) 지역 등에 사는 콜롬비아 국민들과 더불어 부산, 춘천, 음성, 서울을 비롯한 한국 전역의 국민들이다. 우리의 시선이 맞닿는 한, 양국은 지구 보호와 우주 탐사 같은 목표를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전통협력분야





# 제1부

## 한-콜롬비아 관계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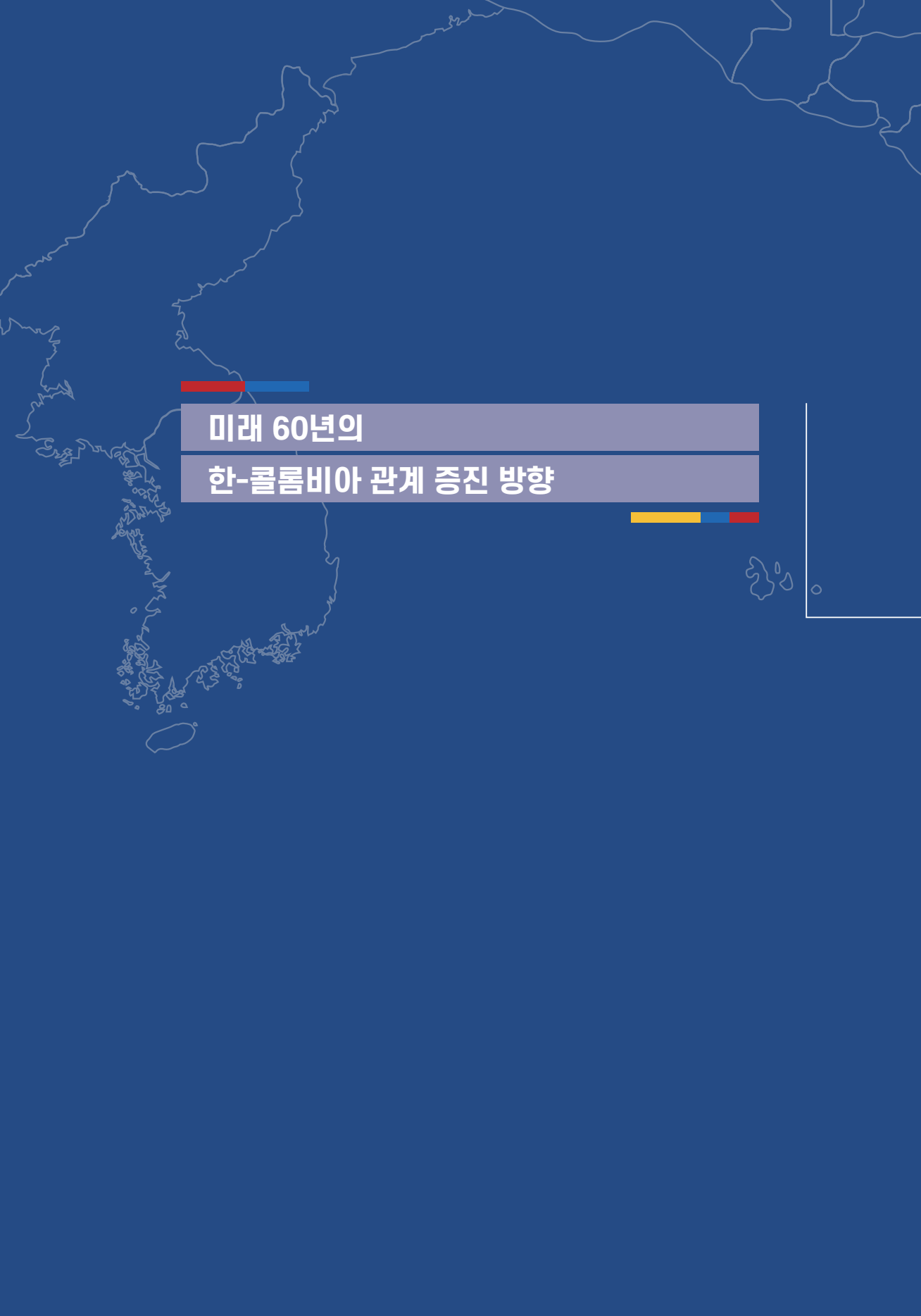
### 미래 60년의 한-콜롬비아 관계 증진 방향

추종연 · 前 주콜롬비아 대사



### 환갑 : 콜롬비아-한국 관계를 위한 새로운 주기

프란시스코 호세 코이 그라나도스  
(Francisco J. Coy G.)  
콜롬비아 외교부 차관



**미래 60년의**

**한-콜롬비아 관계 증진 방향**





추종연

前 주콜롬비아 대사

## 들어가는 말

한

국과 콜롬비아는 1962년에 수교하여 금년에 60주년이 되었다. 공자는 일찍이 사람의 나이 60세를 이순(耳順)이라고 했다. 사람이 60세가 되면 인생에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사람의 나이를 국가 간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한-콜롬비아 관계는 중남미 33개국과의 관계와 비교해볼 때 가장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국민간의 정서적 관계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한 심리적인 우호 관계가 만들어진 데는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과 우리나라의 보훈외교가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한-콜롬비아 관계가 공식적으로는 60주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71주년이다. 한국전 참전을 위해 콜롬비아 대대(Batallón Colombia)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반도에 도착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콜롬비아 관계는 2011년 콜롬비아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콜롬비아를 방문하였다. 2년 사이에 이루어진 정상 상호방문은 양국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그 이전에도 비르힐리오 바르코(Virgilio Barco) 대통령과 에르네스토 샴페르(Ernesto Samper) 대통령이 방한했지만 양국관계의 변곡점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이 2012년에야 실현된 것은 콜롬비아 내전으로 인한 치안의 불안정 때문이었다.



수교 60주년을 앞으로의 60년을 바라보며 더 나은 양국관계 발전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민해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본고에서 필자는 우선 현재의 양국관계를 점검하여 어떤 개선점이 있는 지 살펴보고, 미래의 협력분야와 협력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 양국관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 1. 혈맹과 보훈외교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은 한-콜롬비아 관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양국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혈맹(Alianza de Sangre)과 형제국가(País Hermano)가 탄생했다. 콜롬비아 역사가들의 발언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세계평화와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유엔헌장에 따라 유엔의 참전요청에 부응해야했지만, 보다 현실적으로는 당시의 국제정세, 콜롬비아 국내 정치상황, 대외교역관계 등을 고려한 콜롬비아 리더십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한국전 참전으로 콜롬비아가 받은 최대 수혜는 미국의 지원에 따른 군장비와 군 전략의 현대화였다.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한국전쟁 참전은 잊혀져가는 역사였으나 한국의 보훈외교가 한국전 참전역사를 부활시켰다. 콜롬비아와 관련된 한국인들의 연설에는 한국전 참전에 대한 감사표명이 빠짐없이 포함되었고, 콜롬비아 사람들과의 면담도 감사표명으로 시작했다. 고위 정부대표단의 콜롬비아 방문일정에 참전기념탑 헌화는 필수였다. 한국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를 보여주었다. 보훈처는 참전용사 방한초청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한다. 매년 200-300명의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 참전용사 후손 단기방한 프로그램도 있다. 2015년에 한-콜롬비아우호재활센터(CRI)를 설립하여 내전에서 부상을 당한 콜롬비아 군인이나 경찰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재활센터 설립에 1,150만불의 한국정부 ODA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중남미에서 시행한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

한국전 당시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이었던 콜롬비아 병사들은 지금 80대 후반 또는 90대 초반이다. 장교들의 경우 90대 중후반이다. 생리학적인 이유로 참전용사들



이 사라지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400명 내외의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휴전 이후까지 파견되었던 해군 포함 참전용사의 숫자가 5,062명이니 현재 생존자가 10% 미만이다. 아마도 10년 이내에 그들도 사라질 것이다. 2021년 8월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 국민방한 계기에 방한했던 참전용사 한 분이 한국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2개월 간 병원에 입원했으며, 그는 우리 정부가 주선한 에어앰블런스로 한국 간호팀과 함께 콜롬비아로 돌아왔으나 아쉽게도 도착 후 몇 칠 만에 사망했다. 참전용사 방한초청에 많은 위험부담이 있다.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은 양국 모두에게 귀한 외교적 자산으로 양국관계를 견고하게 뒷받침해왔다. 그런데 그러한 외교자산이 사라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는 우리 보훈외교가 직면한 과제다. 두 가지 대응방법이 있다. 첫째는 참전용사후손회 설립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이미 2012년에 콜롬비아한국전참전용사후손회(ADEVECO)를 설립했다. 후손회는 연로한 참전용사들을 대신하여 참전용사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인회와 협력하여 한인-참전용사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두 번째로 참전용사 후손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는 참전용사 후손들을 보훈외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공공외교의 중요한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위험이 수반된 참전용사 방한초청사업 예산을 후손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용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유학쿼터를 대폭 늘려 후손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 2. 주요인사 교류

양자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외교방식은 고위인사교류다. 이를 계기로 많은 현안들이 점검되고 매듭지어지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에 들어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졌다. 콜롬비아 경우 부통령 이상,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 이상의 상대국 방문이 모두 8회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콜롬비아 방문이 있었다. 콜롬비아에서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 그리고 앙헬리노 가르손(Angelino Garzon) 부통령,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Marta Lucia Ramirez) 부통령(2회)이 한국을 방문했다. 2011년 이전에는 콜롬비아에서 대통령이 2회 부통령이 2회나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에서는 외교장관의 방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성환 외교장관이 2012년 5월 콜롬비아를 방문한 것이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의 최



초였다. 즉, 과거의 고위인사교류는 일방적이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위인사교류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케 대통령 국민방한과 라미레스 부통령 겸 외교장관의 공식방한이 성사되었다. 두케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41개항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나왔으며 총 12개의 정부간 협정 또는 기관간 MOU가 서명되었다. 양국간에는 장관급과 실무급 교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이카 연수생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들은 콜롬비아 각 분야에 흩어져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이수한 콜롬비아 젊은이들도 양국관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가위상 확대로 정상외교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외교수요를 대통령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지라 국무총리 외교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선례가 있다. 필자가 국무총리 외교보좌관으로 복무하는 2년간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가 12회 해외를 방문하였고 7회 외빈을 접수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고위인사교류도 균형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더 많이 외교에 활용되어야 한다.

### 3. 양국협력의 제도화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입국비자를 요구한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비자에 매우 민감하다. 마약에 얼룩진 콜롬비아의 근대역사가 그러한 불편함을 야기했다. 우리나라는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40여년전인 1981년에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Covid19로 인하여 잠정 정지되었던 비자면제협정이 2022년 4월1일부로 정상화되었다.

2010년부터 양국관계 제도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79개의 협정 또는 약정(MOU)이 체결되었다. 그 중 7개가 정부간 협정(EDCF 차관약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자유무역협정,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공중보건협력협정, EDCF 활동 협정)이고 나머지는 기관 간 약정(MOU)이다. 양국 간 많은 협력문서들이 고위인사 상호방문을 계기로 체결된다. 79개의 문서가 나왔다는 것은 양국간에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4월 우리 문화장관의 콜롬비아 방문 계기에 체육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2022년 4월 현재 주콜롬비아대사관은 7개의 협정 또는 MOU를 추진중이다. 그 중 무상원조기본협력협정은 코이카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와 지원물품에 대한 세금면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0년 가까이 현안으로 남아있다. 수처리, 어업, 수소(hidrógeno), 생명다양성 등 분야에서 협력문서가 준비되고 있다. 협정/MOU 체결 후에 후속조치가 없이 방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일부 협력문서들이 고위급 방문 성과사업으로 급속하게 추진되기 때문이다. 협력/MOU 체결 후 이를 실질협력으로 구체화시키려는 공동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타에는 공공기관으로 대사관 이외에 코트라(KOTRA), 코이카(KOICA),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및 수출입은행이 나와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및 알제리 5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주로 환경부의 ODA사업을 수행한다. 보고타 사무소는 고품쓰레기 처리, 재생에너지 공급, 하수처리, 상수도 공급 등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사무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무소는 그 존재와 활동을 좀 더 콜롬비아 정부기관들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도 2개 사무소를 양국협력에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 4. 한-콜롬비아 FTA

한-콜롬비아 FTA는 양국관계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커다란 축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의미도 있다. 2009년 12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7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2년 6월 협상이 타결되었고, 2013년 2월 서울에서 공식 서명되었다. 필자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주콜롬비아대사로 근무한 지라 협상과정과 환경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다.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자동차부품생산자협회를 필두로 콜롬비아 산업계의 반대가 심했다. 필자는 콜롬비아 수도와 지방의 대학교 및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면서 한-콜롬비아 FTA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했다. 양국 언론이나 학술지에도 기고문을 보냈다. 당시



필자가 언급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콜롬비아 FTA는 연간 교역 규모를 수년 내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둘째, 콜롬비아 인프라·플랜트 시장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 한국상품을 미국시장으로 우회 진출시키는데 한-콜롬비아 FTA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012년 5월에 이미 콜롬비아-미국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콜롬비아 FTA는 한-콜롬비아 혈맹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한-콜롬비아 FTA가 2016년 7월 15일 발효되었으니 2022년 5월 현재 5년 10개월이 경과했다. 2021년 양국의 교역량은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전인 2015년 교역규모가 14.5억 달러였다. 2019년에는 교역규모가 18.6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양국 교역규모는 정체상태다. 필자가 첫 번째로 콜롬비아에 근무하는 3년6개월 기간 중에 한국기업들은 보고타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LG CNS), 메데진 시 근교의 배요 하수처리장 건설(현대건설), 쿠쿠타 시의 테르모타사헤로(Termotasajero II)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대엔지니어링) 3개 대형사업을 수주했다. 방산분야에서도 한국기업(LIG Nex1)이 해성미사일을 수출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방산분야에서의 협력 진전을 제외하고는 한국기업의 대형 국책사업 수주가 없다. 한국기업이 콜롬비아에 투자하여 생산공장을 건설하거나 콜롬비아를 통해 한국상품이 미국시장으로 들어간 사례도 발견할 수 없다. 한-콜롬비아 FTA에 대한 기대가 크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콜롬비아의 생각도 비슷하다. 다만, 정량화는 어렵지만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킨 것은 분명하다. 양측 모두에게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하려는 더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

## 5. ODA 중점협력국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를 3회 연속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양국 간 협력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에서 한국은 10위의 공여국 지위를 확보했다. 한국은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으로 지역협력, 산업협력, 교통 및 평화구축 4개 분야를 선정했다. 지역협력 분야에서는 낙후 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생산성 향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자동차부품 생산성 향상 사업이 추진되었고 조선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메데진 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시스템을



2021년에 완료하였고 2022년부터는 보고타 시 등을 대상으로 ITS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화구축 분야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장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내전피해지역에서 여성가장의 경제력 향상, 마약대체작물 재배, 경찰의 치안능력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이카의 사업규모가 가장 크지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들도 활발하게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ODA 사업은 국별협력전략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콜롬비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로 협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기구들과 유럽 선진국들은 평화정착과 인권 및 거버넌스 향상에 비중을 둔다. 그 분야에서는 경험도 많고 탄탄한 지원철학도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차별화된 지원추진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인 만큼, 자동차, 선박 등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이 바람직하다.

방한초청 프로그램도 확대해야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또 효과가 지속되는 사업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코이카 연수생들은 양국관계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가 집행하는 공공외교 예산에서도 초청예산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접 보여주는 게 최고의 공공외교다.

## 양국 간 서로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

### 1. 콜롬비아의 한국에 대한 기대와 도전요인들

필자는 2011-2014년간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년이 넘게 주콜롬비아 대사를 역임중이다. 그래서 콜롬비아의 한국에 대한 기대나 그들의 관심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한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콜롬비아는 한국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혁신경험과 선진기술을 전수받기를 희망한다. 특히,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창의문화산업, 바이오기술, 기업가정신 등에 관심이 크다. 둘째는, 첫째와 관련된 사안으로 지속적인 개발협력을 희망한다. 셋째, 콜롬비아산 농산물의 수출확대다. 콜롬비아는 양자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농산물검역완화와 검역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다. 넷째는, 한국기업의 투자유치다.





이는 두케 대통령 정부의 최대 관심사다. 콜롬비아의 희망사항들은 2021년 8월 두케 대통령의 국민방한 시 발표된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첨부)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혁신경험 및 선진기술 전수방법으로 3가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는 한국정부의 ODA 사업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인적교류 추진, 경험공유 행사 개최, 협정/MOU 등 협력의 제도화 등이다. 이는 모두 콜롬비아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치다. 세 번째는 민간분야에서의 호혜적인 사업추진이다. 한국정부의 ODA 사업은 콜롬비아 인사 초청사업 포함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청프로그램 참가와 더불어 콜롬비아측의 적극적인 자국전문가 파견 노력이 요망된다. 민간기업간 호혜적인 협력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콜롬비아에 대한 ODA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2021년초 차기 5년간의 ODA중점협력국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콜롬비아는 유엔의 소득기준으로 중상위소득국(Upper-Middle Income Countries) 카테고리에 속한다. 2021년 4월에는 OECD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OECD 회원국이 되었다고 해서 ODA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ODA 사업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다음 5년 기간의 ODA 중점협력국 심사에서는 콜롬비아 지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2021년에 콜롬비아산 아보가도(aguacate hass) 수입을 허용했다. 콜롬비아는 레몬과 돼지고기 수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 검역당국의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새로운 콜롬비아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가가 허용되더라도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 50여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농산물 시장이 많이 개방되었다. 콜롬비아산 농산물이 한국시장 접근이 허용되더라도 타국상품과 경쟁해야한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커피, 화훼 등 한국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고 이미 검증된 농산물에 대한 캠페인을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콜롬비아의 한국기업 투자유치는 더욱 어려운 과제다. 기업들은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한다. 한국기업들의 정보부족, 언어문제, 지리적 거리, 콜롬비아의 법적 제도적 안정성, 치안문제, 다른 중남미국가와의 투자대상으로서의 비교우위 등 여러 난관이 있





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혁신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

필자는 두케 대통령을 포함한 콜롬비아 고위인사들에게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2가지를 강조했다. 첫째는 미국정부의 블레싱(blessing)이다. 5천만 인구를 지닌 콜롬비아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시장이기는 하나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큰 관심사는 미국시장이다. 미국이 콜롬비아산 상품에 대해 특혜나 인센티브를 준다면 한국기업들은 콜롬비아 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미국은 콜롬비아의 평화 정착과 마약퇴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콜롬비아-미국 관계도 특별하다.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그러한 점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차별화(differentiation)다. 한국기업이 왜 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다른 중남미국가가 아니라 콜롬비아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콜롬비아 정부와 기업이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 2. 한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기대와 도전요인들

한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기대는 콜롬비아의 한국에 대한 기대만큼 구체적이지 않다. 한국이 많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가지는 통상적인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한국의 대외무역 및 투자 규모에서 중남미나 콜롬비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매우 견고하다.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정치적 및 역사적인 관점이 양국관계에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으로 형성된 혈맹관계 또는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잘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둘째, 우리기업들이 인프라, 플랜트, 방산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수주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국익증진을 위해 새로운 협력분야를 찾고 이를 호혜적인 민간기업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협력을 다변화 하는 것이다. 넷째는 국제기구 선거 등 국제무대에서 지지확보다. 다섯째는 콜롬비아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외교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6개 관심사 중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국책사업 수주 지원 및 새로운 협력분야 개척의 비중이 크며 동시에 직면한 도전도 크다.



우리상품의 수출이나 우리기업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역할은 제한적이다. 반면, 국책사업 수주에는 공관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산분야를 제외하고 우리기업들의 수주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콜롬비아에서 발주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PPP사업이고 수익의 보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중국기업과 가격경쟁에서도 불리하다.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에도 많은 도전요인들이 있다.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이거나, 공관과 민간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공관의 활동이 정부 간 협력에 비중이 두어지게 된다. 정부 간 협력이 민간협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는 하나 민간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미래의 유망한 양국협력 분야

### 1. 생명다양성 협력

콜롬비아는 생명다양성 2위국가다. 국토의 1/3 가량이 아마존 정글과 태평양 열대 우림이라 그 속에 어떠한 자원이 숨겨져 있는 지 아무도 모른다. 야노 오리엔탈(Llano Oriental)지역도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 및 광물, 농산물, 수산자원과 함께 유전자 자원의 보고(寶庫)다. 콜롬비아 원주민(Indigena) 부족들이 병자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식물들도 좋은 연구대상이다. 한국과의 호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들이다.

콜롬비아 훔볼트연구소와 한국 국립생물자원관(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간에 MOU 체결 사례가 있지만 본격적인 생명다양성 협력은 없었다. 주 콜롬비아대사관은 2021년에 훔볼트연구소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과 공동으로 생명공학협력에 관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하여 정부 간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동시에 이 행사에 한국의 2개 기업과 콜롬비아의 1개 기업이 참여시킴으로써 민간기업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다. 2021년 두케 대통령의 한국방문 계기에 체결된 과학기술협력



MOU에 생명공학분야 협력이 중심내용으로 들어갔다. 생명다양성 협력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의 화장품, 제약, 개인위생용품 생산 기업들과 콜롬비아의 생명다양성 기업 또는 연구소들을 연결시켜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협력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 2. 방위산업 협력

콜롬비아는 반세기 내전으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소모해왔다. 2016년 FARC와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도 ELN, 평화협정 이탈세력 등 불법무장단체들의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무장단체들은 마약자금을 바탕으로 무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운반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어 이들을 퇴치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한편, 베네수엘라가 국경지역에 은거한 불법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어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관계가 늘 긴장국면에 처해 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가 도입한 러시아산 수호이 전투기들이 콜롬비아와의 국경지역에 수시 출몰하고 있어 콜롬비아의 안보수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콜롬비아와 방산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으로 형성된 특수한 역사적 관계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콜롬비아에 대한 개발지원은 방산협력에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2014년에 이어 2021년에 각 1척씩 총 2척의 퇴역군함을 무상 제공하였으며, 태권도 교관 육군사관학교 파견, 부상 군인 및 경찰 재활을 위한 한-콜롬비아우호재활센터 건립, 군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군(軍)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한국은 콜롬비아 해군에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공급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방산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3. 조선(造船) 분야 협력

조선분야 협력은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분야다. 콜롬비아는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한국은 조선산업 선진국으로 첨단기술과 인력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두께 대통령, 라미레스 부통령 겸 외교장관을 비롯한 콜롬비아 고위인사들에게 양국 간 전략적인 조선협력이 유망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왔다.



콜롬비아가 보유한 우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영해군조선소(Cotecmar)와 아스티비크(Astivik) 조선소 등 주요 조선소의 전략적 위치다. 즉, 이들 조선소가 위치한 카르타헤나는 파나마 운하와 인접해 있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이 많은 만큼, 선박 수리 및 유지보수(maintenance) 비즈니스 기회가 많다. 두 번째는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국영해군조선소는 여러 종류의 선박을 제조해온 경험과 잘 훈련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4월 필자가 국영해군조선소를 방문했을 당시 그곳에서는 네덜란드 설계로 3,200톤급 해양조사선을 건조되고 있었다.

한국 조선전문가들은 그 해양조사선의 크기를 화물선 톤수로 환산하자면 1만톤 정도라고 했다. 셋째로, 조선산업 발전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커다란 의지다.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동시에 많은 연계산업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영해군조선소는 한국의 STX 조선해양과 공동으로 250톤급 경비정을 2척 건조한 경험이 있다. 양국 해군 간의 긴밀한 협력전통도 양국간 조선산업 협력에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콜롬비아와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과 같은 한국의 대형조선사들보다는 중견조선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이 바람직하다. 대형조선사들은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유조선, LNG운반선 등 규모와 부가가치가 큰 선박을 건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의 중소형 조선소와의 협력에 관심이 적다. 반면에 중견조선사들은 조선경기의 침체로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는 만큼, 외국 조선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를 다각화하는데 관심이 크다. 콜롬비아로서도 한국의 중견조선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여 니치마켓(niche market)을 타겟으로 삼아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2022년 4월 현재 조선분야 협력에는 크게 2가지 현안이 있다. 코이카가 추진하는 500만 달러 규모의 콜롬비아 조선업 활성화 기반구축사업과 콜롬비아 국영해군조선소의 플로팅 독(Floating Dock) 구입사업이다. 코이카 ODA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조선정책 분야 경험전수, 조선기업 컨설팅 그리고 조선분야 관리 및 기술인력 역량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7일 카르타헤나에서 프로젝트 착수식 행사를 가졌다. 콜롬비아 국영해군조선소나 민간조선소



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선박 건조 및 수리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국영해군조선소는 플로팅 독 설치를 오래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내은행에서 융자받아서 플로팅 독을 설치한 후에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융자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철강가격 상승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된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국영해군조선소와 고위층에 예산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장기적 시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좋은 조건의 차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 4. 의료 및 보건 협력

2020년 Covid19가 세계를 강타하자 Covid19 대응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ODA 정책에서도 Covid19 대응이 사업의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및 콜롬비아를 Covid19 대응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콜롬비아에만 4차례에 걸쳐 1천만불이 넘는 지원을 했다. 특히, 보고타시 낙후지역의 엔가티바 병원(Hospital Engativa)을 중점협력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치료실(ICU), 코로나 검진, 의료인력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의료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Covid19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최초로 콜롬비아와 의료보건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협정 초안을 제시했지만 콜롬비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콜롬비아는 백신정책을 바꾸었다. 백신 생산 보다 수입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입정책을 고수해왔으나 Covid19를 겪으면서 백신 주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콜롬비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백신생산 능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이다. 한편, Covid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셀트리온과 씨젠이 콜롬비아에 지사를 설립하여 자사제품 판로를 개척중이다. 이 기업들이 콜롬비아에서 기반을 구축한다면 직접투자 등 사업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 5. 금융협력

수출입은행 사무소는 2014년에 보고타에 사무소를 열었다가 2017년 감사원의 재배치 요구에 따라 니카라과로 사무소 이전에 착수했으나 니카라과 국내정세 악화 및 미국의 제재로 사무소 개설을 취소하고 2019년 8월에 다시 보고타로 이전하여 2022년 3월에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중남미지역에는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그리고 보고타에 3개의 사무소가 있다. 보고타 사무소는 콜롬비아 이외에 니카라과, 온두라스,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수리남, 가이아나, 프랑스령 가이아나도 관할한다. 수출입은행 보고타 사무소의 역할을 주로 ODA협력이다. 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 콜롬비아에서 ICT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협조용자 2건으로 총 1억 8,000만불 규모의 경제협력기금(EDCF)을 콜롬비아에 지원했다. EDCF 기금은 적은 규모의 ODA사업에 사용된다. EDCF 기금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사업일 경우에는 EDPF(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기금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수출입은행은 다른 금융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려 EDPF 기금을 조달한다.

보고타 수출입은행 사무소는 2022년 3월 보고타 사무소 재개설을 계기로 콜롬비아 방코 데 옥시덴테(Banco de Occidente)에 1억불 규모의 전대차관(credit line)도 개설했다. 한국상품을 수입하는 콜롬비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며, 동시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이 재원이 활용될 수 있다. 수출입은행 보고타 사무소는 금융협력 이외에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ODA 사업인 개발경험공유사업(KSP)도 일부 추진한다.

## 6. 수소협력

콜롬비아는 한국처럼 2050년 탄소제로를 추구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발표한 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51%로 야심적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오고 있으며, 2021년에 그린수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콜롬비아는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그리고 청정 수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린수소(hidrógeno verde)를 킬로그램 당 2달러 미만 가격으로 생산하여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콜롬비아 국내기업 2개사가 그린수소 생산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다. 2021년에 구성된 콜롬비



아수소협회에는 19개 기업이 참여중이다.

한국은 그린수소 생산단가를 줄일 수 없어 외국에서 그린수소를 수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콜롬비아가 호혜적인 수소협력의 대상국이 될 수 있다. 2022년 4월 카밀로 우리베(Camilo Uribe) 콜롬비아수소협회 회장(프랑스기업 ENGIE Colombia 사장)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가 추진중인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GHIAA)’ 가입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콜롬비아수소협회는 한국의 H2Korea와 협력 MOU체결도 적극 추진중이다. 그린수소 생산과 운송 및 관련 기술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미래의 먹거리임에 틀림없다.

## 양국 미래협력의 방향

### 1. 호혜적인 협력

어느 나라든 외교의 목적은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외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았듯이 설득, 경고, 위협, 무력사용, 경제제재, 무기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여러 외교방법을 관통하는 정신은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어느 한 쪽에만 이익을 발생한다고 하면 이익의 균형에 다다를 수 없다. 말하자면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다.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지라도 상대방을 화나게 해서 타협이 깨진다.

한국과 콜롬비아 간에는 갈등사안이 거의 없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호혜적인 협력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한-콜롬비아 관계를 이끌어 온 정신은 참전에 대한 감사와 개발협력이었다. 양국 수교 60년을 맞아 양국협력의 기본정신이 호혜적인 협력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양국이 제3 개도국을 지원하는 3자 협력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민간기업 간의 협력

필자가 첫 번째 주콜롬비아대사로 근무했던 초기 1-2년간에는 우리기업들의 콜롬비아에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다. 당시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고, 한-콜롬비아 FTA교섭도 막바지였기 때문에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많은 대표단이 콜롬비아를 방문했다. 필자가 공관장 임무를 마치고 2014년 10월말 콜로비아를 떠날 당시에 한국 진출기업의 숫자가 37개나 되었다.

그런데 2022년 5월 현재 콜롬비아 주재 한국기업의 숫자가 22개로 줄어들었다.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분야의 콜롬비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8년간 우리기업이 1억달러 이상의 콜롬비아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 건도 참여하지 못했다. 한-콜롬비아 교역규모도 FTA이전보다 줄어들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수교 6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간 협력이 활발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정부간 그리고 양국국민 간 우호협력관계가 공고해졌다. 그러나 정부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고 협정, MOU 등 협력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을 지라도 정부간 협력의 수준이 실질적인 협력의 수준과 반드시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양국관계는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양국 민간기업들 간의 실질적인 그리고 호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의 풍부한 에너지, 광물, 농산물, 유전자 자원 그리고 숙련된 인력과 한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민간기업 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 3.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배려

위에서 보았듯이 콜롬비아의 한국에 대한 기대와 한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mismatch)가 있다. 그런데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다. 건강한 양국관계를 위해서는 그러한 불일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즉,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배려와 협력이다. 콜롬비아는 자국산 농산물을 한국에 더 많이 수출하기를 희망하며 한국기업이 콜롬비아에 투자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많은 한국기업이 콜롬비아의 국책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호





혜적인 새로운 협력분야를 찾기를 희망한다. 외교는 주고받기라고 했다. 상대국의 기대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를 도와주면서 각자의 국익을 추구해야한다.

## 맺음말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콜롬비아와의 관계는 중남미 어느 국가와의 관계 보다도 더 좋다. 그러한 긴밀한 관계는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난 60년간 한국의 적극적인 개발협력, 고위인사 교류, 전략적 동반자관계 설정, 한-콜롬비아 FTA 체결 등을 통해 더욱 심화되어왔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규모나 투자규모가 양국 국민들 간의 심리적인 가까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 60년간의 양국 협력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한-콜롬비아 6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야에서의 협력이 유망한 지에 관해서도 필자의 생각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양국관계가 호혜적 협력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양국 정부 간 협력과 더불어 양국의 민간기업들이 호혜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피력했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양국우호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양국관계는 성숙한 관계, 사람의 나이로 '이순'의 경지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 양국의 미래세대가 해야 할 일도 많다.





**환갑 : 콜롬비아-한국 관계를 위한**

**새로운 주기**



프란시스코 호세 코이 그라나도스

Francisco J. Coy G.

콜롬비아 외교부 차관

## 서론

### 한

국과 콜롬비아 사이를 가르는 수 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태평양은 양국이 대외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이며, 강력하고 광범위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대외 관계는 양국은 물론 양국이 상호 작용하는 국제 무대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왔으며, 양국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대재앙 이후의 재건, 냉전과 국제 관계의 이데올로기화, 70~80년대의 근대화 와 산업화 과정, 양극 체제의 종식과 시장 경제의 공고화, 21세기의 상호 연관적이며 다자적인 세계 무대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도전 과제의 고착 등을 함께 목도하여 왔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 유엔 헌장이 채택되고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 기제가 제도화됐으나,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이 이를 위협했다. 수많은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콜롬비아는 한국전쟁에 파병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였다. 파병 결정의 타당성과 추후 활용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동 결정은 이후 오랫동안 명백히 강화되고 확대된 양자 관계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양국의 형제에는 각국의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성장을 목격하고 상호 발전을 관계의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구축되어 왔다.

콜롬비아와 한국간 관계의 한 주기가 시작된 지 60년이 지났다. 오늘날 도전적이고 복잡하며 많은 것이 요구되는 세계에서 우리 두 국가는 한국 문화에서 ‘환갑’이라고



블리우는 전기, 즉 삶의 한 주기인 60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한 주기를 맞이한다. 이에 대한 글을 작성해 달라는 상냥한 요청을 받아 작성된 본고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양자 관계의 근본적인 요소 중 일부를 선정하고, 더욱 강화된 양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광대한 태평양으로 연결된 두 국가가 사회, 경제 및 문화 발전의 주축으로 삼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역동적 우호관계

콜롬비아와 한국이 워싱턴 D.C.에서 수 차례의 회동과 협상을 가진 결과,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 후 10년이 지난 1962년 3월 10일 양국이 수교를 맺었다. 1962년 7월 10일, 정일관 주미국대한민국대사는 콜롬비아 겸임 대사로 신임장을 제출하였으며, 콜롬비아에서는 당시 일본 주재 대사였던 라파엘 나바스 파르도(Rafael Navas Pardo) 장군이 한국 겸임 대사로 임명됐다. 기록에 따르면 2년 후, 1964년 7월 9일, 엔리케 몰라노 캄푸사노(Enrique Molano Campuzano) 당시 주일콜롬비아대사가 최초로 한국 겸임 대사로서 신임장을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10년 후, 한국 정부는 보고타에 외교 공관을 설립하며 외교 관계의 필수 행보를 내디뎠다. 송기도 전 대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한국인들이 콜롬비아에 가지고 있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커피와 섬유 제품의 수입 등으로 이어지며 양국 간 통상 관계를 고조시켰다. 1978년에는 콜롬비아 대사관이 서울에 설치되었으며, 비자 면제 협정과 과학기술협력 협정(1981), 통상 협정(1986) 등, 80년대에는 다수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양자 관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1980년대 말 한·중·일을 국빈 방문한 비르힐리오 바르코(Virgilio Barco) 대통령은 우연히, 그러나 운명적으로 한국의 서울대병원에서 성공적인 복막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3주 간 한국 의료진들의 치료를 받은 후 바르코 대통령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콜롬비아에 귀국하였다.

1990년대에는 두 나라 모두 매우 큰 전환을 맞이했다. 콜롬비아는 마약 밀매와 여러 불법 무장 단체들의 토지 점유로 인한 무력 분쟁이 극에 달한 1991년 정치 헌법을 제



정했던 한편, 한국은 완전한 민주 정부로의 이행을 이룩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였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 후, 21세기를 맞아 양국관계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첫 10년 간 정치 및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한국 기관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는 콜롬비아의 무력 충돌 극복 과정에 필수적이었다. 이는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콜롬비아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중남미 전략적 협력 파트너 국가로 발돋움한 2011년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마찬가지로 2014년 한·콜롬비아 FTA 의회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무역과 투자 교류 역시 정점을 찍었다. 12월 26일 ‘법률 제1747호’를 통해 콜롬비아 의회는 세계 편입에 필수 요소인 관계 강화에 대한 콜롬비아 행정부의 노력에 정치적 지지를 보냈다.

## 태평양을 통한 전략적 동맹

전략적 협력은 각국의 경험과 상황에 맞게 채택되었다. 양국은 정치, 사회, 통상 및 문화 부문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대한민국은 콜롬비아의 글로벌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이다.

양국이 공유하는 전쟁 경험은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의 분쟁 후 과정에서 한국의 대 콜롬비아 협력 정책의 중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평화적 공존과 더불어 모든 시위에서의 폭력 극복과,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은 오늘날 콜롬비아와 한국을 하나로 묶고 있다. 1,200만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지원을 통해 건립된 집중재활센터(CRI)는 2016년 개소 이후 군복무 중에 발생한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를 겪는 콜롬비아 군인들에게 사회 적응 과정을 위한 차별화된 장소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는 KOICA를 통해 이루어지며, 장애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장병 6,500여 명 이상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2014년과 2020년에 이루어진 두 척의 전함 공여와 재 취역 및 활용을 위한 기술 지원은 태평양과 카리브 해 연안에서의 콜롬비아 해군 역량 강화에 일조하였다. 61명 탑승 가능한, 태평양에 배치된 동해급 초계함인 ARC Nariñ함과 카리브해에 배치된 포항급 초계함 ARC Almirante Tono함은 산 안드레스(San Andrés)와 프로비



덴시아(Providencia) 제도의 주권 행사 및 인도주의적 임무 수행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 이전 부문의 강화와 함께 ‘콜롬비아 국영해군조선소(COTECMAR)’와 한국의 STX 조선소 간 산업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여러 목표들 중에서도 2013년에는 3척의 연안경비정(CPV)의 건조 프로젝트가 진행, 콜롬비아의 지리적 상황에 맞춰 동 선박들을 설계하였다. STX의 관리 감독 하에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 세 척의 선박 건조 사업은 양국 간 중요한 과학 기술 협력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덕분에 콜롬비아가 해당 부문을 선도하게 되었다.

양국 간 군사훈련교류 역시 중요하다. 한국군의 태권도 교관들이 상주하며 태권도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업무 협약은 ‘호세 마리아 코르도바(José María Córdova)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기초 훈련 프로그램 강화에 기여하였다. 동 협약의 중기 목표는 태권도 교련의 콜롬비아 국군 양성 학교 및 콜롬비아 공군으로의 확대와 ‘군사종합전투학교(Escuela Superior de Guerra)’ 및 ‘군사교육원(Centro de Educación Militar)’ 등 기타 훈련 기관에서의 교관 교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콜롬비아 조선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통한 주요 산업 성장에 대한 기여를 언급해야 한다. 동 사업을 통해 콜롬비아 전문 기술 인력이 훈련을 받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콜롬비아 국영해군조선소(COTECMAR)’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기술 인력 또한 양성되고 있다. 본 사업의 파트너는 이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인 창원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와 KOICA, STX이다.

양국 간 군사관계 강화 관련, 유엔군사령부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남북한 사이 비무장지대(DMZ) 통제 작전에 대한 콜롬비아의 지지는 계속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휴전협정 유지 및 이행을 목적의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을 위해 수많은 장교들을 순환 파견하였다. 유엔사령부에서 콜롬비아가 기여국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은 한·콜롬비아 양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주요 축 중 하나이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EP)과의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그리고 ‘완전한 평화’



를 향한 콜롬비아의 소명으로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지지는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증차대할 것이다. 이는 비단 국방 분야 기술 이전과 지식 공유, 상이군인들의 재활 지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차원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주요 전략을 기획하는 주무 부처인 대한민국 통일부를 통한 경험 교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부문은 한국과 콜롬비아가 다양한 평화 시나리오에 대한 역학과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유연성에 대한 여러 기제를 현실화하고, 기술적 지식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

양국 경제 관계는 최근 10년 간 공고해졌다. 한국은 현재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 및 발효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며, 2016년 7월, 동 협정 발효 이후로 한국과 콜롬비아의 고위급 실무 회담에서 FTA는 항상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FTA는 상품 무역을 비롯한 여러 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으로, 여기에는 서비스, 투자, 공공조달, 협력 등이 포함된다. 콜롬비아에게 FTA는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에 있어 필수적인 특혜 관계를 세계 경제 핵심 국가와 구축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FTA 발효 이후로 수출은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실제로 한국과의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5년, 비광물 에너지자원 수출은 1억 4,32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FTA 발효 이후 동 부문의 대 한국 수출 규모는 총 13억 7,530만 달러로 2016-2021년 간 연 평균 1억 9,650만 달러, 약 12%의 성장률을 보였다.

2021년 기준, 콜롬비아에 있어 한국은 1.4%의 점유율로 제17대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 측면에서도 전체 수입의 1.6%를 차지하는 12대 공급국이다. 아시아 시장만 놓고 보면 2021년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3대 콜롬비아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 부문에서는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제 4대 수입 대상국이다.

양자 관계는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강화되었다. 2021년 콜롬비아는 향후 4년 간 한국 ODA의 중점협력국으로 재차 선정되었으며, 대(對) 콜롬비아 협력의 4대 주요 축으로는 지역 개발, 교통, 산업 개발 및 평화 정착이 꼽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국은 콜롬비아와 수 차례에 걸쳐 수직적 협력을 일궈온 파트너였으며, 이를 통해 인력 양성과 의료 부문의 모범 사례 교류, 다수의 금융 공여 및 코로나 19 환자들을 위



한 엔가티바 병원 확장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경제, 정치 및 협력 관계는 양국 간 문화, 과학 및 교육 교류의 광범위한 의제를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교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간 정치적 관계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의 풍부함을 배우는 사람과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립발레단과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국 유니버설 발레단, 한국 민속무용단, 서울시립국악단, 소프라노 박혜성과 피아니스트 손얼음 등 많은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방문했다. 한편 콜롬비아로부터 기타리스트 닐코 안드레아스(Nilko Andreas), 에렌시아 팀비키(Herencia Timbiquí) 그룹 및 훌리오 빅토리아 라이브 밴드 (Julio Victoria Live Band)와 여러 부문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한국 땅을 밟았다.

중남미를 사로잡은 K-pop 그룹, 드라마, 소설, 영화 등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향 역시 언급해야 하는 요소이다.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고 있는 수준 높은 한국 영화에 관심 있는 청중들이 몰려드는 ‘한국 영화 주간’이 매년 여러 도시에서 기획, 개최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양국 대학 및 교육 기관 간 교수 및 학생 교류는 문화와 과학·기술 부문의 여러 이니셔티브를 연결한다. 매년 한국 정부는 콜롬비아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제도(GKS)를 운영하여 장학금을 제공하고, 수백 명의 콜롬비아 장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혜주의에 따라 한국 청년들 역시 ‘콜롬비아 장학청(ICETEX)’과 콜롬비아 대학계가 협력하여 제공되는 콜롬비아 장학 프로그램(펠로우십)을 활용하여 콜롬비아에서 수학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언어 강화를 위한 양자 이니셔티브는 한국 문화 외교의 국제적 물결로 특징되는 현상인 한류에 관심있는 콜롬비아 청년 규모의 증가로 나타나며, 이는 대한민국이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식 기관인 보고타 세종학당의 개소로 더욱 강화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인 TOPIK의 콜롬비





아 내 발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더해 상당 수의 한국 청년들 역시 스페인어 학습을 위해 콜롬비아를 찾고 있으며, 스페인어 학습을 진흥하고자 하는 콜롬비아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최근 10년 간 ‘카로 이 쿠에르보 연구소(Instituto Caro y Cuervo)’의 온라인 스페인어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 기관들은 특별한 리더십으로 콜롬비아에 한국학회를 창설하였으며, 동 학회 회원 기관 26개 중 상당수는 높은 수준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 학계에서의 한국학 연구 심화와 양자 관계 증진에 목적을 두는 한국학회를 통해 최근 10년간 문화, 과학 및 교육 부문에 수백 개의 이니셔티브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한국에 관한 공동 연구에 반영되고 있다.

## 환갑 : 한국과 콜롬비아의 새로운 주기

수교 이후 60년 간 우리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전략적 외교 관계가 공고해지고, 확대되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해오고 있다. 전쟁이 한국과 콜롬비아를 하나로 연결하였다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평화는 수 년 전부터 양국이 강력한 형제애를 기반으로, 국제 사회의 동맹국으로써 국제 시스템의 변화와 각국의 내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되어 왔다.

‘환갑’이 의미하는 새로운 주기를 맞아, 양국은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인 ‘완전한 평화’를 대내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의지를 함께 구체화할 것이다. 한국도 주지하다시피 전쟁은 파괴와 후퇴, 그리고 죽음만을 초래할 뿐이다. 그렇기에 평화는 우리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함께 걸어갈 길이 되어야 한다.

평화는 단순히 물리적 폭력의 부재가 아니다. 평화는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국토 발전 및 지방 발전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마약 밀매 등 콜롬비아의 핵심 당면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민주적 제도와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향후 60년 간의 혁신적인 협력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의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할 시기이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이 이끄는 콜롬비아 정부는 협력, 무역 및 투자 부문에서 새로운 유망 부문을 활성화해 한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페트로 대통령은 한국의 급속한 산업 발전을 견인한 개발 모델에 대한 존경과 이 같은 국가 발전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만들었던 농지개혁법(1949년 제정, 1950년 개정)을 기반으로 한 농업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콜롬비아에 현재 글로벌 경제의 특질(기술과 지식, 지속 가능한 발전 등)과, 이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의 높은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제도적 강화, 학습과 재건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프라, 교통, 교육, 기술역량 협력 사업 관련 니즈와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지방 및 지역 당국 간 더욱 확대된 협의체 마련이 이상적이다.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 하천 및 산림 보존 관련 공동 행동 심화와 더불어 대 중남미 경제성장, 포용 및 협력 정책 전망은 우호 동맹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콜롬비아 양자 관계의 새로운 전기에서 인적 요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역내 균형 발전을 위한 행동 확대와 태평양 발전에 대한 콜롬비아의 혁신적 방안 고찰은 우리 양자 관계의 증진을 촉진할 것이다.



## 제2부

# 한-콜롬비아 통상·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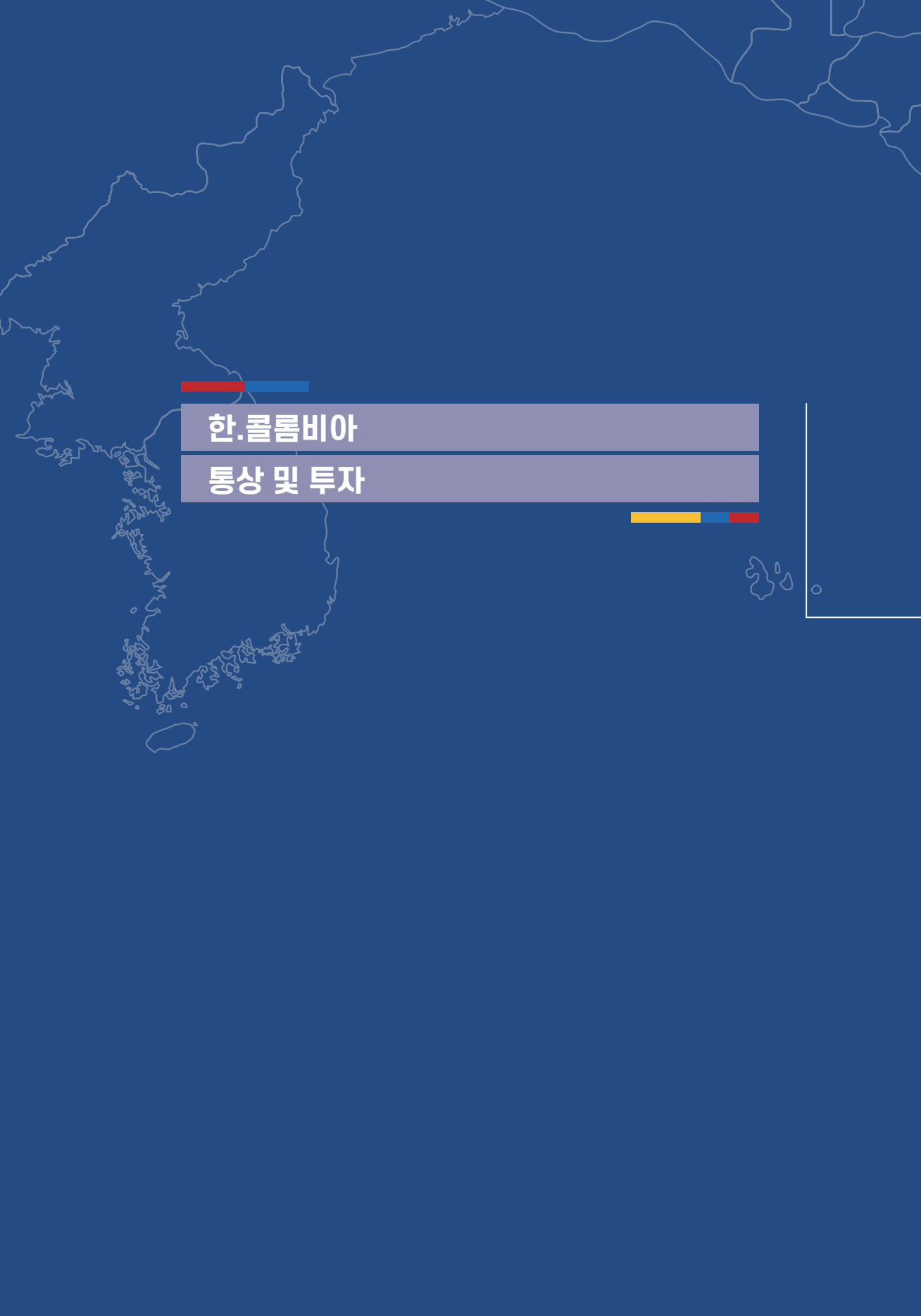
### 한·콜롬비아 통상 및 투자

김원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무역, 투자 그리고 산업 장

니콜라스 우리베 루에다 (Nicolás Uribe Rueda)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회장



**한.콜롬비아**

**통상 및 투자**



김원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서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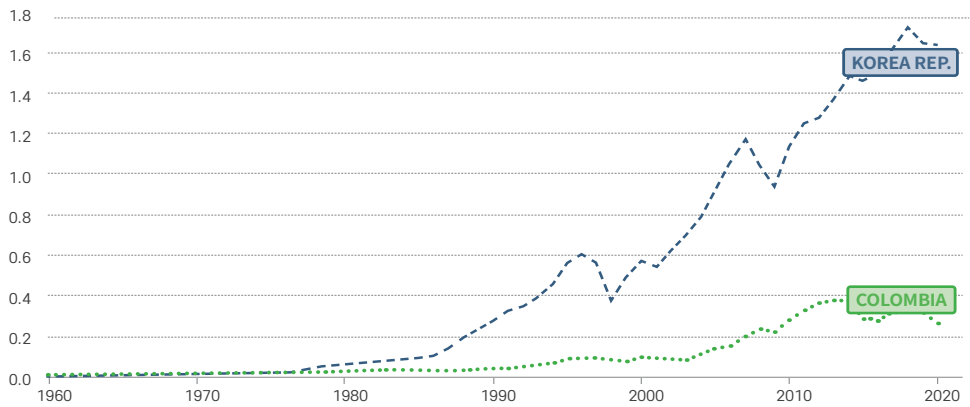
국과 콜롬비아는 상호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60년동안 각자 파란만장한 정치·사회적 격변을 겪어왔다. 한국은 군사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했고, 콜롬비아는 좌익 게릴라 및 마약조직의 준동으로 장기간의 사회적 불안을 겪은 끝에 2016년 주요 게릴라조직인 콜롬비아혁명군(FARC)과의 평화협정이 타결되면서 사회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같이 두 나라가 겪은 정치사회적 변화는 경제실적의 추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GDP규모를 비교해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양국이 국교를 수립한 1962년 콜롬비아는 49.6억 달러로서 한국의 28.1억 달러에 월등히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었으나 한국은 경공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1968년 콜롬비아의 경제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2020년 한국은 1.64조 달러, 콜롬비아는 2,714억 달러로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1인당 GDP를 비교해볼 때에도 <그림 2>에서 보듯이 1962년 콜롬비아는 \$289 달러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106 달러로 매우 빈곤한 상태였으나, 한국은 1974년부터 콜롬비아를 추월해 2020년 3만1,597달러에 이룸으로써 콜롬비아의 5,889달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수많은 요인 가운데 콜롬비아는 장기간의 사회불안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면, 한국은 비교적 정치안정 속에 산업화 모델이 주효했다고 대별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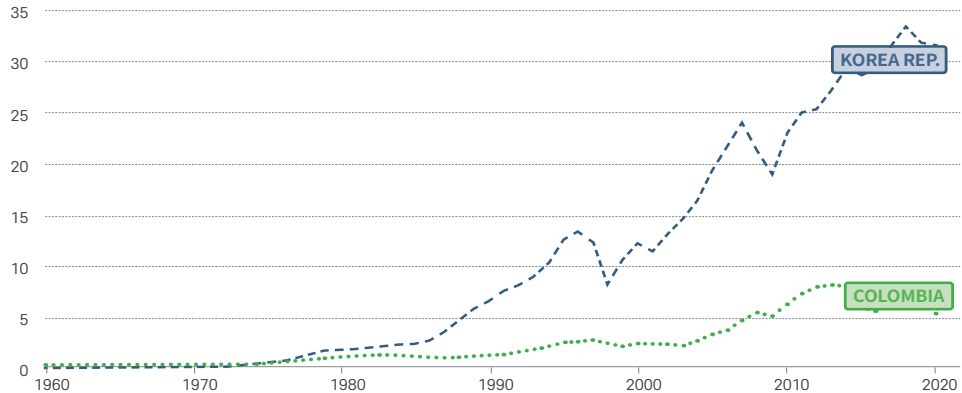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할 점은 콜롬비아 경제는 중남미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년들어 콜롬비아는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경제규모 3위 자리를 놓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경쟁해왔으며, 베네수엘라 경제가 2015년 이후 추락하자 확고한 4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림 3>에서 보듯이 2020년 1인당 GDP가 전년도의 6390달러로부터 하락하긴 했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라고 본다면, 콜롬비아의 구매력은 꾸준한 상승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에서 보듯이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가 뚜렷한 하강세인 점과 대비된다. 단, 콜롬비아는 아르헨티나에 비해 <그림 5>에서 보듯이 소득불균등 지수인 지니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 정치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그림 1 한국과 콜롬비아의 GDP 비교



출처: The World Bank,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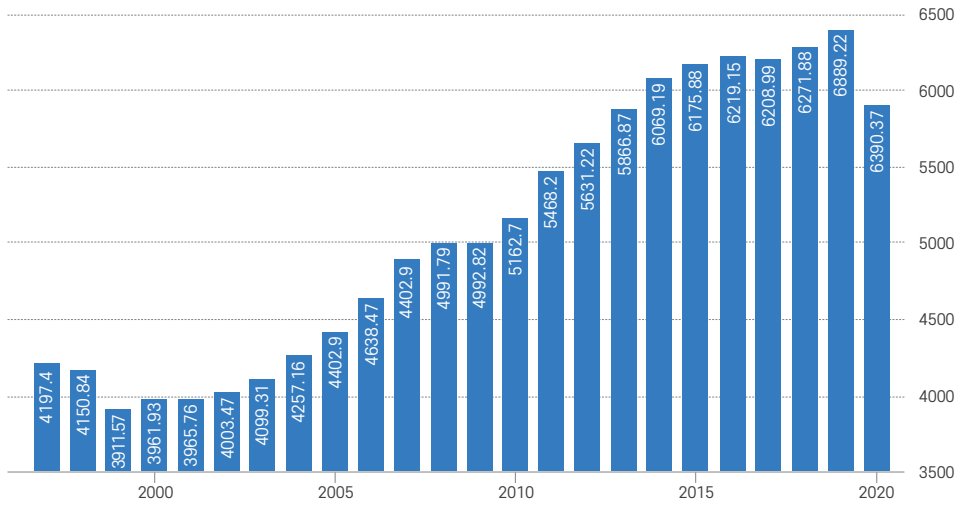
그림 2 한국과 콜롬비아의 1인당 GDP 비교



출처: The World Bank,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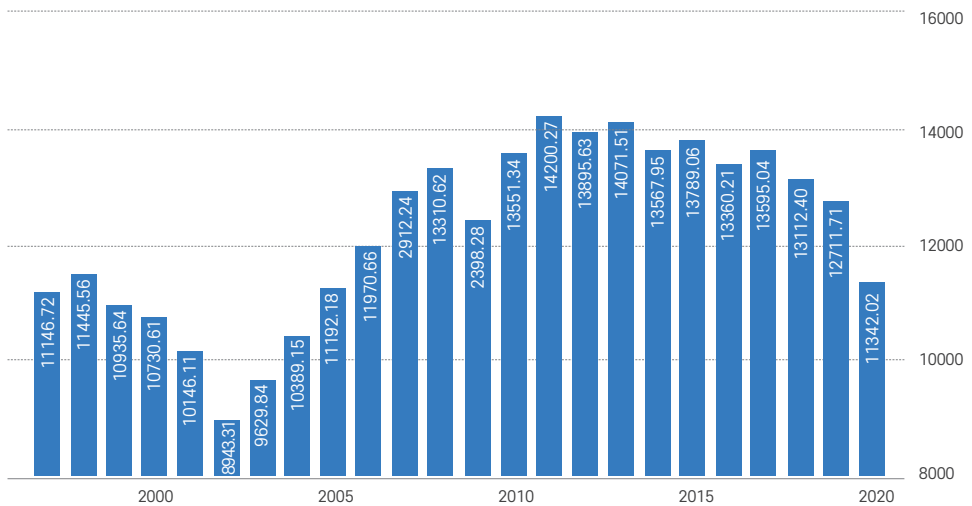


그림 3 콜롬비아의 1인당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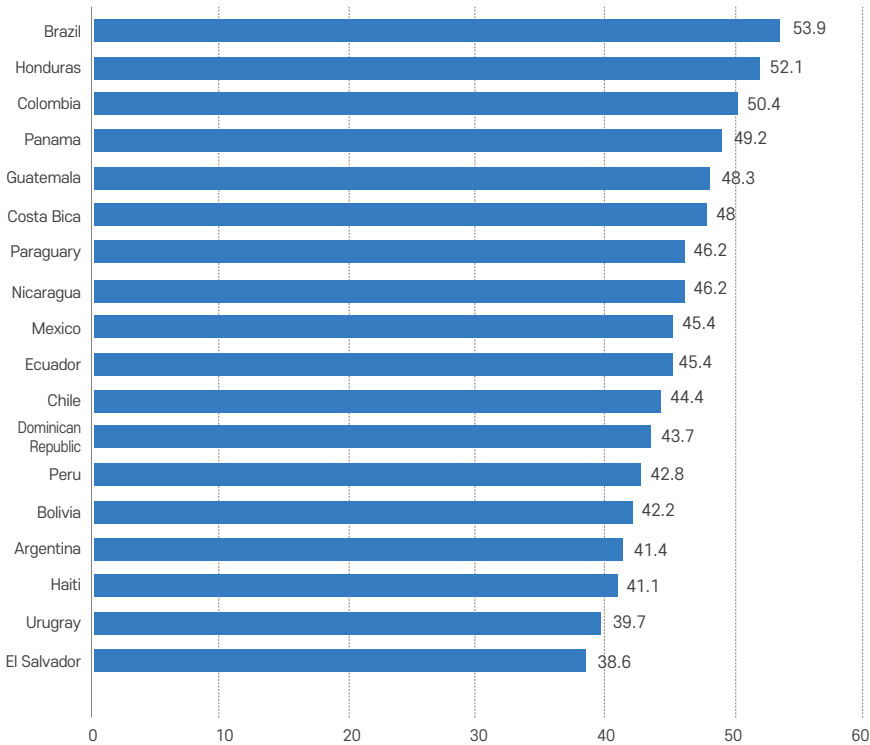
출처: Trading Economics (2022).

그림 4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 (2022).

그림 5 중남미 국가별 지니계수 순위 (2018)



출처: Statista.com (2022).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간의 통상 및 투자관계를 설명하려면 이러한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양국간 무역의 규모가 잠재성에 비해 왜소하거나 투자가 변동성이 크거나 미미함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환경적 요인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2014년 발간된 한-콜롬비아 수교 50주년 기념 서적에서 기술한 내용(김원호 2014)의 후속편이다. 당시에는 양국간의 통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발간해인 2014년은 양국간 총교역 규모가 21억 달러를 상회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고점으로 남아있다.

필자의 2014년 글이 당시의 역동적인 통상관계를 미시적인 접근법으로 서술했다면, 본고는 최근의 추이를 담아내되 거시적인 접근법으로 양국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군다나 본 특별 서적에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개발협력 관련 글이





별도로 실리기 때문에 동 분야에 관한 중복서술을 피하는 한편, 본 서적에서 거시경제 추이를 다루는 장이 없는 만큼 양국 경제 전반의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의 변화상을 해석해내려고 한다. 또한 이같은 시각에서 향후 관계발전의 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양국의 경제발전사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각자의 개발 우선순위를 이해함으로써 양국 경제환경의 차별성을 찾아본다. 특히 탈냉전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양국의 대외개방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어서 무역과 투자로 나누어 양국 경제관계가 개방정책을 포함한 정책 환경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 양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통상환경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일제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후 1962년까지 기초생필품의 수입대체산업화(ISI)를 경제개발 모델로 추구했다. 그러나 ISI전략이 갖는 한계, 즉 자원빈곤국가로서 원부자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국내시장에 국산품을 공급하는 경제구조로부터 유발된 국제수지 불균형은 한국경제로서는 버틸 수 없는 한계였다. 따라서 수출진흥을 통한 외화획득이 필요했고, 수출품으로서의 농산물과 광물은 경쟁력도 없고 풍부하지도 않아 결국 제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1960년대의 제조업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 중심이었으나 곧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임금압력이 높아진데다, 베트남전쟁의 패망과 함께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단, 이때 중화학공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1970년대의 한국의 산업화 모델은 다시 ISI로의 회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국제금리 상승과 함께 한국경제는 대부분의 중남미국가 경제와 마찬가지로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은 중화학공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증진 뿐이었다. 정부로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점진적인 수입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자생력을 높이는 기업들에 대한 간접적 지원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이같은 개방 및



경쟁정책의 성과는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탈냉전과 함께 세계무역환경이 글로벌시대로 돌입하자 정부는 기업주도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문간의 투자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이는 오히려 무분별한 투자경쟁과 공급과잉을 불러 급기야 많은 대기업이 도산하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한국경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금융시스템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무역정책 수단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경제는 산업화와 수출증대 모델을 통해 경제규모를 급속히 확장시킬 수 있었다.

반면, 콜롬비아는 잠재력에 비해 매우 저성장을 지속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콜롬비아는 일반적으로 중남미 국가중 칠레와 더불어 신중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펴온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Vargas et al. 2012). 콜롬비아는 1980년대 페루나 브라질과 같이 초인플레이를 겪지 않았으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1980년대) 기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나 채무상환일정 재조정을 하지 않은 유일한 중남미 국가였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국토면적이 114만㎢로 한국의 11배에 달하지만 안데스산맥 줄기가 콜롬비아에 이르러 서부(Occidental), 중부(Central), 동부(Oriental) 등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국토통합을 이루지 않는 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콜롬비아는 국가경제통합을 위한 인프라확충 사업을 펼치지 못해 경제현실은 늘 ‘분할경제’ 또는 ‘파편경제’로 표현되어 왔다. 특히, 콜롬비아는 남미국가중 유일하게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연해있어 지리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잇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편향적인 무역구조 때문에 대서양 연안 도시에 비해 태평양 연안도시의 발전이 지체되었다.

이러한 비효율성과 경제성장의 비역동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다. 그중 Luzardo-Luna(2019)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콜롬비아의 저성장의 근본적인 이유가 생산성 정체에 있으며 이는 콜롬비아가 19세기말부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기술진보의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기초 생산요소에 의존했을 뿐이며 역사적으로 증기기관, 대량생산,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 뒤처짐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제불황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1870-1914년 기간중 많은 자원보유국들은 증기기관 기술을 이용해 철도 등 운송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신용도가 낮아 인프라확충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장기침체를 겪었고, 뒤늦게 1914-1929년 기간중 외자를 유치해 운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커피 생산지와 항구를 연결하고 수출주도 성장을 경험했다. 그후 대공황 이후로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ISI정책을 펴며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행하면서도 제조업부문에 대량생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자를 실행하기 보다는, 커피 등 농업부문에 자원배분을 집중시킴으로써 산업도약의 기회를 상실했다. 다만, 1970년대초부터 1978년까지 경제자유화 정책을 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진작시키는 한편, 점진적인 수출진흥정책을 편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1994년부터는 경기부양을 위한 팽창 재정정책을 펴면서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외채부담이 가중되어 1999년 금융위기를 맞았다. 1990년대 콜롬비아는 ICT기술을 활용하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2년 이후로 콜롬비아가 빠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시작한 것은 게릴라 소탕에 따른 투자활성화에 기인한 것이며, 생산성 증대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Ocampo (2015)는 콜롬비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1990년대초부터 취해지고 있는 시장자유화 개혁과, 분권화된 균등사회 실현을 위한 1991년 헌법, 원자재 붐, 국제무역 붐(1995-2007),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성, 송금 등을 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에 와서는 석유수출의 증가에 따른 실질 평가절상과 함께 여타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러시아 등 여타 신흥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거의 70년간 저성장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콜롬비아 경제는 1999년 -4%대의 추락을 겪은 후 2003년까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1999년 금융위기와 함께 상실한 투자적격 지위는 2011년에야 회복되었다.

이상 두 이론을 종합해보면, 콜롬비아는 1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던 만큼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국제무역의 증감에 따라 거시경제상황이 영향을 받는



구조이며, 또한 투입생산요소를 기준으로 볼 때 사회안정을 달성할 때에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제투자자본의 유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상의 콜롬비아 경제발전사의 간략한 서술은 콜롬비아 경제가 장기간 정부주도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달리 정부주도의 금융공급정책인 이른바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이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사회안정 요인이 거시경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경제의 수출주도 성장구조와 콜롬비아의 1차산품 의존구조, 그리고 콜롬비아의 사회안정 여건은 이하에서 검토하는 무역과 투자 추이에 결정적인 설명변수가 될 것이다.

## 양국 통상관계의 발전

콜롬비아는 <그림 6>에서 보듯이 GDP대비 무역비율이 1965년 22%로 한국과 같은 수준을 보였지만, 그 후로는 한국과 역전된 모습을 보인다. 즉, 한국은 무역중심의 경제정책을 편 반면, 콜롬비아는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1990년 35%를 기록하며 한 단계 올라선 이후 오늘날까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게 콜롬비아가 갖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의미는 통상정책면에서도 오랫동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콜롬비아는 다자무역체제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1981년 가입했으나 초기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다가 1989년을 기점으로 개방의 가속화 시대로 진입했다. 특히 Virgilio Barco Vargas 정부(1986-1990)는 처음에는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했다가 임기말에 와서 비관세장벽 및 양적규제 철폐와 함께, 평균관세율을 11%로 낮추는 등 급진적인 개방조치를 단행하였다 (Ocampo & Villar 1992). 그의 후임인 Cesar Gaviria 대통령(1990-1994)도 1991년 콜롬비아 정부 최초로 대외무역부(Mincomex)를 창설하였으며, 초대 장관으로 Juan Manuel Santos를 임명하였다. Mincomex는 2002년 Alvaro Uribe 정부(2002-2010)하에서 다시 상공관광부(MCIT)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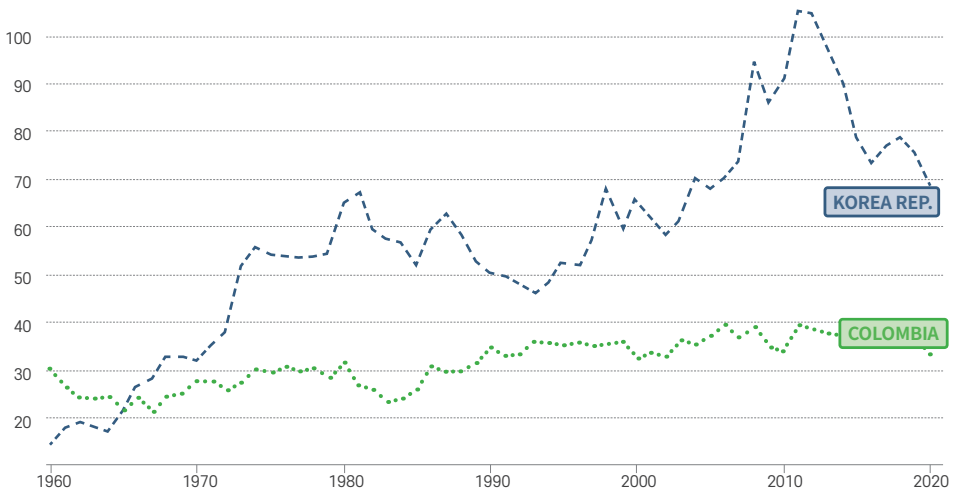
콜롬비아의 정치 사회질서가 안정을 되찾은 Uribe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콜롬비아의 구매력이 되살아났고, 후임자인 Santos 대통령(2010-2018)이 반군단체 FARC와의



평화협상을 본격 추진하고 2016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콜롬비아의 통상규범은 개방일변도로 확대되었다. 특히, 개방적 지역주의를 주창하는 태평양동맹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을 필두로 아시아국가들과의 FTA에 돌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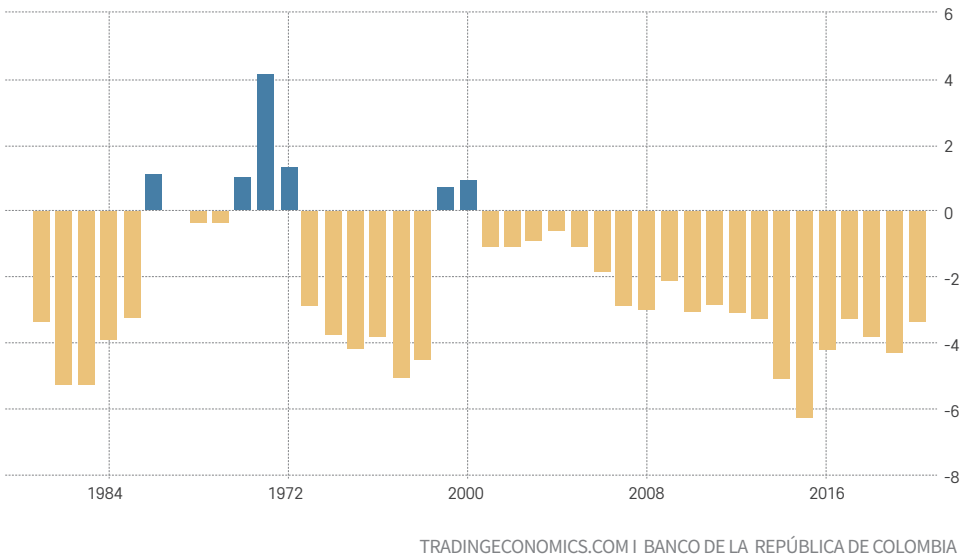
문제는 콜롬비아가 본격적인 개방이후 거의 만성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콜롬비아 경제는 아시아금융위기 때인 1997~1998년 GDP대비 -5% 전후의 경상수지 적자를 겪은 이래 2014~2015년에도 -6% 전후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콜롬비아 정부의 통상정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선거철 마다 개방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나 석유 석탄과 같은 기초 수출산업에 대한 과다의존 논의가 반복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8>이 나타내는 2014년 이래 콜롬비아의 수출과 수입 추이는 무역적자폭이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교역규모 자체가 동력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한국과 콜롬비아의 GDP대비 무역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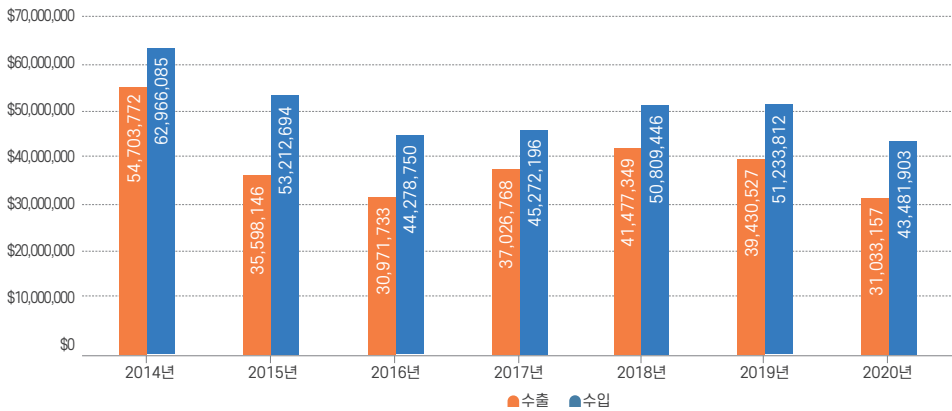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 (2022).

그림 7 콜롬비아의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



출처: Trading Economics (2022).

그림 8 콜롬비아의 무역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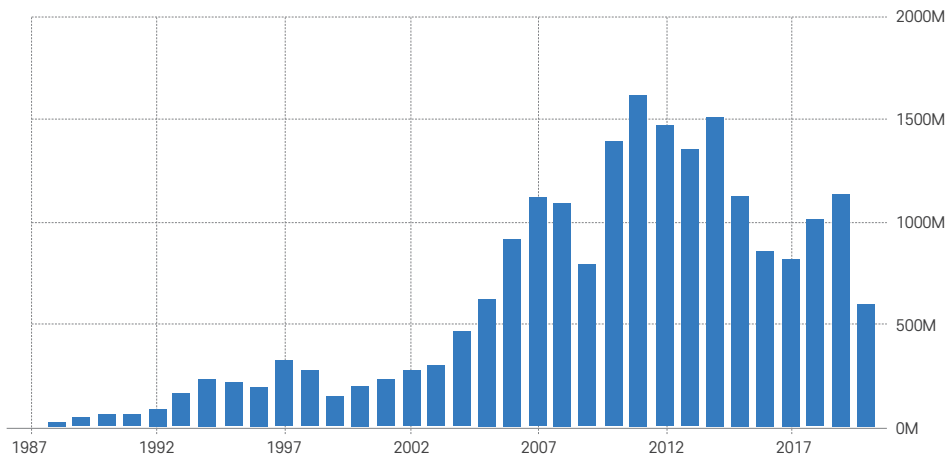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과 콜롬비아간의 무역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 및 수입을 보여주는 <그림 9>와 <그림 10>와 같이 우선 양국 교역은 1990년대 이전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부터 콜롬비아의 개방정책과 함께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국간 총교역은 <표 1>에서 보듯이 2014년 21억 달러 수준에 달한 이후 축소추세이며, 2021년 16억 달러 수준까지 크게 떨어졌다. <그림 8>에서 본 바와 같이 콜롬비아의 총교역규모도 역시 축소 추세이기도 하다. 한국과 콜롬비아간 무역수지는 2011년 한국이 12억 달러의 흑자를 본 것을 정점으로 불균형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최근에는 균형선 위아래로 드나들 정도에 이르렀다.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은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있다. 대콜롬비아 수출은 자동차 업종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콜롬비아의 택시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수출품목을 집단별로 살펴보기 위해 HS 2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 2>에서 보듯이 10대 수출품목의 대콜롬비아 총수출대비 비중은 2011년 93%에서 그나마 2021년 86%로 낮아졌다. 특히 2011년 경우는 자동차 품목 만으로 55.8%를 차지했었다. 따라서 비록 동 기간동안 총수출금액은 낮아졌지만, 콜롬비아시장 진출저변은 더 넓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한국의 의료장비가 10대 수출품목에 들어간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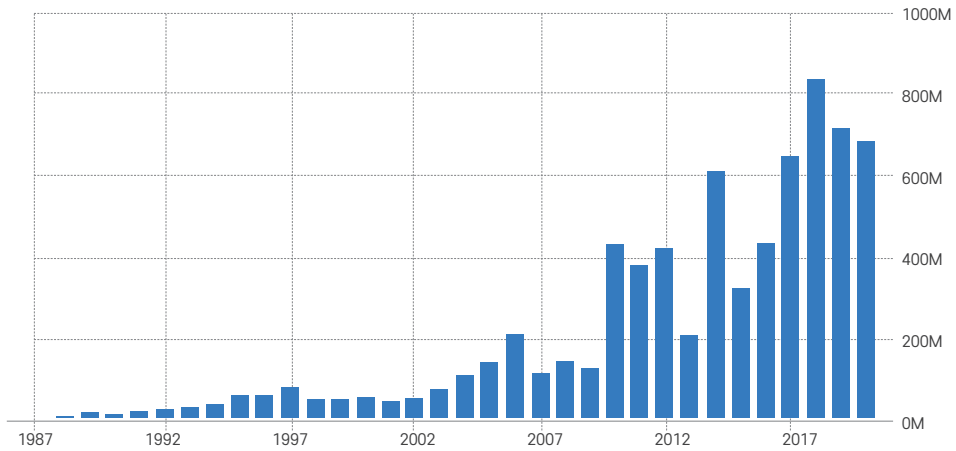
**그림 9**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추이



COMTRADE | TRADINGECONOMICS.COM

출처: UN COMTRADE data base, Trading Economics (2022)에서 재인용.

그림 10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입 추이



COMTRADE | TRADINGECONOMICS.COM

출처: UN COMTRADE data base, Trading Economics (2022)에서 재인용.

표 1 한국의 대 콜롬비아 수출입 추이 (단위: 천달러, %)

년	수출		수입		총교역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2년*	440,728	18.1	248,379	33.4	689,107	192,349
2021년	898,174	51.4	704,076	2.9	1,602,250	194,098
2020년	593,418	-48.1	683,976	-4.8	1,277,394	-90,558
2019년	1,143,075	13.0	718,214	-13.9	1,861,289	424,861
2018년	1,011,626	24.3	834,392	28.1	1,846,018	177,234
2017년	813,718	-4.6	651,351	50.5	1,465,069	162,367
2016년	853,196	-24.4	432,729	33.8	1,285,925	420,467
2015년	1,128,951	-25.2	323,482	-46.8	1,452,433	805,469
2014년	1,509,399	12.4	607,608	194.1	2,117,007	901,791
2013년	1,342,312	-8.5	206,586	-50.2	1,548,898	1,135,726
2012년	1,467,701	-9.1	414,770	9.1	1,882,471	1,052,931
2011년	1,613,984	16.2	380,014	-12.1	1,993,998	1,233,970
2010년	1,388,553	74.2	432,139	245.9	1,820,692	956,414
2009년	797,029	-26.9	124,918	-12.9	921,947	672,111





년	수출		수입		총교역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8년	1,090,759	-2.7	143,429	23.3	1,234,188	947,330
2007년	1,120,657	22.8	116,309	-43.4	1,236,966	1,004,348
2006년	912,900	46.4	205,533	50.2	1,118,433	707,367
2005년	623,601	35.7	136,795	28.6	760,396	486,806
2004년	459,476	54.9	106,339	39.7	565,815	353,137
2003년	296,559	9.0	76,143	55.7	372,702	220,416
2002년	272,185	20.4	48,905	15.7	321,090	223,280
2001년	226,147	12.4	42,271	-20.1	268,418	183,876
2000년	201,144	31.8	52,894	11.0	254,038	148,250
1999년	152,647	-43.9	47,645	-8.6	200,292	105,002
1998년	271,908	-16.2	52,138	-32.1	324,046	219,770
1997년	324,528	67.5	76,765	35.0	401,293	247,763
1996년	193,794	-11.0	56,851	0.0	250,645	136,943
1995년	217,694	-6.7	56,849	66.6	274,543	160,845
1994년	233,433	44.2	34,124	17.8	267,557	199,309
1993년	161,848	115.0	28,977	17.8	190,825	132,871
1992년	75,286	41.9	24,602	22.8	99,888	50,684
1991년	53,038	-8.3	20,037	55.7	73,075	33,001
1990년	57,866	22.0	12,868	-14.1	70,734	44,998
1989년	47,448	62.7	14,974	126.4	62,422	32,474
1988년	29,155	39.8	6,613	-44.2	35,768	22,542
1987년	20,848	81.8	11,854	1.2	32,702	8,994
1986년	11,468	107.7	11,716	-6.7	23,184	-248
1985년	5,520	-91.2	12,552	-81.9	18,072	-7,032
1984년	62,781	111.8	69,219	167.1	132,000	-6,438
1983년	29,636	101.1	25,919	731.2	55,555	3,717
1982년	14,738	59.0	3,118	10.4	17,856	11,620
1981년	9,271	-57.1	2,825	-43.7	12,096	6,446



년	수출		수입		총교역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80년	21,603	127.2	5,016	46.4	26,619	16,587
1979년	9,507	41.4	3,427	-29.0	12,934	6,080
1978년	6,722	-39.1	4,825	809.4	11,547	1,897
1977년	11,030	840.3	531	-60.7	11,561	10,499
1976년	1,173	41.0	1,352	29.4	2,525	-179
1975년	832	-60.2	1,045	78.5	1,877	-213
1974년	2,090	96.8	586	-69.3	2,676	1,504
1973년	1,062	380.5	1,908	178.1	2,970	-846
1972년	221	262.3	686	3,472.9	907	-465
1971년	61	454.5	19	0.0	80	42
1970년	11	-56.0	0	0.0	11	11
1969년	25	0.0	0	0.0	25	25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2). / \*2022년은 5월까지의 추계.

표 2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 10대 품목 (2011-2021년비교, 천달러, %)

순번	품목명	2011년	품목명	2021년
		수출금액		수출금액
	총계	1,613,984	총계	898,174
1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00,231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79,385
2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26,198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67,404
3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27,206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3,633
4	철강	62,713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78,427
5	고무와 그 제품	48,403	철강	64,843
6	전기기와 그 부분품	41,641	전기기와 그 부분품	61,733
7	유기화학품	34,740	유기화학품	56,941
8	철강의 제품	32,324	의료용품	32,786



9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25,621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6,591
1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7,673	알루미늄과 그 제품	26,174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2).

표 3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입 10대 품목 (2018-2021 비교, 천달러, %)

순번	품목명	2011년	품목명	2021년
		수입금액		수입금액
	총계	834,392	총계	704,076
1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610,349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351,127
2	커피, 차, 마태, 향신료	89,724	커피, 차, 마태, 향신료	128,148
3	동과 그 제품	44,596	동과 그 제품	71,821
4	철강	33,110	철강	58,853
5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11,986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23,582
6	알루미늄과 그 제품	9,623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17,528
7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8,782	알루미늄과 그 제품	10,828
8	각종 조제식료품	7,996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10,498
9	기타 동물성생산물	5,006	각종 조제식료품	10,122
10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2,898	기타 동물성생산물	6,275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2).

반면,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입은 최근까지도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인은 콜롬비아인보다 커피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콜롬비아업계에 알려져

있는 바 (Kim et al. 2014: 55), 주요 수입품은 커피와 광물성연료(원유 및 유연탄)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두 품목만으로도 수입액이 고점이었던 2018년 대콜롬비아 총수입의 84%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68%로 낮아졌다.

즉, 농축산물 및 농가공품 등 비광물성 품목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주요 수입품내에서의 비중 분산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0대 수입품목의 비중은 각각 98%, 97%로 아직 콜롬비아 산품 일반에 대한 한국 수입업체의 관심 및 선호도가 매우 낮거나, 콜롬비아 업계의 대한국시장 진출의지가 부족함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콜롬비아로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커져가고 있음에 주목하며, 설탕, 계피, 과자류, 소고기, 가죽 등 품목의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일이다. 또한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수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커피의 경우 원두보다는 로스팅한 커피의 수출을 선호하고 있다. 더욱이 로스팅한 커피는 원두와 달리 원산지가 다른 커피와 혼합될 가능성이 낮아 콜롬비아 커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CCB 2021).

이상과 같이 여전히 양국간 교역규모는 매우 미미한 편이며, 품목 수나 양국간 무역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 역시 제한적이다. 이는 오늘날 양국간 교역이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해 변동성이 높으며 여전히 상호간의 시장을 알아가는 단계, 즉 실험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 투자관계의 발전

콜롬비아는 자원보유 여건 면에서 다른 안데스지역 국가들과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규모도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자원개발투자 대상지로 의미가 남다를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예컨대 페루나 칠레에 비해 한국의 투자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에서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래의 예측가능성과 자본수익률이다. 이중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 미래의 예측가능성은 정치안정과 행정의 투명성에 의해 좌우되며, 자본수익률은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제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불안이란 요소는 콜롬비아 경제의 설명변수로서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인 탈냉전 흐름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사회상황은 1985년 11월 혁명조직 M-19의 대법원 점거 사건을 기점으로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 게릴라와 마약 및 민병대 조직으로 인한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실향민(IDP)이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와 게릴라조직 FARC간의 평화협상이 2013년 5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인때에 즈음한 2013년 7월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인구의 12.5%가 실향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Shultz et al. 2014). 이는 콜롬비아 경제의 지속적인 파행을 의미한 것이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투자진흥정책 측면에서 볼 때 1991년 외국인투자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들의 대콜롬비아 진출이 이를 전후해 조금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투자실적은 그리 가시적이지 않았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 콜롬비아 투자는 2009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 2012년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무엇보다 콜롬비아의 정치사회 안정이 큰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콜롬비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유리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2012년 당시 보고타 지역에 주재하는 한국상사는 28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한국의 대콜롬비아 총무역이 정점을 찍은 2014년 30여개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약 20개로 축소되었다 (<표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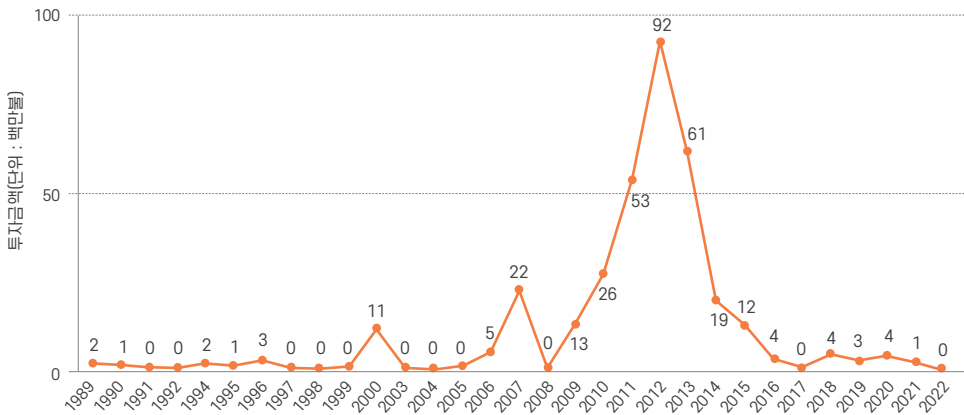
콜롬비아 정부가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본격 개시한 2009년은 영국의 경제전문분석 기관인 EIU가 콜롬비아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CIVETS라고 부르며 역동적인 경제로 평가한 때이기도 했다 (The Economist 2009). 이런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간의 FTA 협상이 2009년 개시되었고, 2010년에는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콜롬비아는 페루, 칠레, 멕시코와 함께 2011년 4월 개방성향의 지역통합체인 태평양동맹을 발족시킨 직후이기도 하여 많은 업계의 관심이 잠재력이 큰 콜롬비아로 쏠린 때였다. 이러한 투자쇄도는 2016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해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서 계속되었다.

한국의 대콜롬비아 투자업종은 정보통신, 제조업, 도소매무역, 운송창고, 건설부문 등이며, 최근에는 비디오게임 업체 넷마블, 스마트카드 업체 트라콤, 아구아카테 농장에



투자한 란스 등 업종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콜롬비아의 거시경제상황이 정체됨으로써 추진력을 상실하였다. 특히 콜롬비아 당국은 2018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의 니어쇼링(near-shoring) 정책에 따라 한국기업을 포함한 98개의 외국기업들이 콜롬비아에 대한 투자의향을 밝혔다고 발표했으나 (CCB 2021), 콜롬비아가 미국시장을 겨냥한 플랫폼으로서 역할하기에는 운송, 물류, 세관체계 등에서 유리한 입지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콜롬비아는 차별적인 인센티브로서 내전발생지역(ZOMAC)에 대한 투자의 경우 특별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지역의 고용창출과 순조로운 평화이행을 기하고 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림 11 한국의 대콜롬비아 직접투자 연도별 추이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22).

표 4 한국의 대콜롬비아 연도별 투자금액 및 신규법인수

연도	투자금액 (단위 : 백만불)	신규법인수
2022	0	0
2021	1	1
2020	4	2
2019	3	3
2018	4	2
2017	0	1
2016	4	0
2015	12	2



2014	19	4
2013	61	2
2012	92	12
2011	53	7
2010	26	2
2009	13	4
2008	0	2
2007	22	1
2006	5	0
2005	0	2
2004	0	2
2003	0	1
2000	11	1
1999	0	1
1998	0	0
1997	0	1
1996	3	2
1995	1	1
1994	2	2
1992	0	0
1991	0	0
1990	1	1
1989	2	1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22).

한편, 콜롬비아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는 Cafe Nogales 및 Amativo Korea 등 커피 중계업, 유기농 야자유 등을 판매하는 Daabon Organic 등에 국한되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며,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의 주된 이유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및 고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Urrego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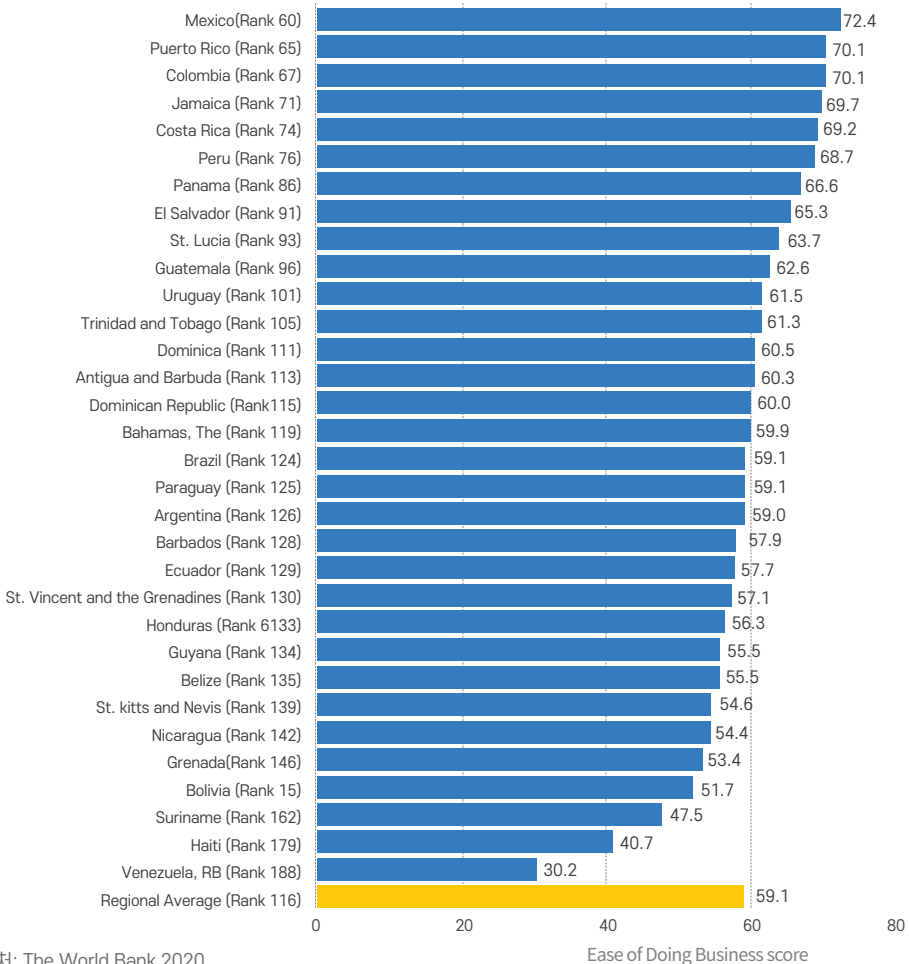
이 책이 발간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한국기업들의 대 콜롬비아 투자에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더 다양해졌다. 즉, 2022년 6월 콜롬비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M-19 출신의 Gustavo Petro 전 보고타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외국인투자 환경은 당분간 불확실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 축소, 토지 민주화, 미국과의 FTA재협상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 건 만큼 기존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불확실 변수가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제조업 활성화 등은 한국의 유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

콜롬비아는 21세기 들어 개방정책이 결실을 거두면서 마침내 2020년 4월 OECD의 3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콜롬비아의 외국인투자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음을 의미했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활동 용이도 면에서도 콜롬비아는 공식적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역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World Bank 2020). 따라서 신정부하에서 기존 경제질서가 크게 변화하기는 쉽지

그림 12 중남미지역 기업활동 용이도 순위



출처: The World Bank 2020.

Ease of Doing Business score





않을 것이며, 오히려 주력 업종의 조정이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 결론

한국과 콜롬비아 관계는 혈맹이라고 불리울 만큼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정작 통상관계는 표면적으로만 화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양국 국민 간에 통하는 서로에 대한 우의와 동경과는 달리, 시장 조건과 잠재력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매우 약한 편이다. 따라서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무역거래나 투자도 이어지지 않는 편이다. 더군다나 콜롬비아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만큼, 한국과 콜롬비아간 무역의 패턴은 전통적인 남북무역 형태인 산업간 무역(inter-industrial) 패턴을 띠고 있다. 즉,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품은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콜롬비아의 수출품은 부가가치가 낮다. 비록 콜롬비아의 대한국 무역수지가 2011년을 기점으로 개선되었고 2020년에는 한국이 무역적자를 겪기도 했지만 이는 환율변동, 구매력 등락에 따른 것이어서 결코 건전한 무역구조라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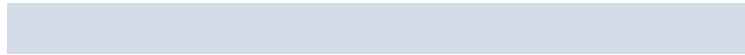
또한 현재와 같이 양국간 교역규모가 미미한 수준에서는 어느 쪽에 무역흑자가 발생하느냐는 그리 중요치 않으며, 양적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얽은 통상관계는 투자보장협정이나 FTA라는 제도의 틀로서 강화되기 보다는 상호를 연결하는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물류, 운송인프라 및 정보통신망, 항공망이 개선되거나, 개선사업에 양국이 공동 참여할 기회가 넓어져야하며, 이를 통해 관광, 음식문화 교류 등이 활성화되면서 상호 및 상호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무역 및 투자관계의 잠재력은 현실화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원호 (2014). “한·콜롬비아 경제협력 50년의 의미,” 「혈명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한-콜롬비아 수교 50주년 기념」, pp. 111-147.
- 한국무역협회 (2022). 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 한국수출입은행 (2022).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countryStatistics.do#>
- CCC (Camara de Comercio de Bogota). “Hoja de Ruta Colombia-Corea del Sur: Hacia un mejor aprovechamiento del Tratado de Libre Comercio,” April.
- Luzardo-Luna, Ivan (2019). Colombia’s Slow Economic Growth: From the Nineteenth to the Twenty-First Century. Cham, Switzerland: Palgrave.
- Ocampo, Jose Antonio y L. Villar (1992). “Trayectoria y Vicisitudes de la Apertura Económica Colombiana”, Pensamiento Iberoamericano, No. 21, pp 165-186.
- Ocampo, Jose Antonio (2015). “Performance and Challenges of the Colombian Economy,” in Bruce M. Bagley and Jonathan D. Rosen, eds., Colombia’s Political Economy at the Outset of the Twenty-First Century: From Uribe to Santos and Beyond (Lanham: Lexington Books), pp. 3-32.
- Shultz, James M. et al. (2014). “Internal displacement in Colombia”, Disaster Health (Jan-Mar) 2(1): 13-24.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314912/>
- Statista.com (2022).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based on Gini coefficient in Latin America as of 2018, by country,”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80285/income->





[distribution-gini-coefficient-latin-america-caribbean-country/](#)

The Economist (2009). “BRICS and BICIS,” Nov. 26. <https://www.economist.com/the-world-in-2010/2009/11/26/brics-and-bicis>

The World Bank (2020). “Doing Business: Latin America & Caribbean” <https://portugues.doingbusiness.org/content/dam/doingBusiness/media/Profiles/Regional/DB2020/LAC.pdf>

The World Bank (2022).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TRD.GNFS.ZS?locations=KR-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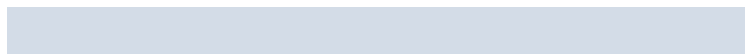
Trading Economics (2022). “Argentina,” <https://tradingeconomics.com/argentina/>

Trading Economics (2022). “Colombia,” <https://tradingeconomics.com/colombia/>

Tristan, Osvaldo Morales, Adriana Roldan Perez, Julie Kim (2014). Casos exitosos de empresas latinoamericanas en Asia. Buenos Aires: Cengage Learning.

Urrego-Sandoval, Carolina (2021). “Colombia-Republic of Korea Relations,” Exploring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Pacific Alliance and South Korea (Bogota: Universidad de los Andes), pp. 29-37.

Vargas, Hernando, Andrés González and Ignacio Lozano (2012). “Macroeconomic effects of structural fiscal policy changes in Colombia,” BIS Papers No. 67.





**무역, 투자**  
**그리고 산업 장**





니콜라스 우리베 루에다

Nicolás Uribe Rueda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회장

## 서론

### 콜

콜롬비아는 한국전쟁에 파병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로서 이후 60여년 간 한국과 콜롬비아의 정치적 관계는 상승가도를 달려왔으나 경제 측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절정기에 돌입하였으며, 양자 무역 및 투자에서의 유의미한 주요 결실은 2010년대 이후에 맺을 수 있었다.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조건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인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약(2010 체결)’이 그 신호탄이었다. 동 협약은 여타 다른 성과들 중에서도 한국의 대 콜롬비아 투자 최고치를 경신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2012년에는 4,370만 달러, 2015년에는 4,290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통상산업관광부, 2022).

그러나 이는 2013년 2월 21일 한국에서 이루어진 양자 간 무역협정 협상의 틀에서 끼워진 첫 단추에 지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아시아 국가와 유일하게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한-콜 FTA는 2016년 7월 15일 발효 이후 콜롬비아의 양자 무역 수지 적자를 연 평균 17.3% 감소시켰다.

상기 협정 덕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무역 협정을 보다 더 잘 활용하여 콜롬비아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과 그에 따른 콜롬비아 무역 진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룰 기회는 아직도 산재해 있다. 그러나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지식과 기



술, 혁신을 기반으로 노동집약적인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해내는 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모범적인 국가 중 하나로서, 한국의 산업 발전을 콜롬비아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콜롬비아와 한국이 경제 부문에서 현재까지 일구어 온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업 부문 협력 및 교류와 같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콜롬비아-한국간 통상 및 투자 수지

한-콜롬비아 FTA 체결로 양국 간 통상 규모가 증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FTA 발효 1년 전인 2015년에 8억 5천 6백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콜롬비아의 무역 수지 적자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현재 발효 중인 콜롬비아의 무역 협정에 대한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콜 FTA 발효 이후 콜롬비아의 연간 무역 수지 적자는 17.3%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평균 16.9%로 지속적으로 증가, 수입은 연 평균 3.7%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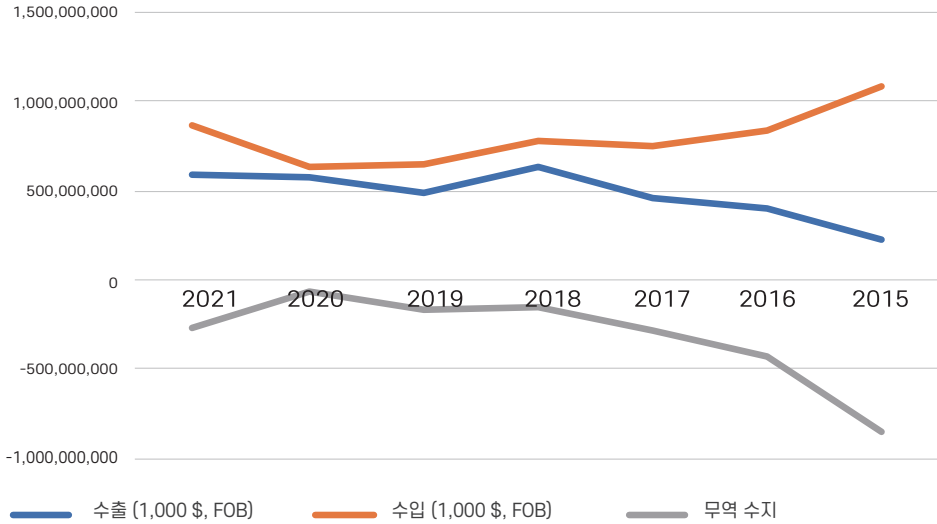
이와 같이 콜롬비아 통계청(DANE)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수출액은 2억 2,930만 달러(2015)에서 4억 2,100만 달러(2016)로, 한-콜 FTA 발효 1년 만에 75% 상승했다. 동 기간 수입액은 10억 8,500만 달러(2015년)에서 8억 3,350만 달러(2016년)로 23% 감소한 바, 이는 무역 협정이 콜롬비아의 통상 부문에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6~2018년 콜롬비아의 대 한국 수출은 4억 2,100만 달러에서 6억 2,740만 달러로 상승하며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동성을 띠었다. 그러나 2019년 비광물 에너지 상품의 판매 감소로 수출이 23% 위축되며, 수출 규모는 4억 8,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기 상황에 더해 COVID-19 팬데믹이 촉발한 통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 수출액은 5억 7,1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보다 최근인 2021년에는 수출 역동성이 유지되어 5억 8,570만 달러를 기록한 바,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2020년 대비 2% 성장하였으며 COVID-19 이전인 2019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에 달성하였던 수출



액 6억 2,740만 달러를 넘어서고자 하는 과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림1. 2015-2021 콜롬비아-한국 통상 흐름



출처: 통계청, 직접 작성

표1. 2015-2021 콜롬비아-한국 통상 흐름

연도	수출 (1,000 \$, FOB)	수입 (1,000\$, FOB)	무역 수지
2021	585,784,488	859,733,470	-273,948,982
2020	571,987,934	633,326,172	-61,338,238
2019	482,030,321	645,084,577	-163,054,256
2018	627,432,168	776,357,081	-148,924,913
2017	457,038,757	746,219,301	-289,180,544
2016	402,061,675	833,536,236	-431,474,562
2015	229,363,358	1,085,321,697	-855,958,339

출처: 통계청, 직접 작성

이러한 추세로 2021년 한국은 콜롬비아의 수출 포트폴리오의 1.4%를 차지하는 17대 수출 대상국이 되었으며, 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12대 수입 대상국(수입 비중 1.6%)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시아로 시장을 한정하면 한국은 중국과 인도의 뒤를 이은 콜롬비아의 3대 수출 대상국이며,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인도, 일본의 뒤를 이은 4대 수입 대상국이다.

표 2: 2021년 주요 수출 품목

품목	비중
열연탄 (석탄)	34%
커피	24%
구리 폐기물	12%
원유	11%
페로니켈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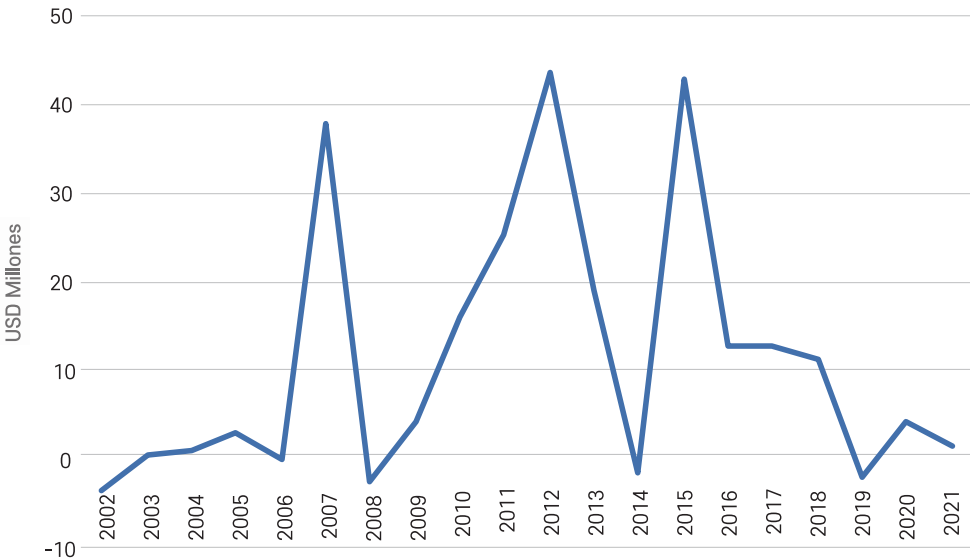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및 정보통신기술부, 자체 작성

표 3: 2021년 주요 수입 품목

품목	비중
승용차	14%
진단시약	5%
미가공 에틸렌 폴리머	5%
화학제품(알킬벤젠 혼합물 및 알킬나프탈렌 혼합물)	4%
순환성 탄화수소	4%

투자 관련, 2002-2021년 한국의 대 콜롬비아 투자 총액은 2억 2,45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표2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대규모의 투자는 각각 2012년(4,370만 달러)과 2015년(4,290만 달러)에 이뤄졌다. 한편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410만 달러를 기록했던 투자액이 2021년 12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림 2. 2002-2021 대 콜롬비아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출처: 중앙은행, 자체 작성

2002년 이래로 한국은 아시아 중 콜롬비아에 세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한 국가로, 한국의 투자액은 동 지역 투자액의 14%를 차지하였다. 1위 투자국은 일본으로 총 비중





39%, 총 투자액 6억 2,34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이 총 비중 24%, 총 투자액 3억 7,53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 콜롬비아-한국 통상교류 증진을 위한 기회와 과제

콜롬비아 상공회의소는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시사하는 막대한 기회를 주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가 콜롬비아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콜롬비아 외교부와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Juan Carlos Caiza) 대사가 이끄는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은 2021년, 양국 간 무역협정의 더욱 적절한 활용을 위한 주요한 기회와 과제를 담은 ‘콜롬비아-한국 로드맵 2030’을 발간하였다.

상기 로드맵을 통해 ①문화와 정보, ②상품 무역, ③서비스 무역, ④투자, ⑤협력 부문에 주요 과제와 기회가 포진하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① 문화와 정보

현재까지도 기업인들 간의 교류가 영어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유발하는 만큼,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첫 번째로는 문화와 언어 장벽의 극복이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가 노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콜롬비아에 한국 문화를 포함한 지식과 언어를 보급하기 위해 교육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학술 기관의 만남의 장으로 기능할 콜롬비아 연구 협회의 설립을 촉진하여 스페인어와 콜롬비아 문화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이 부문의 주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언어적 장벽 이외에도 지리적 거리로 인해 양국 기업인들 간 시장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 소비자는 까다롭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고부가가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요구하는 만큼 한국 시장에 제품의 수준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의 신뢰 관계 구축이 당면 과제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과의 비즈니스 착수에 소요될 시간에 대한 콜롬비아 기업인들의 기대가 한국이 가진 장기 전망과 불일치함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문화 및 정보 부문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언어와 비즈니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국가 기관, 민간 단체 및 학술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문 간 융합의 장을 열고 콜롬비아와 한국 간 성공적인 무역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향후 주력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 ② 상품 무역

콜롬비아의 대(對) 한국 상품 수출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의 부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차 상품 일변도인 콜롬비아의 수출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국가 정책의 병행과, 고도의 기술 콘텐츠를 접목하는 한국 산업계와의 지식 교류의 장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상기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술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콜롬비아의 수출 상품 포트폴리오가 일차 상품에 경도되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글로벌 가치사슬, 특히 한국의 산업 및 농산품과의 낮은 통합이다. 그런 만큼 한국이 시사하는 기회를 향유하기 위한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이들 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력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전략은 미래를 내다볼 때 큰 함의를 갖는다.

더군다나 양국 기업인들 간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양국 무역 사절단 교류, 무역 박람회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 등의 개최로 무역 협정의 이점을 전파하는 장을 마련하면 양방향 비즈니스 진흥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관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민간 기업의 참여는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원 배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기업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에 참여하도록 하고, 무역 진흥 단체와 함께 세금 감면, 부문별 혜택 등, FTA가 제공하는 여타 이점들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사항 외에도 또 다른 주요 과제는 무역 촉진, 보건 수용성, 운송, 물류 및 세관 부문의 도전 과제, 그리고 식품의약품감시청(INVIMA)과 농수산연구소(ICA) 등의 기관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품질 및 추적성 표준 준수에 관한 정부 차원



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모든 기제는 주한콜롬비아상공회의소가 파악한 농산물, 커피, 파인애플, 바나나, 설탕, 비정제설탕, 가공 과일, 가죽 제품 및 패션과 같은 부문과 상품의 수출 기회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 ③ 서비스 무역

한편 서비스 무역에서의 기회도 관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콜롬비아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90년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심축을 문화 산업으로 옮기고 큰 변화를 모색하였던 한국의 전략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이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전략 설계에 있어 정부, 민간,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은 서비스 부문의 도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이다.

한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콜롬비아가 2030 로드맵을 통하여 서비스 부문에서 도약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5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학문적 차원과 기업 니즈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인적 자원 형성(언어 포함) 측면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바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지적재산권 규범이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끔 쇄신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요소는 집중적인 무역 진흥으로, 이는 민간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역사절단, 세미나 및 기타 활동 등이 수반되는 상품 무역에서와 유사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네 번째는 혁신 및 기술 정책의 개발로, 이 정책들은 대개 다양한 서비스 하위 부문 고유의 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FTA 서비스 챕터의 실질적 활용인데, 아직까지 서비스 부문에서 FTA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동 무역 협정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 요소를 통해 지적재산권 구성도가 높은 창조적 산업의 하위 부문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기회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위 부문 중 더 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된 부문은 비디오 게임, 영화 산업, 관광 및 업무프로세스아웃소싱(BPO), 지식프로세스아웃소싱(KPO), IT 아웃소싱(ITO)이다.

### ④ 투자

물론 투자 측면에서도 서류 수속과 승인 효율화, 신속성 및 더 큰 법적 안정성을 확



보하고, 기관 간 소통을 개선하면서 투자자들이 직면한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유인책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 마련은 항상 추구되는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콜롬비아의 투자 사업 제안을 파악하고 이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맞춤형 사업을 마련함으로써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요소들은 농산업, 의류, 자연 관광, 코스메틱 산업, 제철, 정보통신기술(ICT), 재생 및 녹색 에너지, 5G 기술, 테크노파크 및 비디오 게임 등 한국의 관심 분야에 더 큰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 것이다.

## ⑤ 협력

한-콜 FTA는 동 협정의 실행과 활용을 위한 협력을 명시하며, ①생산적 시너지 촉진과 새로운 통상 및 투자 기회 창출, 혁신과 경쟁력 강화, ②중소기업 발전, ③동 협정의 이행과 더 나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④동 협정의 ‘기타’ 장에서 명시된 협력의 필요성 충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강조한다.

추가적으로 한-콜FTA는 ‘한-콜롬비아 산업협력 공동위원회’를 산하에 두어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화장품, 섬유 등 분야별 무역, 투자 및 기술 협력의 강화와 발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동 산업협력 공동위원회의 설치와 같이 한국의 산업 발전에 대한 지식 전수를 위한 주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내용과는 별도로, 한국의 협력 자원으로 부터 향유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기획과 조직은 콜롬비아가 당면한 또 하나의 과제이다. 녹색성장, 혁신 및 기업가 정신, 4차 산업혁명, 군사 협력, 보건 협력, 인재 양성 및 스페인어 교육과 콜롬비아학 연구는 로드맵 2030에서 파악된 우선 순위 협력 분야 중 일부이다.

## 결론

한국과 콜롬비아의 통상 관계는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분명하게 그려



왔으며, 현재 중차대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궈온 성과보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에 더욱 집중하려면 FTA의 적절한 이행과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조업 역시 큰 기회를 내포하고 있으나, 상품 무역의 경우 FTA 활용의 가장 큰 잠재력은 농수산업에 있다. 서비스 무역 부문에서는 분명 창조적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크며, 한국과 같은 전략적 동반자의 중요성은 모범 사례, 노하우 및 기술 이전에 있어서 지대하다. 그러나 동시에 콜롬비아 또한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 유치에 커다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콜롬비아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위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인들이 미국을 위시한 역내 시장 전역에 제품을 효율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교두보로서의 비교 우위를 갖기 때문이다.

더욱이 협력 부문에도 풍부한 기회가 포진하고 있는 바, 한국의 협력 지원은 분명 콜롬비아 기업가 정신, 혁신과 녹색성장, 제4차 산업혁명의 분야에서 갖는 함의가 크다. 이와 동시에 양국 모두를 위한 전략적 분야에서 사업 이행을 위하여 FTA에 명시된 다양한 제도적 기제를 설치 및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콜롬비아가 한국의 산업 발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리적·인구적 한계와 천연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 지난 60년 간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낸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경을 딛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하였다. 또한 서비스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동 업계는 현재 한국 GDP의 57% 이상을 창출하며, 이에 경제활동인구 70%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세계은행, 2022).

그러므로 양국 간 협력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연유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결과, 2021년 8월 한-콜롬비아 산업협력 공동위원회가 탄생했다. 동 MOU는 통상 교류 증대 등 협력과 투자 사업을 논의하고, 동시에 세계 10대 경제 국가인 한국으로부터 산업 발전의 모범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탁월한 양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이러한 기제를 활용하고 강화하기 위한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 참고문헌

- 세계은행 (2022). 한국 자료. 문헌 링크: <https://datos.bancomundial.org/country/KR>
- 대한민국 (2022). 대(對) 콜롬비아 외국인투자 - 원산지 (1994년 이후). 문헌 링크: <https://www.banrep.gov.co/es/estadisticas/inversion-directa>
-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및 외교부 (2021). 콜롬비아-한국 로드맵: FTA의 더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 통계청 (2022). 국가별 수출 실적. 문헌 링크: <https://www.dane.gov.co/index.php/estadisticas-por-tema/comercio-internacional/exportaciones>
- 통계청 (2022). 국가별 수출 실적. 문헌 링크: <https://www.dane.gov.co/index.php/estadisticas-por-tema/comercio-internacional/importaciones>
- 통상산업관광부 (2022). 콜롬비아 현행 통상 협정 보고서. 문헌 링크: <https://www.tlc.gov.co/temas-de-interes/informe-sobre-el-desarrollo-avance-y-consolidacion/documentos/ley-1868-informe-2022.aspx>



## 제3부

# 한-콜롬비아 FTA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와 과제

권기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재호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한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6년 간

마누엘 라이란 (Manuel Rayran)  
콜롬비아 엑스테르나도 대학 교수

A stylized white outline map of South Korea and Colombia is set against a dark blue background. The map shows the Korean peninsula on the left and the Colombian archipelago on the right. A central text box is overlaid on the map. The text box consists of two stacked grey rectangles. The top rectangle contains the text '한.콜롬비아' and is preceded by a horizontal bar with a red segment on the left and a blue segment on the right. The bottom rectangle contains the text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와 과제' and is followed by a horizontal bar with a yellow segment on the left, a blue segment in the middle, and a red segment on the right. A white L-shaped line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partially enclosing the text box.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와 과제**





권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재호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2 016년 7월 15일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다. 양자 간 FTA는 한국으로서는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세 번째 FTA였으며 콜롬비아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 FTA였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입장에서 한·콜롬비아 FTA 체결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콜롬비아와의 FTA는 아시아 국가 최초의 FTA로 중남미의 대표적인 시장을 선점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컸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안정성, 시장성 및 미래 잠재성의 3박자를 갖춘 우량주로 평가되었다. 약 5,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콜롬비아는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3대 소비시장이다. 특히, 콜롬비아는 아세안의 경제 규모에 버금가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경제통합체의 중추국이기도 했다. 이 같은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아 콜롬비아는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주자인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의 선두국가로 평가되었다.

둘째, 콜롬비아와의 FTA는 콜롬비아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높았다. 중남미 4대 산유국인 콜롬비아는 석유자원 이외에 석탄, 철광석, 구리, 페로니켈, 에메랄드, 금, 은, 플라티늄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광물개발 잠재력 높은



10대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특히 케릴라와의 평화협상 타결로 그간 크게 부진했던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의 자원개발 잠재력이 더욱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셋째, 콜롬비아와의 FTA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도 의의가 컸다. 콜롬비아는 지리적으로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접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50개국과 FTA를 체결해 중남미 FTA의 허브로서도 전략적 가치가 높았다. 특히 콜롬비아는 투자자 보호,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비즈니스 환경도 양호했다.

한편 콜롬비아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FTA는 아시아 국가 중 첫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콜롬비아는 아시아 역동적 시장인 한국 시장 진출을 토대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로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이었다. 또한, 콜롬비아는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낙후된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코자 하였다.

## 한·콜롬비아 FTA 협상 과정과 주요 내용

한국과 콜롬비아 간 FTA 논의는 2008년 7월 콜롬비아 측의 요청으로 시발 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양자간 FTA 협상은 2009년 FTA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 첫 협상이 시작되어 2012년 6월 최종 타결되었다.

표 1 한·콜롬비아 FTA 협상 주요 경과

일자	주요 협상 내용
2008.7.14	양국 외교장관 회담 시 콜롬비아 측이 FTA 체결 검토 요청
2008.11.22	양국 정상회담 시 양국 간 FTA 체결 필요성 공감
2009.3~2009.8	한-콜롬비아 FTA 공동연구
2009.12~2012.6	총 7차례 공식 협상 및 7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2012.6.25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및 발표



일자	주요 협상 내용
2012.8.31	양국 FTA 수석대표 단 협정문 가서명
2013.2.21	양국 통상장관 간 협정문 정식 서명
2014.4.29	한국 국회 비준
2014.12.16	콜롬비아 상하원 비준
2015.4.17	양국 정상회담 시 지체되고 있는 FTA 조속 발효 협력
2015.9.2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합헌 여부 판결위원회 찬반 동수(4:4)로 판결 불가 판정(9명의 재판관 중 1명 불참)
2016.4.14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2차 합헌 여부 판결위원회 통과
2016.7.15	한-콜롬비아 FTA 발효

자료: KOTRA(2021), “한·콜롬비아 FTA 발효 5주년 성과분석 및 수출 유망품목”, KOTRA, p. 1.

한·콜롬비아 FTA는 협력의 폭이나 시장개방 면에서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으로 FTA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었다.

표 2 한·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상품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 발효 10년 내 사실상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측 96.1%, 콜롬비아측 96.7%(품목수 기준)</li> </ul> </li> <li>- 주요 공산품 관세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차(관세율 35%): 10년내 관세 철폐, 자동차 부품: 즉시~5년내 철폐, 타이어: 5년내 철폐, 섬유류: 즉시~7년내 철폐</li> </ul> </li> <li>- 주요 농산물 관세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분유, 고추 등 153개 품목 양허 제외, 기타 284개 민감농수산물은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li> <li>· 커피류(관세율 2~8%): 즉시~3년내 철폐, 절화(cut flower, 25%): 3~7년내 철폐, 바나나(30%): 5년내 철폐</li> </ul> </li> </ul>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간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규정 도입</li> <li>-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li> </ul>

무역구제	-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쇠고기 및 만다린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제로잉(zeroing) 금지 원칙 적용 노력 합의
위생 및 검역(SPS)	- WTO SPS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 준수 - SPS 위원회 설치
무역기술장벽(TBT)	- 표준 및 기술규정 제·개정 투명성 강화 - TBT 위원회 설치
서비스·투자	-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수용시 보상 의무, 송금 보장 -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포함 - 상용방문자, 무역종사자 및 투자자, 기업내전근자, 계약서비스공급자 등에 대한 일시입국 허용
지적재산권	-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규정 -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위성 신호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 법적 구제 제공
정부조달	-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정부조달시장 상호 개방
협력	- 농업, 수산업, 임업, 해운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산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기로 합의

자료: FTA 포털 홈페이지

먼저 FTA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시장개방, 즉 관세철폐를 살펴보면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 수 기준 우리 96.1%, 콜롬비아 측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표 3 한·콜롬비아 FTA 전체 품목 양허 수준

양허 단계	한국측		콜롬비아측	
	품목 수	비중	품목 수	비중
즉시 철폐	9,787	82.38	4,390	60.64
5년 소계	10,725	90.27	5,969	82.46
10년 소계	11,419	96.11	7,003	96.73
10년 초과	304	2.56	184	2.54
TRQ	5	0.04	6	0.08



양허 제외	153	1.29	47	0.65
계	11,881	100%	7,240	100%

자료: FTA 포털 홈페이지

둘째, 서비스 교역 및 투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진출 환경이 개선되었다. 통신 및 전자상거래분야 교역에 관한 규정 및 협력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를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 확대, 투자 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경영진 국적 요건 제한 금지 등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다음으로 주목할 내용은 정부조달시장 개방이었다. 콜롬비아는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그간 한국 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발주하는 정부조달사업 참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FTA를 통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공기업까지 정부조달시장을 상호개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콜롬비아 조달시장 진출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마지막으로 한·페루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콜롬비아와의 FTA에서도 협정문에 협력 챕터를 별도로 두었다. FTA를 양국 간 포괄적 협력 채널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었다. 양국은 농업, 수산업, 임업, 해운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산업, 관광, 문화 등을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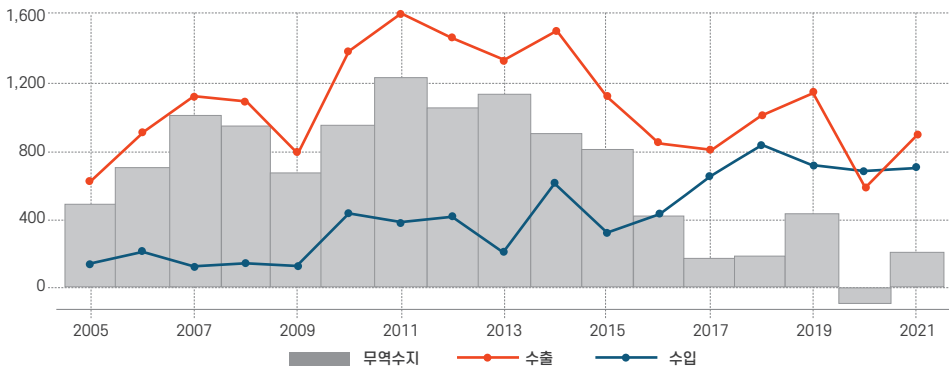
## 한·콜롬비아 FTA 성과

본 장에서는 FTA 발효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직접투자 면에서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양국의 FTA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1 한국의 대콜롬비아 상품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활용하여 저자 작성

첫째, 상품 무역 관점에서 볼 때 한·콜롬비아 FTA는 전반적으로 양국 모두에 이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그림-1]에서 보듯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은 2014년 15억 900만 달러를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였으나, FTA 발효에 힘입어 2016년 이후로는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발 봉쇄조치로 인한 소비 활동 위축으로 수출이 급감하였으나, 2021년엔 다시 반등에 성공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입 또한 FTA 발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2015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던 수입은 석탄 및 커피 등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 비록 2019년 이후 약간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입은 FTA 효과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오랜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무역수지 불균형 현상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기준으로 한국의 대콜롬비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5~2015년 기간 약 9억 달러에서 2016~2021년 기간 2억 1,500만 달러로 76.1%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FTA 체결은 수출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 따른 효과를 [표-4]와 같이 품목별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



과 먼저,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은 무선전화기(4억 6,600만 달러), 자동차부품(9,900만 달러), 자동차(8,5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5억 1,300만 달러), 커피(9,200만 달러),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5,800만 달러)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양국의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15년과 비교할 때 수출 기준으로는 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포함된 무선전화기가, 수입 기준으로는 석탄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석탄의 수입 비중은 2015년 1.1%에서 2019년 71.4%로 급증하였다.

표 4 한국의 대콜롬비아 상위 5개 수출 및 수입 품목(HS CODE 4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순위	2015년			2019년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수출	1	자동차	330	29.2	무선전화기	466	40.8
	2	자동차부품	117	10.4	자동차부품	99	8.7
	3	고무타이어	48	4.3	자동차	85	7.5
	4	냉간평판압연제품	36	3.2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	30	2.6
	5	폴리아세탈수지	35	3.1	폴리아세탈수지	23	2.0
수입	1	석유, 역청유(원유)	94	29.0	석탄	513	71.4
	2	커피	85	26.4	커피	92	12.8
	3	합금철	47	14.5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58	8.0
	4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44	13.6	절화와 꽃봉오리	11	1.5
	5	살충제 · 살서제	14	4.2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1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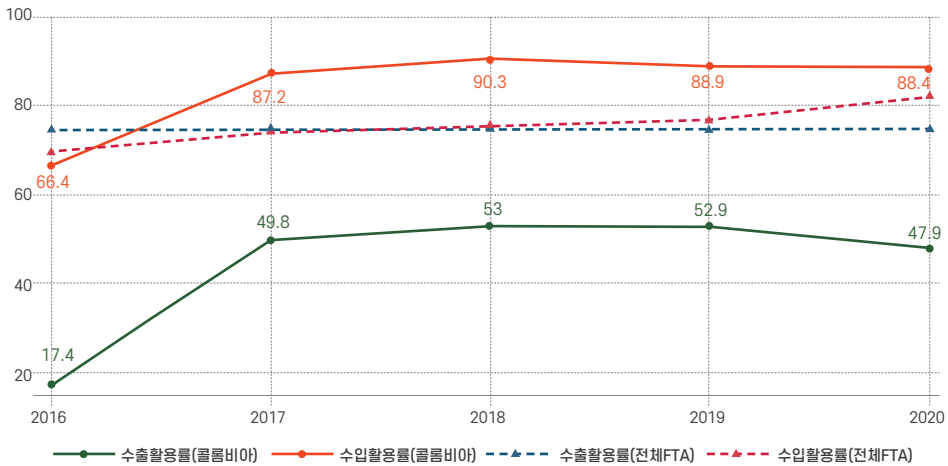
주1: 양국의 FTA 발효 이전(2015년)과 이후(2019년)를 비교한 자료로,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주2: 비중은 한국의 대콜롬비아 전체 수출 및 수입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몫을 의미

자료: KOTRA(2021), “한-콜롬비아 FTA 발효 5주년 성과분석 및 수출 유망품목”, KOTRA, pp. 4-6.

그림 2 한국의 對콜롬비아 FTA 활용률 추이

(단위: %)



자료: FTA포털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이와 같은 상품 무역 추이는 한국의 대콜롬비아 FTA 활용률과도 일정 부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FTA 활용률이란 FTA 특혜대상품목 가운데 FTA 원산지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값이 클수록 수출 및 수입 과정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2]는 한국과 콜롬비아 및 한국이 FTA를 체결한 전체 국가와의 FTA 활용률을 수출 및 수입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여주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FTA가 발효된 2016년 한국의 대콜롬비아 FTA 수출 및 수입활용률은 각각 17.4%, 66.4%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82.4%) 대비 낮은 콜롬비아(60.6%)의 관세 즉시 철폐 품목 비중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16년 대비 2017~2018년 한국의 FTA 수출 및 수입활용률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품 무역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체결한 전 세계 국가와의 FTA 활용률 대비 대콜롬비아 수출 활용률은 낮은 데 반해 수입활용률은 높았다. 이는 5년 소계 기준으로 한국(90.3%) 대비 낮은 콜롬비아(82.5%)의 관세철폐 품목 비중 과 관세양허 일정에 대한 한국 수출기업의 정보 부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5 한국의 대콜롬비아 산업별 수출 및 수입활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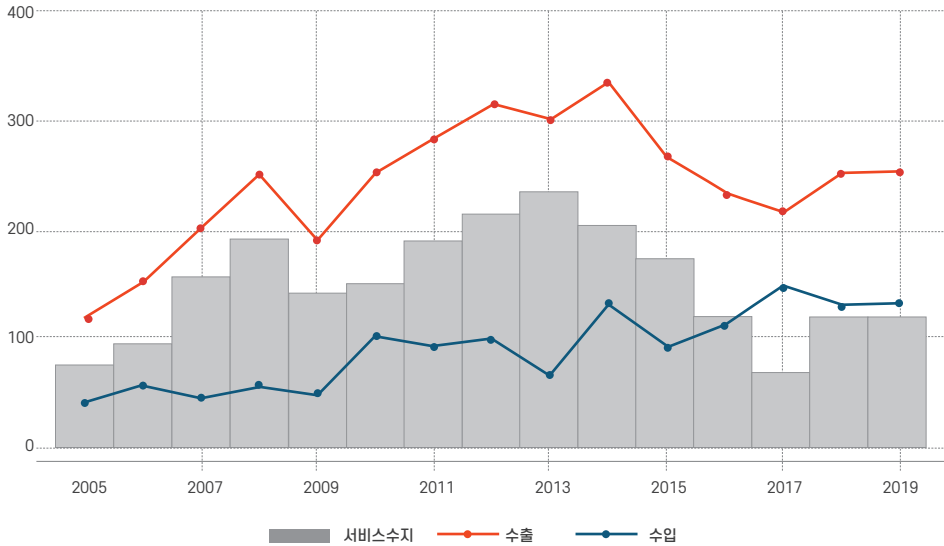
산업	수출활용률					수입활용률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농림수산물	1.6	5.6	5.5	0.2	6.5	77.5	92.5	91.6	93.5	95.4
광산물	2.5	0.0	4.6	1.3	0.0	0.0	0.0	100.0	99.8	76.5
화학공업제품	20.7	9.6	14.0	15.6	26.0	1.1	1.9	1.0	4.8	88.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2	61.8	74.9	57.8	54.3	77.7	91.1	96.0	74.1	59.6
섬유류	38.2	24.7	41.5	39.4	36.3	5.8	5.6	8.0	23.0	5.7
생활용품	13.2	5.1	6.1	16.7	24.2	82.5	87.5	88.4	82.8	75.5
철강금속제품	27.1	3.0	1.9	0.9	1.7	62.1	97.3	99.6	5.0	0.0
기계류	13.3	63.0	67.2	69.9	70.1	0.0	9.5	0.0	1.9	38.6
전자전기제품	25.6	44.7	54.4	56.5	51.5	0.0	12.6	72.1	68.3	69.9
잡제품	0.0	72.7	0.0	0.0	0.1	0.0	0.0	0.0	0.0	0.0

[표-2]와 같이 FTA 활용률을 산업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020년 수출 기준으로 한국은 기계류(70.1%),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54.3%), 전자전기제품(51.5%) 등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광산물(0.0%), 잡제품(0.1%), 철강금속제품(1.7%) 등에서는 FTA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2020년 수입 기준으로 한국은 농림수산물(95.4%), 화학공업제품(88.4%), 광산물(76.5%) 등에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철강금속제품(0.0%), 잡제품(0.0%), 섬유류(5.7%) 등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한국의 대콜롬비아 서비스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Stat - Balance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활용하여 저자 작성

둘째, 서비스 무역 또한 상품 무역과 마찬가지로 한·콜롬비아 FTA 효과가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그림-3]과 같이 한국의 대콜롬비아 서비스 수출은 2014년 3억 3,500만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 추세를 이어왔으나, FTA 발효에 힘입어 2017년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하였다.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입 또한 2017년 1억 4,7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이후 약간 주춤하였으나 FTA 발효 이전과 비교 시 전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상품 무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무역에서 또한 양국의 수지 불균형 현상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평균 기준으로 한국의 대콜롬비아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는 2005~2015년 기간 1억 6,600만 달러에서 2016~2019년 기간 1억 800만 달러로 35.1% 감소하였다. 즉, 양국의 FTA는 서비스 수출입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지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산업별 한국의 대콜롬비아 서비스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기간	여행	건설	운송	상업 서비스	기타 상업 서비스	기타 서비스
수출	'05-'10(연평균)	10	96.7	75.4	191.5	106	121
	'11-'15(연평균)	20.2	163.5	92.9	297.2	183.7	210.2
	'16	19.9	106.8	72.6	230.9	137.9	174.9
	'17	18.4	87.3	70.6	213.8	124.2	168.5
	'18	21	115.8	72.6	247.2	152.7	198
	'19	23.8	112.4	72.1	250	153.1	201.6
수입	'05-'10(연평균)	10.8	3.8	38.7	58.4	8.9	14.9
	'11-'15(연평균)	18	9.2	58.5	96.4	19.8	32.1
	'16	6.7	0.1	27.7	110.8	18.8	34.1
	'17	9.6	0.1	39.1	144.7	25.4	45.5
	'18	9.6	0.1	32.9	128.6	22.9	39.6
	'19	10.5	0.1	32.9	132.1	26.5	46.3

주: 'Reported value'가 아닌 'Reported value including estimates' 기준

자료: OECD.Stat - Balance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6]과 같이 산업별로 한국의 대콜롬비아 서비스 무역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먼저,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상업 서비스(2억 5,000만 달러), 기타 서비스(2억 200만 달러), 기타 상업 서비스(1억 5,300만 달러) 순으로 많은 서비스 수출을 기록하였다. 한편, 서비스 수입의 경우 상업 서비스(1억 3,200만 달러), 기타 서비스(4,600만 달러), 운송(3,300만 달러) 순으로 수입 규모가 컸다.

셋째, 한-콜롬비아 간 상호 직접투자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자 간 FTA가 직접투자 확대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먼저, 콜롬비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도착 기준으로 2016년 이후 단 1건(2021년)에 불과했다. 한국의 대콜롬비아 직접투자 또한 FTA 발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콜롬비아 직접투자 규모는 FTA 발효 이전 6개년(2010~2015년) 기간 약 5억 달러에서 발효 이후 6개년(2016~2021년) 기간 2,700만 달러로 95% 감소하였다. 이는 양자 간 FTA



가 아직 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한-콜롬비아 FTA 성과를 종합해보면, 양국 간 FTA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 과제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관점에서 볼 때 양자 간 FTA는 수출입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양국 간 오랜 현안이었던 무역 및 서비스수지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활용률은 여전히 크게 낮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양국 간 FTA는 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경우 2016년 이후 단 1건에 불과하였으며, 한국의 대콜롬비아 직접투자 또한 FTA 발효 이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 향후 과제

한-콜롬비아 FTA는 1962년 국교 수립 이후 양국이 체결한 제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이다. 이에 따라 양자 간 FTA는 2011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경제·통상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렇듯 한-콜롬비아 경제 관계 발전에서 양자 간 FTA가 갖는 높은 상징성과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FTA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국 간 FTA는 수출입 증가는 물론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애초 양측이 기대했던 경제 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특히 직접투자 측면에서 성과는 매우 미진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자 간 경제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써 FTA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콜롬비아 경제 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FTA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먼저 저조한 FTA 활용률의 제고를 통한 무역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자 간 FTA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이 2007년부터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의 경험 전수를 통한 콜롬비아 측의 FTA 활용 제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FTA 성과가 가장 저조한 상호 간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기업 차원에서는 콜롬비아를 니어쇼링(Nearshoring)의 투자 대상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콜롬비아는 코로나19 충격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라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남미 국가 중 대표적인 니어쇼링의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GVC 재편과정에서 미주시장이 하나의 생산기지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지체되고 있는 한·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콜롬비아 기업의 대한국 투자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를 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해 전통적 분야에 머물러 있는 한·콜롬비아 경제 관계를 그린전환, 디지털전환, 공급망 이슈, 보건의료 등 신협력 분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자 간 FTA 협력 챕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6년 간





마누엘 라이란  
Manuel Rayran

콜롬비아 엑스테르나도 대학 교수

서론

콜

롬비아와 한국의 인연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라우레아노 고메즈(Laureano Gómez) 대통령과 곤살로 레스트레포 하라미요(Gonzalo Restrepo Jaramillo) 외교장관 겸 국방장관은 한국전쟁(1950-1953)의 미국 함대의 일부로서 알미란테 파디아(Almirante Padilla) 연안경비함을 한국 해역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령 3296호에 서명하였다(Atehortúa Cruz, 2008).

이 때부터 양국은 멀고 먼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양국 관계는 사회·문화 분야에 집중되었다. 21세기 이래 중남미는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칠레(2004), 페루(2010), 콜롬비아(2012)와 각각 FTA를 체결하면서, 통상 부문에서도 중남미의 존재감은 커져왔다.

이 장의 핵심인 한-콜롬비아 FTA는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부문에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FTA 체결 당시 콜롬비아의 수입액은 9억 달러 이상으로, 무역 수지에서 3억 7,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FTA 발효 후 5년, 그리고 수교 60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FTA라는 이 경제 교류 기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 양자 FTA가 어떻게 진화하였는지,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적기를 맞았다.



## FTA: 세계화의 도구

1970~80년대는 세계화라는 패권적 사이클을 향한 글로벌 무역 질서의 새로운 경향성과 국제 분업의 새로운 차원, 그리고 생산 과정의 변화로 인해 세계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위의 변화는 베트남 전쟁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과도한 달러 발행과 그로 인한 금본위제 폐지로 인한 달러 유통량 증가, 1973년의 오일 쇼크, 미국, 중남미 및 유럽에서 발생한 다양한 경기 침체와 동남아 일부 국가의 생산 견인형 성장에 기인한다(Tooze, 2018).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기간 달러, 석유 파동, 대외 부채로 인한 세 차례의 위기는 패러다임과 제도, 주요 사상과 분업 등을 비롯해 정치 프로세스와 사회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80년대부터 세계화라는 패권 사이클이 수립된 바, 동 사이클은 통상 자유화, 광범위한 공급망 구축, 자유로운 자본 흐름, 국영 기업들의 전략적 민영화 등을 통한 경제 부문에서의 정부의 역할 축소, 경제로 인해 제한적인 자유민주적 질서 등의 특징이 있다(Bauman & Bordini, 2016; Sanahuja, 2019).

상기 틀에서 볼 때 FTA는 국제 통상 및 금융에서 장벽이 철폐되고 각국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국가가 특혜적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이라는 현 단계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도구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이유로 전후, 특히 WTO의 도하라운드(2001) 이후 이러한 유형의 협약을 추진하고 체결해 온 주요 국가 중 하나이다.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한 선진국들의 맹렬한 반대가 있었던 도하라운드에서 미국 정부는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입각한 세계화 구조 유지를 위해 양자 FTA를 추진했다(Stiglitz와 Charlton, 2007).

이에 기반하여 콜롬비아 역시 1991년 세사르 가비리아(César Gaviria) 대통령의 경제 개방 정책과 함께 FTA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편입하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콜롬비아는 15개 통상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시장 자유화 정책 기조는 콜롬비아의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다양한 경제 분야가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





향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고 있다.

## 콜롬비아와 한국의 경제 발전

비록 콜롬비아와 한국 모두 글로벌 체제에 편입되어 있으며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기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국은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있어 고유의 역할과 프로세스를 거쳐왔다. 이로 인해 FTA의 손익은 명백히 각국에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탈식민지화와 문화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질서라는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산업화가 늦게 이루어졌다. 1961년 박정희 소장의 군부 쿠데타는 농업 소득 축적에 의존하였던 산업 구조와 이 시스템을 대표하였던 엘리트 체제를 종식시키고 장기간 중앙집권화된 경제 기획 구조로 변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Kyong-Duk Lee, 2007). 이러한 과정은 패배한 엘리트 층의 자산이 한국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중심이 된 소수 사회 집단에 이전되면서 진행됐다. 이 소수 사회 집단은 시중 은행의 국유화와 통화 개입을 통해 경제를 통제하는 중앙집권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산업화를 이끌었다(Amsden, 1992).

이 새로운 질서 덕분에 정부는 기업인들의 의지와 행동을 좌우하고,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자본 혁신에 집중된 기업을 형성했다. 동 기제는 기업가들이 중간재와 자본재에 투자하게 만들었고, 이는 국가 산업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순자본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콜롬비아는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동력 측면에서도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왔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역시 산업화를 통해 수요가 높은 수입재를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입대체 산업화 모델(MSI)을 채택하였다. 수입대체모델은 이론상 자국 산업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주요 외화 획득 및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획득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산업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자원 및 제품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위해 활용되지도 않았으며, 다른 부문으로의 확장이나 국외 이전이 발생했다. 이로써 시장 체제가 통제와 규제에서 미통제와 탈규제로 전환하면서 수입대체전략



은 개방경제정책으로 대체되었다(Aguilar, L.I., 1991). 여기에 더해 콜롬비아의 정치 상황은 불평등과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배타주의에 뿌리를 둔 복잡한 무장 분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치안 불안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요소 구축도 어려웠다 (Orbegozo, B. V.,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콜롬비아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 하에 시장 경제로 편입했다. 이러한 불균형을 겪지 않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콜롬비아가 명백히 불리한 위치에 놓인 이유다. 비록 정치 지도자들은 신 자유주의적인 세계화 모델이 콜롬비아 사회의 사회경제학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하였으나, 분명한 것은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고, 국가의 생산 기제는 이러한 경제적 조치에 의해 타격을 입었으며, 비공식 노동 시장이 만연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강화나 농산업 발전 및 산업 전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도 부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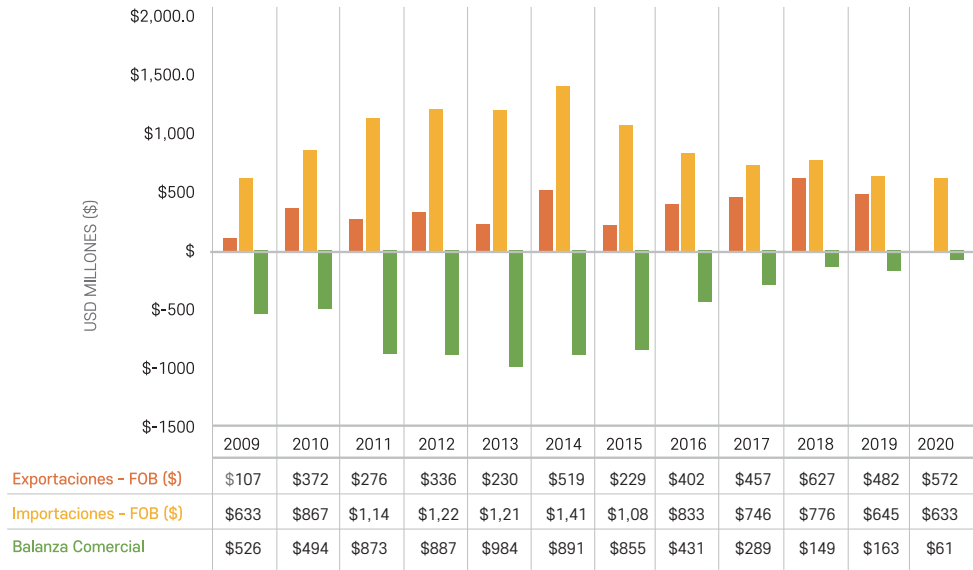
## 한·콜롬비아 FTA 분석

2022년은 한·콜롬비아 FTA 발효 6주년이 되는 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양국간 무역 동향을 정성분석할 것이다. FTA의 체결이 야기한 변화를 입증하기 위해 2009-2020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바, 양국 경제에 팬데믹이 미친 부정적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강조해야 할 첫 요소는 대 한국 콜롬비아 무역 수지가 FTA 발효 전후 모두 적자라는 점이다. 하지만 2018년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둔화함에 따라 이러한 무역 수지 불균형이 명백히 줄고 있다. 한국의 경제 둔화는 인구 노령화와 높은 수출 의존도에 기인한다. 도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이전 약 3억 70만 달러 수준이었던 콜롬비아의 평균 수출액이 FTA 체결 후 약 4억 6,170만 달러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무역 수지 불균형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 수지 불균형 감소는 콜롬비아 정부의 대 한국 수출 증가보다는 대외 요인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콜롬비아 무역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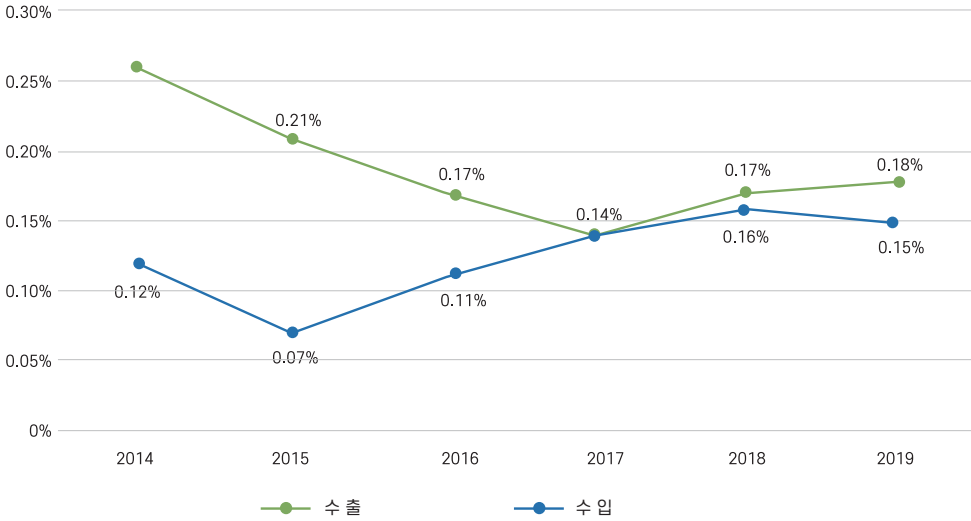
출처: 콜롬비아 중앙 은행, 콜롬비아 통계청.

또한 도표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콜롬비아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였으나 한국 제품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은 증가하였다. 이는 많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가 한국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킬 기회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시장에서 콜롬비아의 존재감이 미미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원자재에 집중된 생산 및 무역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표1)으로, 이는 한국의 산업 및 농산품의 가치 사슬에서 콜롬비아 제품의 참여와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콜롬비아의 경쟁력이 한국 시장에서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갖춘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 있어 약한 것 역시 이 현상의 원인이다. 여기에 더불어 1인당 GDP(도표3)에서도 드러나듯이 상술한 콜롬비아의 생산의 현주소는 한국과 대비하여 부의 창출을 제한한다.



도표 2: 콜롬비아의 대 한국 무역 점유율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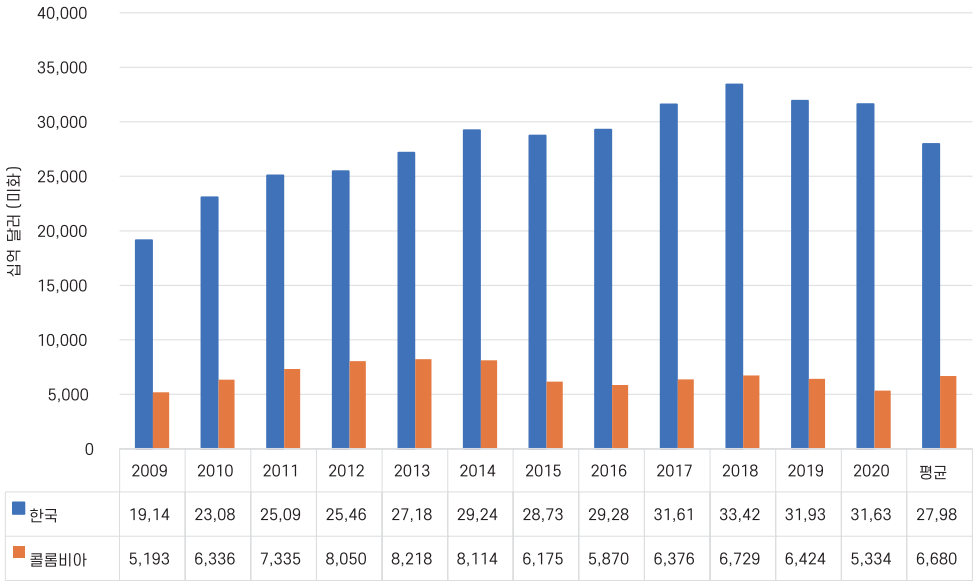
표 1: 콜롬비아-한국 주요 수출 및 수입 품목

대(對)한국 수출품목총액			대(對)한국 수입품목총액		
품목	2019	2020	품목	2019	2020
연료 및 광물	482,030	571,988	플라스틱 및 그 가공품	90,825	90,161
커피, 차 및 향신료	85,690	110,716	자동차 및 육로수송수단	133,440	78,133
구리 및 그 가공품	54,930	52,358	기계, 보일러 및 원자로	86,737	64,725
철강	2,125	21,472	다양한 화학 제품	41,634	85,465
과일 및 견과류	862	14,895	합금철과 철강	68,360	91,396

출처: Trade Map



도표3: 콜롬비아와 한국의 1인당 GDP (단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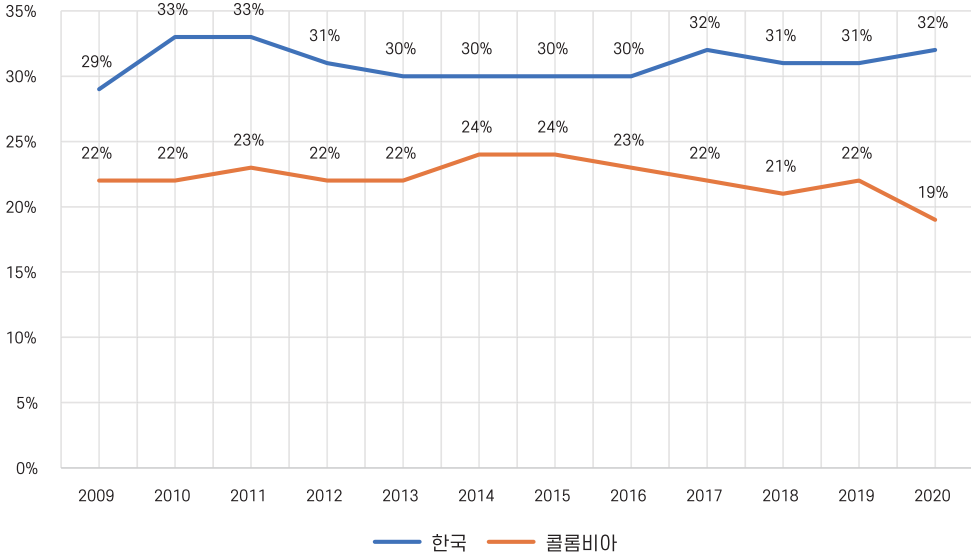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

이러한 측면에서 부의 창출에서 콜롬비아와 한국의 비대칭과 콜롬비아의 낮은 수치는 저조한 자본 형성에서 나타나는 양국 간 불균형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도표 4). 여기에는 콜롬비아가 국내 및 해외 무역에 더 잘 편입하기 위한 물질적 여건과 시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정 자본(도로, 철도, 학교, 병원 등의 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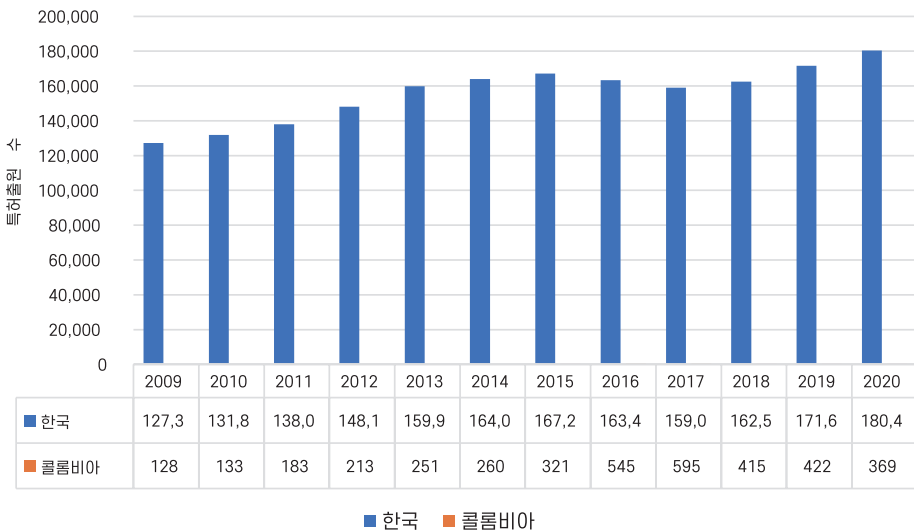
이는 특허 출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의 창출과 자본 형성의 부재는 과학 기술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콜롬비아보다 400배 이상 많은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그림 5), 이는 콜롬비아가 일차 상품에 경도된 체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도표4: 콜롬비아와 한국의 순 자본형성 비교(GDP 비중, %)



출처: 세계은행

도표5: 한국과 콜롬비아의 특허 출원 수



출처: 세계은행



## 결론

양국의 FTA 활용은 지금까지 비대칭적이었다. 콜롬비아가 부가가치 없는 일차재의 생산 구조를 유지해온 반면 한국은 중간재와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상품의 자본 혁신을 장려해오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세계 시장 경제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가진 역사 정치 및 경제적 내부 여건에 기인한다. 즉, 콜롬비아가 불안으로 점철된 복잡한 무력 분쟁을 겪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정도로 튼튼한 산업과 농산업을 갖추지 못한 채 경제 개방 정책을 적용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전쟁 이후 상대적으로 평화를 누렸으며, 높은 수준의 과학 혁신과 부가가치를 갖추어 생산성 진작에 중점을 둬으로써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FTA 발효 후 5년 간 내부 원인보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적자폭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콜롬비아는 한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줄곧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여타 국가들과의 경쟁은 콜롬비아의 한국 시장 점유율을 축소시켰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콜롬비아의 대 한국 수출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콜롬비아가 한국 시장에서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있음을 입증한다. 물론 단순히 FTA를 통한 한국 시장 진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여건 및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더해 국내 및 지역 개발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콜롬비아의 생산 구조 강화도 필요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끝으로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사업 기회를 더욱 잘 이해하고 포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콜롬비아 정부, 학계 그리고 민간 부문 간 더욱 견고한 연계가 필요하며, 이로써 한국에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양국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4부

# 한-콜롬비아 개발협력



### 대콜롬비아 개발협력 : 지원성과 과제

정상희 · 계명대학교 교수



### 한-콜롬비아 협력 우정 그리고 발전

파울라 루이스 카마초 (Paula Ruiz Camacho)  
콜롬비아 엑스테르나도 대학 교수



**대콜롬비아 개발 협력 :**

**지원성과 과제**



정상희

계명대학교 교수

## 대콜롬비아 개발협력 지원현황

한

국의 대콜롬비아 개발협력 관계는 한국 개발협력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글에서 한국의 대콜롬비아 개발협력 지원정책과 규모에서의 변화추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국 간 개발협력의 발전단계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1990년대에서 2011년까지이며, 이 시기 한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고 양 국가 간 개발협력 관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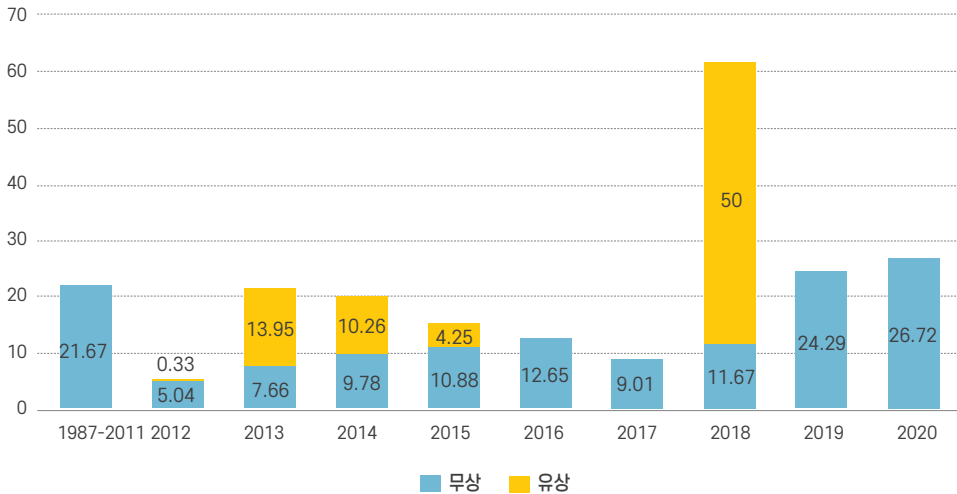
2010년부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개발협력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제도와 정책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1년 유·무상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였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 되었고 2012년부터 국가협력전략(CPS)을 기반으로 대콜롬비아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가협력전략(CPS)을 기반으로 개발협력 지원이 이루어졌던 2012년부터 2020년까지를 양국 개발협력의 발전기로 구분하였다.

2019년 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이는 국내외 개발협력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20년 4월, 콜롬비아는 OECD 회원국이 되었다. 2021년 한



국의 대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콜롬비아의 위치가 변화하고 한국의 새로운 CPS가 수립된 2020년 이후를 양국 개발협력의 새로운 전환기로 구분하였다.

그림 1 한국의 대콜롬비아 총 지원실적(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 불)



출처: OECD Stats

### 한국·콜롬비아 개발협력 관계의 기반 구축기 (1990년대~2011년)

한국은 1976년도 연수생 초청사업을 시작했으며 한·콜과학기술협정에 따라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전자통신연구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sup>1</sup> 이처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콜롬비아 개발협력은 연수생 초청사업,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 등 소규모 무상원조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총지출 기준 2100만불 규모의 무상원조가 지원되었다. 주요한 사업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2007년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 건립사업, 2009년 초코주 기초보건의료 향상사업, 2011년 콜롬비아 농촌지역 빈곤퇴치사업 및 산업클러스터 기반 중소기업 생산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 건립사업과 초코주 기초보건의료 향상사업은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농촌지역 빈곤퇴치사업은 소득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간 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자동차부품, 전기에너지, 식품가공 분야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1년부터 중남미 국가의 직업훈련 역량강화를 위해 한·콜 삼각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현지연수 등을 통해 자동차, 자동화, 전자공학 분야와 관련하여 콜롬비아직업훈련청(Servicio Nacional de Aprendizaje, SENA)의 역량강화 및 기능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후 관련 기술을 중미·카리브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산한 사례였다. 특히, 이 사업은 양국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고 공동평가를 실시했으며, 비록 소규모이나 중미·카리브 국가들을 대상으로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사업을<sup>2</sup> 추진했다는 의미가 있다.

콜롬비아는 1995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전략적인 국가이며 지원 한도와 금리 등 지원조건을 우대하는 국가로 선정되었다.<sup>3</sup>

2010년 양국 간 EDCF 협정이 이루어지고, 1000만 불 규모의 정보통신부 ICT R&D 센터 건립사업, 3000만 불 규모의 교육부 ICT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약정 2건이 체결되면서<sup>4</sup> 유상원조 지원 규모도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까지 연수생 초청사업,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 등 소규모 무상원조사업이 추진되고, 유상원조 지원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측면에서 이 시기 양국 간 개발협력 관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한국국제협력단(1995), 『1994년도 한국국제협력단연보』.

2 삼각협력은 전통적인 공여국과 수원국뿐 아니라 중소득국이 촉진자로 역할하고 있으며, 남남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발효과의 개선을 위한 지원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다.

3 한국수출입은행(2017), 『EDCF 30년사, 제1권: 대외경제협력기금 30년 역사』.

4 주 콜롬비아 대사관(2016), “한국-콜롬비아 관계”.



2010~2011년 대콜롬비아 지원은 프로젝트 형태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1년 콜롬비아는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 UMIC)이었으나, 한국의 대콜롬비아 개발협력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와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었던 한국전쟁 당시에도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5천여 명의 전투병을 파견한 16개 참전국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Calderón) 대통령의 방한 시,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Asociación Estratégica de Cooperación)’로 격상되었다. 이처럼 최근 10년 동안 총 6회의 정상급 교류가 이루어진 만큼, 양국은 “혈맹(스페인어로 Alianza de sangre)”,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의 틀 내에서 개발협력 관계를 지속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따라서 이 시기 한국의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되고 있었으나, 개발협력을 활성화하고 효과성 개선을 위해 사업 간 연계성, 무·유상 연계, 민자 유치 등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sup>6</sup>

### 한국·콜롬비아 개발협력 관계의 발전기(2012~2020년)

2010년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라 개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국내적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이 제정되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처럼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되었다. 2011년 한국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유·무상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였다.

국가협력전략(CPS)은 우리 정부의 중장기적인 개발협력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문서로서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과 한국의 지원목표 및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콜롬비아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지원방안, 이행전략, 모니터링 및 성과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5 추종연(2021),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특별한 협력관계”, 『외교』제137호.

6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6호-3호),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요약본)”.



제1기 콜롬비아 CPS(2012~2015)의 지원목표는 콜롬비아 국가개발전략의 수행에 기여함으로써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부터 중점협력국으로서, CPS를 기반으로 콜롬비아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이 이루어졌다. 콜롬비아 CPS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중점분야는 농촌지역개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인적역량 강화, 공공행정이었다.<sup>7</sup> 지속가능한 농업 및 빈곤퇴치 프로그램에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확량을 증대하며 소득원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였다. 과학기술과 혁신, 인적자원 양성, 전력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을 추구하였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ICT를 활용한 행정제도 개선,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및 치안강화 지원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라 교육, 보건, 공공행정, 시민사회,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sup>8</sup> 특히, 2013년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콜롬비아 상이군인과 경찰들의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한·콜 우호재활센터의 기공식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2016년 제2기 국가협력전략(CPS)이 시작되었다.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분야는 지역개발, 교통, 산업, 평화 분야였다.<sup>9</sup>

지역개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농촌 및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교통 분야에서 운송 및 물류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 분야에서 정책자문 및 기술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및 과학기술 혁신 수준 강화, 평화 분야에서 평화협정 이행 지원을 통한 분쟁지역 개발 및 사업통합 실현이 목표로 제시되었다.<sup>10</sup>

제1기 국가협력전략(CPS)과는 달리 제2기 국가협력전략(CPS)에서 한국정부는 평화구축 지원을 중점분야로 제시하였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지난 50여년 간 내전이 지속되고 7백만 명 이상의 국내 난민이 발생했는데, 2016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표면적으로 내전이 종식되었으나 분쟁피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 국내 난민

7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16호-3호),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요약본)”.

8 관계부처합동(2016),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9 관계부처합동(2016),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10 관계부처합동(2016),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의 문제, 반군의 사회 재통합 이슈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구축 사업은 분쟁지역을 대상으로 다자차원에서 양자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사례로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협력하여 2011년부터 추진한 농촌지역 빈곤퇴치 사업(2011~2017년, 500백만 불)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소득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농촌의 조직화를 지원하여 빈곤 완화 및 평화 정착을 구축한 사례이다.<sup>11</sup> 이외에도 콜롬비아 북부와 중부의 농가와 조합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조합의 제도 및 행정적인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다.<sup>12</sup> 이러한 형태의 사업들은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안보와 치안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되었다.<sup>13</sup>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시작하였다. KSP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사업의 집행을 총괄·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2012년 ‘콜롬비아의 지역개발 전략 및 과학기술단지 구축방안’ 등 현재까지 총 9건의 정책 자문을 제공하였다.<sup>14</sup>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EDCF는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차관을 지원해 왔다. 콜롬비아와는 경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개도국 공무원초청연수 사업 및 ICT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과 체결한 ‘EDCF-IDB 협조융자(Co-financing)’ 협정의 틀 내에서 디지털 경제운영 체계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위한 디지털 경제 및 연결성 개선 프로그램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 및 회복력 있는 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sup>15</sup>

11 권율 외(2019),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2 권율 외(2019),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3 권율 외(2019),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4 KSP, [https://www.ksp.go.kr/pageView/info?listCount=10&nationCd=CO&page=0&srchText=\(검색일: 2022.4.20\)](https://www.ksp.go.kr/pageView/info?listCount=10&nationCd=CO&page=0&srchText=(검색일: 2022.4.20)).

15 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5/L01\\_S02.jsp\(검색일: 2022.3.8\)](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5/L01_S02.jsp(검색일: 2022.3.8)).





콜롬비아는 2020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이반 두케 마르케스(Iván Duque Márquez) 대통령과 방역 경험 공유,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콜롬비아 FTA 활성화, ICT·과학기술 협력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sup>16</sup>

이처럼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발협력구상 ‘ODA Korea: Building TRUST(Transparency, Resilience, Unity, and Safety Together)’를 마련하여 2020년 약 1억 6,000만 달러를 지원했다.<sup>17</sup> 보건협력의 경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정부·시민사회·국제기구의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 시설의 확충, 진단 장비 및 의료 기자재 제공, 의료 인력 교육 및 연수, 현지 취약계층 대응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 2020년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중점 방역협력국으로 선정되었다.<sup>18</sup>

따라서 2020년 3회에 걸쳐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추진했는데, 코로나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현금지원뿐 아니라 의료기기, 한국형 진단시스템, 진단 및 치료역량 강화를 지원했고 의료인 보호장비를 보냈으며 보훈처는 한국전참전 용사와 가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다.<sup>19</sup>

## 한국·콜롬비아 개발협력 관계의 전환기(2021년 이후~)

2016년 제2기 CPS가 시작되었고 2020년 종료되면서 2021년 제3기 CPS가 시작되었다. 1기 CPS의 수립 시점부터 2025년까지 콜롬비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다.

제3기 CPS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경제, 사회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개발지원, 지역 내 다양한 고용기회, 부가가치 창출, 도농간 격차해소, 기업의 다각화 지원을 통

16 외교부(2021), 『외교백서 2021』.

17 외교부(2021), 『외교백서 2021』.

18 교부(2021), 『외교백서 2021』.

19 추중연(2021),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특별한 협력관계”, 『외교』제137호.



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 안정적인 평화유지, 정착 및 분쟁, 범죄, 차별 등 개발 저해 요소의 최소화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sup>20</sup>

지역개발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지원을 통한 지역격차의 축소와 농업생산성 및 농촌지역 소득수준 증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고자 한다. 교통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이전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및 도시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발 역량 강화의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 산업의 다양성 및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등 친환경 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혁신단지 운영 및 관리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평화분야에서 분쟁피해 지역 갈등 해소 지원, 사회·경제인프라의 확충과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붕괴로 인해 콜롬비아로 유입된 180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 위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며 베네수엘라 이주민과 콜롬비아 귀환인의 사회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ICT의 도입을 통한 분쟁지역의 공공기관 및 행정효율성·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확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대콜롬비아 개발협력의 전망과 과제

한국과 콜롬비아는 우호적인 외교관계의 틀 내에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콜롬비아는 개발협력 관점에서 상위중소득국(UMIC)이며 OECD회원국이다.

콜롬비아 대외원조 수원정책의 수립과 조정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대통령실이며 재무부 및 국가개발계획청(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 DNP)은 유상원조, 외교부 및 국제협력청(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Colombia, APC)은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 및 타 공여기관 간 원조조화를 위한 협의체(Grupo de Cooperantes)가 구축되어 있고, 공여국 간 협력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체계의 구축에서 콜롬비아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을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20 관계부처합동(2020),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한편, 콜롬비아는 국제개발협력 체제에서 논의되었던 주요한 의제에서 적극적인 행위주체로 역할하였다. 실례로 콜롬비아는 남남협력의 주요한 행위주체이며 2009년 콜롬비아의 주도 하, OECD 남남협력에 관한 실무그룹(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TT-SSC)이 결성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보고타에서 ‘남남 협력과 역량 개발에 관한 고위급 행사(High Level Event on South-South Cooperation and Capacity Development)’가 개최되고,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개발파트너십을 향한 보고타 성명(Bogotá Statement- Towards More Effective and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이 발표되었다.

2012년에 개최된 제3회 UN 환경개발회의(리우+20)에서 콜롬비아는 ‘Rio+20 지속가능개발목표(Rio+2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io+20 SDGs)’라는 국제개발목표 초안을 제시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를 기반으로 UN은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Rio+20 SDGs를 완성했고, 이러한 논의는 Post-2015 개발목표와 연계되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발전하게 되었다.<sup>21</sup>

콜롬비아는 SDGs달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SDGs Index에서 2021년 중남미 국가 중 70.6점으로 165개국 중 68위였으며, 중남미 26개국 중 10위에 위치하였다.<sup>22</sup> 그러나 UN회원국이 SDGs이행 정도를 보고하는 자발적 국가 검토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를 가장 활발하게 제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회를 제출하였다.<sup>23</sup> 이처럼 콜롬비아는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의제에서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역할하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의 지를 고려할 수 있다.

20 관계부처합동(2020),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21 임소진(2016),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KOICA ODA교육원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중, 시공미디어.

22 Sachs, Jeffrey D. et al.(2021),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UK: Cambridge University; Alves, Bruna(2022), “Performance of selected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2021”,<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74471/sdg-index-latin-america-caribbean-countries/>(검색일: 2022.5.20).

23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검색일: 2022.5.20).



첫째, 개발협력의 정책적 측면에서 DAC공여국들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원조효과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발협력이 글로벌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시되면서 개발협력에 한정하지 않고 외교관계 및 통상관계와 연계하여 좀 더 포괄적인 협력 수단으로 개발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지역 내 신흥공여국으로 역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협력체와의 협력과 같은 다자차원에서의 지원, 학계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민간 행위주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 경향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변화한 콜롬비아에 대해 ‘국제협력’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차원의 협력,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민간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콜롬비아는 남남협력을 역량개발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2011년 보고타에서 남남협력 사례 공유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콜롬비아는 수원과 공여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19년 남남협력에서 공여자로서 주로 역할하고 있었으며 농업, 기타서비스 및 사회정책, 제도, 공공정책과 보건에서 경험을 전수하였다.<sup>24</sup> 또한 같은 해 중남미 지역에서 이루어진 약 600여 건의 남남협력에서 칠레(184건), 멕시코(159건)에 이어 콜롬비아는 96건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었다.<sup>25</sup> 남남협력과 비교할 때, 삼각협력에서의 참여 건수는 많지 않으나 국제기구, 독일과 같은 DAC공여국과의 협력뿐 아니라, 칠레, 멕시코와의 협력을 통해 중미국가를 지원하는 삼각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의 KOICA와 콜롬비아 국립직업훈련청(SENA)은 중미·카리브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향후 한국은 삼각협력의 주축국으로서 콜롬비아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콜롬비아와의 협력을 통해 다른 중남미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다. 실례로 새로운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거나 한국이 추진 중인 사업에서 콜롬비아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역량 강화

24 Secretaría General Iberoamericana(SEGIB)(2021), Informe de la Cooperación Sur-Sur y Triangular en Iberoamérica 2020. SEGIB.

25 Secretaría General Iberoamericana(SEGIB)(2021), Informe de la Cooperación Sur-Sur y Triangular en Iberoamérica 2020. SEGIB.



를 위한 기술협력, 사업평가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콜롬비아가 주도하는 남남협력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콜롬비아 국제개발협력청(APC)에는 남남협력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평화구축 분야에서 다자성 양자차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KOICA가 재원을 제공하고 UNDP가 이행하는 형태인데,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에서 국제기구의 성과관리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차원의 성과평가가 어렵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sup>26</sup> 국제기구 뿐 아니라 역내 다양한 지역협력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다자성 양자차원 사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콜롬비아뿐 아니라 중남미 국가는 정책과 제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KSP, 외교부의 개발컨설팅사업(DEEP)과 같은 기술협력 중심의 사업 형태를 통해 콜롬비아의 인적·제도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는 금융과 민간투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의 방식,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간주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협력의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국가이다. 따라서 제3기 CPS의 이행기간 동안 혁신적인 재원과 지원방식의 확대를 통해 한국과 콜롬비아는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로서, 제3기 CPS 이후의 개발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26 권울 외(2019),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p.169.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16),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
- 관계부처합동(2020),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
- 권윤 외(2019),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16호-3호),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요약본)”.
- 외교부(2021), 『외교백서 2021』.
- 임소진(2016),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KOICA ODA교육원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중 . 시공미디어.
- 주 콜롬비아 대사관(2016), “한국-콜롬비아 관계”.
- 추종연(2021),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특별한 협력관계”, 『외교』 제 137호 pp. 126-141.
- 한국국제협력단(1995), 『1994년도 한국국제협력단연보』.
- 한국수출입은행(2017), 『EDCF 30년사, 제1권: 대외경제협력기금 30년 역사』.
- Alves, Bruna(2022), “Performance of selected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20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74471/sdg-index-latin-america-caribbean-countries/>(검색일: 2022.5.20).
- Sachs, Jeffrey D. et al.(2021),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Cambridge University.
- Secretaría General Iberoamericana(SEGIB)(2021), Informe de la Cooperación Sur-Sur y Triangular en Iberoamérica 2020. SEGIB.



KSP,

<https://www.ksp.go.kr/pageView/info?listCount=10&nationCd=CO&page=0&srchText=>(검색일: 2022.4.20).

ODA

Korea, ”<https://www.kodaportal.go.kr/portal/detail?basYyyy=2020&amtSel=grntEqvInt2&amtUnit=UsdAmt2>(검색일: 2022.3.8).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검색일: 2022.5.20).





**한국과 콜롬비아**

**협력, 우정 그리고 발전**





파울라 루이스 카마초

Paula Ruiz Camacho

콜롬비아 엑스테르나도 대학 교수

## 서론

### 한

국제협력은 국가의 국제관계 형성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로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여러 분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제협력의 다양한 전략과 관계 중에서도 이번 장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범적 구조 안에서 진화해온 관습이자 정부간 협력의 대표적 형태로 기능해 온 국제개발협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OECD, 2021).

따라서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국제협력을 개발 도구, 우의의 상징, 그리고 양국이 서명한 여러 협정과 조약을 강화하는 양국의 대외 정책 방향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협력에 있어서 한국과 콜롬비아의 양자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이 글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첫 번째는 한국형 협력의 조직적 구조와 그 기능, 그리고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다른 지역에 더욱 빠르게 진출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양국 관계를 되돌아본다. 2010년은 양국관계의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위상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한-콜롬비아 관계의 측면에서도 한



국제개발협력단(KOICA) 보고타 사무소가 개소한 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양국 모두 OECD 회원국임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의 틀 안에서 장차 재설정될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 국제개발협력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한국의 성공 사례

1990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빈곤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이행은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 나눠야 하는 공동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여국은 1인당 GDP의 0.7%를 ODA에 할당하는 등의 규범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Lancaster, 2007), 수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개발을 진행하고 공여 받은 자원을 책임감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세계은행, 1990).

해당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의 성공 사례로 언급된다. 동 연구는 한국의 사례를 논하며 국가가 ODA로 제공받은 자원을 빈곤 퇴치와 ‘농업 연구, 농촌 기반 시설 건설, 초등 교육, 보건 및 영양 계획에 관한 기초지원’의 개발에 중점을 둔 장기적 사회 정책의 이행에 투입하였음을 강조한다(세계은행, 1990, p.9). 다시 말해, 한국 정부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 장기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대외 원조를 여러 정부에 걸쳐 줄곧 우선시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은 원대한 사회적 목표를 가진 개발도상국이 되었다(SEEK Development, 2021).

결국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었다. 개발원조위원회를 이야기하기 전, 먼저 중요한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 같다. 현재 OECD의 38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ODA 감독 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 있다. 즉, 이 위원회의 회원국으로부터 제공되는 ODA 자원은 수원국으로 알려진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투입된다.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은 ODA 공여 방침을 설정하고, 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같은 경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적격 기준을 정의한다 (OECD, s.f.b).<sup>1</sup>

1 개발원조위원회 목록 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s.f.).



ODA는 초창기부터 국가 공공 정책을 재정 및 기술적으로 강화하고 지방 역량을 키우는 도구, 혹은 대외 정책 수단과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기능해왔다. 개발원조위원회의 대표적인 관행 중 하나는 회원국의 행동 방향을 정의하고, 빈곤과의 싸움과 같은 글로벌 관행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진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OECD회원국 가입은 국가의 위상과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경우는 약 30년간 이룬 경제·사회적 성장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맹국으로 여기는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설정 및 이행 측면에서도 국제 개발협력 연구 사례 중 가장 상징적이라 할 수 있다.<sup>2</sup>

국가 영향력과 성장률, 국제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 중견국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국가 지수(Indice de Presencia Global)’에서 한국의 순위는 1990년 140개국 중 16위에서 2020년 11위로 상승하였다. 소프트 지표라 불리는 글로벌 국가 지수의 상승으로 한국의 위상과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 지수는 문화,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ODA 지출과 같은 요소들을 측정하여 결정되는데, ODA 지출의 경우 한국은 2021년 GNI의 0.14%를 ODA에 투입하며(KOICA, 2021) 개발원조위원회 30개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했다(SEEK Development, 2021).

OECD 가입 후 한국은 국외에서 존재감을 확대해왔다. 이는 규범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협력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 외에도 책임감과 국가적 자부심, 타자에 대한 존중이 개입한다는 것을 입증한다(Kwon, 2022). 또한 한국에 있어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은 한국의 국제사회 입지를 향상하고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Sakong & Koh, 2012, p. 191)

일례로, ‘제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2011)’의 부산 개최를 통해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었는 바, 동 포럼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협력 이행을 위한 핵심 방향이 설정되고 개발 협력 신 구조 건설에서의 남반구 국가들의 역할이 인지되었다.

2 한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24개국을 핵심 국가로 정의했다.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동 2개국 및 중남미 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콜롬비아가 포함되어 있다.



## 콜롬비아, 중남미 내 한국의 전략적 동맹국

전 단락에서의 기술적 분석에 이어, 1962년 시작된 콜롬비아와 한국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부터 양국은 두 나라 국민의 발전을 추구하는 협력과 우정을 대화의 원칙으로 삼고 그 안에서 관계를 구축해왔다(Youn, 2015). 하지만 두 나라 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연대가 견고해진 것은 2009년 KOICA 보고타사무소가 개소하고 콜롬비아에 대한 KOICA의 제도성이 더욱 공고해진 후의 일이다. 초기에 진행된 한국의 대 콜롬비아 주요 지원 사업들 중에서도 콜롬비아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경을 위한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CRI) 건설 사업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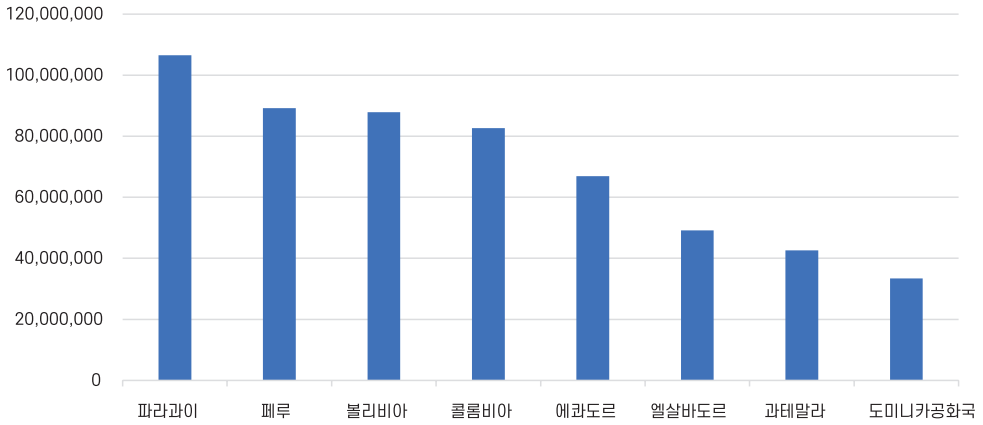
우호재활센터의 건립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동안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의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다(콜롬비아 수원청 [APC-Colombia], 2015). 한국 정부는 콜롬비아 평화 구축 사업에 자원을 투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농촌 가정과 징병·징용 피해자 및 내전 희생자의 생활 환경과 복지 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2011년 한국 정부는 콜롬비아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였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일종의 세계적 차원의 액션플랜으로, ODA 우선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위해 실시한다. 한국은 현재 125개 협력국 중에서 24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였다. 물론 중점협력국 외의 다른 국가와도 협력을 펼치고 있다.

2021년까지 KOICA가 수행한 전체 개발협력 중에서 9.8%가 중남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와 파라과이 4개국은 중점협력국으로써 한국 ODA의 최대 수원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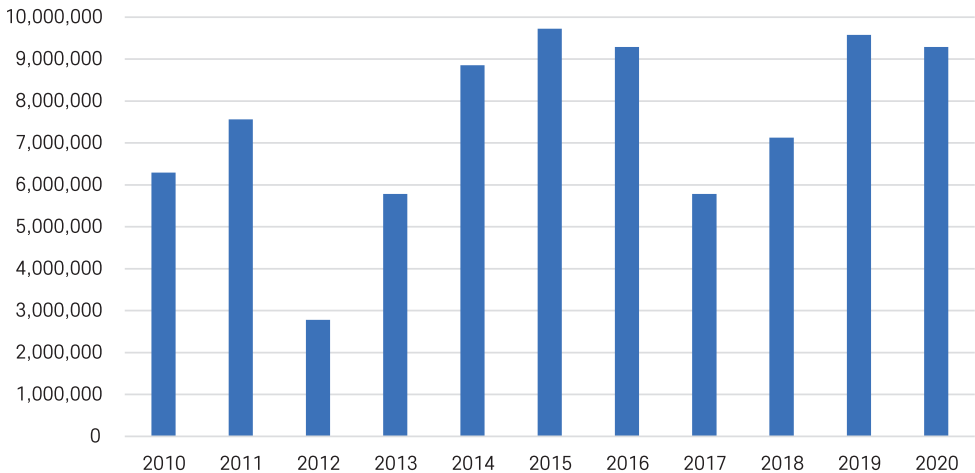
도표 1. 2010-2020 한국의 대(對) 중남미 ODA 지원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자체 작성, 2022

같은 기간 콜롬비아에서는 2015-2020년 한국의 ODA 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바, 2019년에 가장 많은 협력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도표2. 2010-2020 한국의 대 콜롬비아 ODA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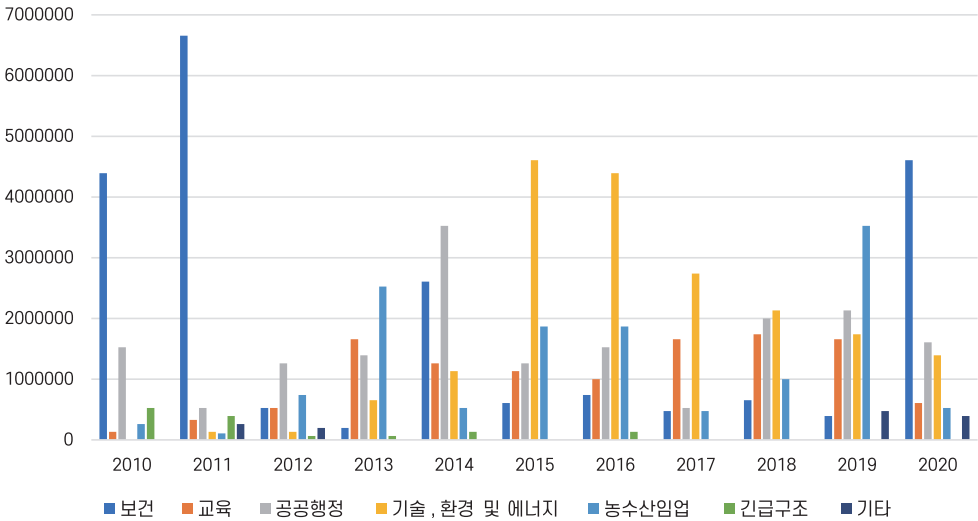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자체 작성, 2022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수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된 분야는 보건, 공공 행정, 기술 및 농업으로,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개발협력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표3. 2010-2020 분야별 한국의 대 콜롬비아 ODA 지원



출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체 작성, 2022

이러한 맥락에서, KOICA는 2017년, ODA를 통한 콜롬비아와의 관계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목표 하에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2016-2020)’을 발표했다. 동 전략에서 한국 정부는 콜롬비아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1) 지역개발, 2) 교통, 3) 산업, 4) 평화의 네 가지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설정했다(KOICA, 2017).

한국의 ODA에 대한 콜롬비아의 관심과 중요성을 반증하듯 2021년에는 2021-2025 신 국가협력전략이 발표되었다. 신 전략은 2017년 발표된 전략을 이어가는 한편 ‘콜롬비아 균형발전 지원(KOICA, 2017, p.3)’의 범위 확대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OECD 회원국 지위에 걸맞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 콜롬비아 협력 핵심 축으로 정의되는 네 가지 전략은 지역개발, 교통, 산



업, 평화이며, 이에 대한 지방 역량의 개발과 강화를 모색한다. 마지막 축인 평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구성한 바,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콜롬비아 사회 정책의 이행 지원이다.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콜롬비아 평화 정착 사업과 구상 지원이고, 마지막 이니셔티브는 한국 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강화를 통해 ‘공공 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시민 참여를 증대하고(KOICA 자체 번역, 2017, p.3)’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가 한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이 마지막 협력 전략은 효율성, 지속가능성, 조화라는 세 근본 원칙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초점을 맞춘 KOICA 분야별 중기 전략(2017)과 궤를 같이 한다.

## 파트너국 간 협력

2019년 10월 KOICA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역내 8개국(볼리비아,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콰도르)에 우선순위를 두는 ‘대 중남미 협력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중남미 지역의 포용적 개발 및 경제성장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 지원(KOICA 자체 번역, 2019, p.2)’을 목표로 하며 SDG 달성과 개발 행동 타임라인의 엄격한 준수를 각국의 우선순위로 여긴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경우 평화와 번영을 두 축으로 다음의 목표를 설정했다. 첫 번째는 평화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와 난민 재정착이며 두 번째는 산업화를 위한 국가 정책 및 기술 역량 강화이다.

두 번째 목표에 관해, 보고타상공회의소가 주콜롬비아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연구(2021)에 따르면 한국이 성장을 이루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혁신, 기업가정신, 시장 창출 및 녹색 에너지 산업의 추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Trujillo et al., 2021, p. 6). 이는 오늘날에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한국 정부가 지난 2008년 녹색성장과 OECD 내부



적으로 추진 중이던 여타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로드맵에 대한 전략이다. 이로써 한국은 OECD 내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수행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의 본보기가 되었다.

팬데믹 이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이 콜롬비아에서 진행한 ODA는 주로 기술, 환경, 에너지 분야에 해당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팬데믹 발발 후 보건의 다시 한국의 협력 분야로 중요성을 갖게 되면서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점은 오늘날 콜롬비아가 OECD 회원국이 되면서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직접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는 한국이 핵심 동맹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 녹색 성장 및 디지털 전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삼각 협력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할 것이며(스페인 왕립 엘카노 연구소, 2022), 이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여타 개발도상국에 대한 콜롬비아의 역할을 잠재적으로 강화하고 경험, 관행, 지식을 축적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 참고문헌

Agenci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de Corea [Koica]. (2017). Estrategia Alianza País de la República de Corea para la República de Colombia 2016-2020.

링크: [https://www.odakorea.go.kr/contentFile/CPS\(eng\)/COL\(spanish\).pdf](https://www.odakorea.go.kr/contentFile/CPS(eng)/COL(spanish).pdf)

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APC-Colombia]. (2015, junio 18). Se inauguró Centro Amistoso de Rehabilitación Integral Colombo-Coreano para miembros de la Fuerza Pública. 링크: <https://www.apccolombia.gov.co/node/157#:~:text=El%20CRI%20prestar%C3%A1%20rehabilitaci%C3%B3n%20integral,y%20a%20llevar%20una%20vida%20digna.>

Banco Mundial [BM]. (1990). Informe sobre el Desarrollo Mundial 1990. La pobreza (pp. 1-11) [Resumen]. Banco Internacional de Reconstrucción y Foment. 링크: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669091468139805481/pdf/88520spanish.pdf>





## 제5부

# 한-콜롬비아 한국전 참전사



### 그라시아스 바파온 콜롬비아 (Batallón Colomb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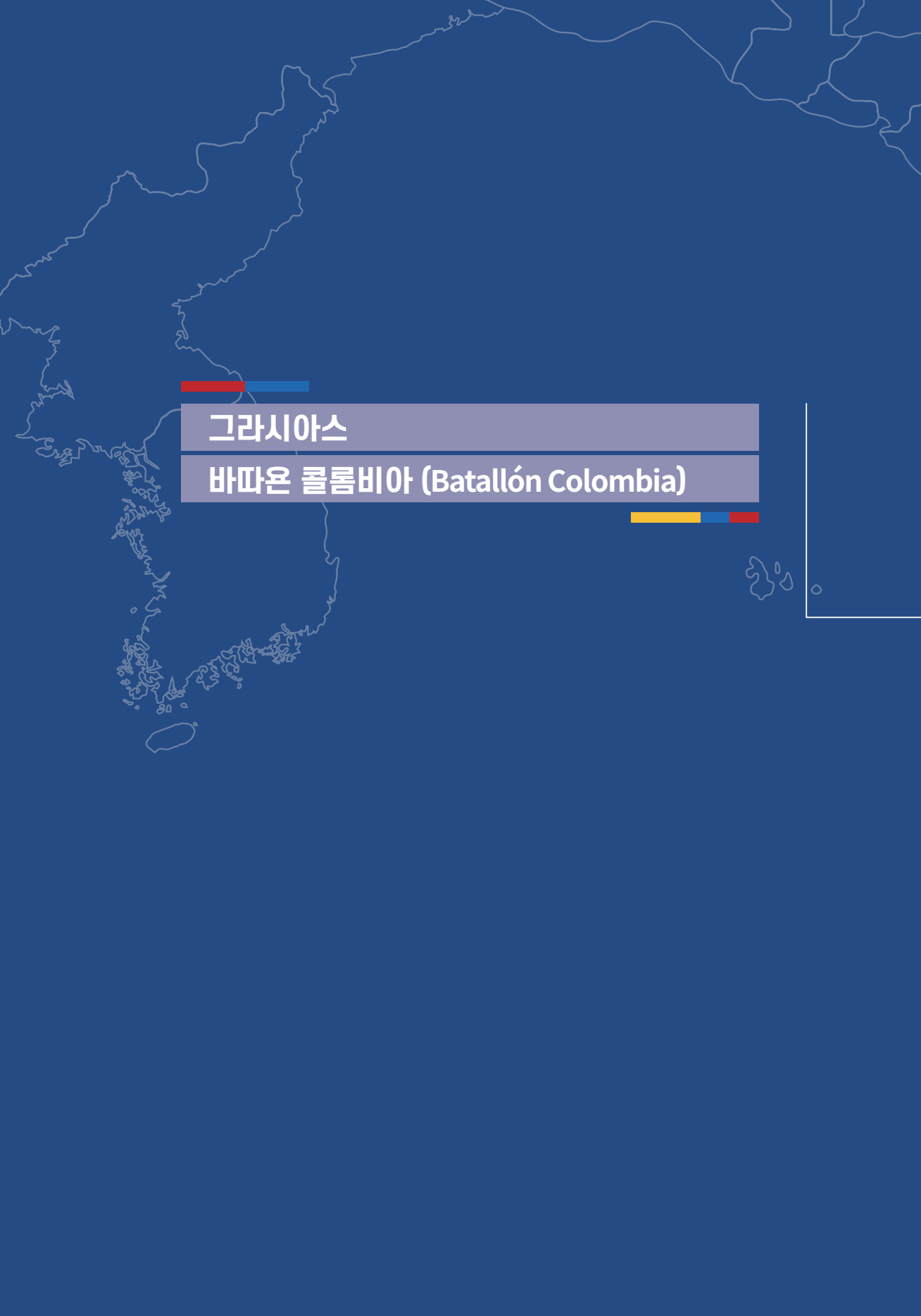
이병용 · 사진작가



### 한국전쟁에서 콜롬비아의 역할

헤수스 에두아르도 모레노 페랄레스  
(Jesús Eduardo Moreno Peláez)  
콜롬비아 육군 중령

앙헬리카 마리아 곤살레스 곤살레스  
(Angélica María González González)  
콜롬비아 국방대학교 전략 및 지정학 석사



그라시아스  
바타온 콜롬비아 (Batallón Colombia)





이 병 용

사진작가

##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과 참전용사

6 0년 전, 1962년 3월, 10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과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2년 전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연을 맺은 중남미의 콜롬비아, 우리에게 콜롬비아는 어떤 나라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당시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었을까요.

나는 2007년부터 “22개국 한국전쟁 참전용사 사진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것과 16개국이 참전했다는 것 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을 만나 사진을 찍으면서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참전용사와 미망인 그리고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 고통은 60년 세월과 함께 희석되었지만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난 후에도 멈추지 않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 60년이 지났는데 잊지 않고 자신들을 찾아와준 나에게 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남의 나라를 돕기 위해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닐까요.



결혼 1주 만에 군대 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터키의 미망인, 에티오피아의 살아 있는 전사자, 한국인 노무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에티오피아 병사, 캐나다의 쌍둥이 참전용사, 고아들을 위해 박봉을 툴 참전용사 등 참전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있습니다.

22개국에서 200만여 명이 참전해서 4만여 명이 전사했지만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아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참전용사들이 한국전쟁에서 무엇을 했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커다란 희생을 치렀는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고, 사진집을 출판하고 강연을 하고 글을 씁니다.

2013년부터 5년 간 사진작업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학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참전국을 아십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에티오피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콜롬비아가 참전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콜롬비아가! 콜롬비아도 참전했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나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콜롬비아 수프리모 등 각 나라의 커피 이야기를 하며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가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춘천이 고향인 나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유일의 지상군 참전국가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참전국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연고가 없으면 우리는 참전국에 대해 잘 모릅니다.

22개 참전국들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참전을 결정했고, 콜롬비아 청년들 역시 다양한 이유와 명분으로 한국을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2개 참전국을 기억했지만 진정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직접 총칼을 들고 적을 무찌른 참전용사 분들입니다. 전쟁은 과거였지만 그들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72년이 지난 지금 늦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한 일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2년 동안 참전국이 몇 개국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해왔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잊혀진 콜롬비아의 참전용사, 이름 없는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도와주었을까요?

##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 군 참전 결정 과정

### 라틴 아메리카 유일의 한국전쟁 참전국

유엔의〈대한민국 군사원조 결의〉에 의거, 라틴아메리카 유엔회원국들도 한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이 처한 복합적인 사정으로 선뜻 나서는 국가가 없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미국은 8월 중순부터 라틴아메리카지역 국가와 개별적으로 파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친미, 반공 국가인 콜롬비아가 파병을 적극 검토했으며, 9월 18일 프리깃함 1척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유엔과 미국에 통보하였다.

이후 콜롬비아정부와 미국정부는 지상군 파견문제를 두고 수차례 협상을 거듭했다. 11월 14일, 파견 관련 비용 일체 즉 부대 수송, 훈련, 무기, 식량 등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약속을 받고나서 1개 대대 1,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1950년 12월 26일, 콜롬비아 정부는 수도경비대장인 뿌요(Jaime Polania Puyo) 중령을 대대장으로 해외파병을 위한 ‘콜롬비아 보병 제1대대’, ‘바따온 콜롬비아(Batallon Colombia)’를 창설했다. 콜롬비아는 참전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상군 1개 대대와 해군 프리깃함 1척을 파병하였다. 유엔회원국 가운데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유일의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 국내 사정 및 참전 배경

한국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콜롬비아는 1948년 급진자유주의 지도자 호르헤 엘리 세르 가이탄(Jorge Eliesere Gaitan)의 암살을 계기로 시작된 정치적 갈등이 폭력사태로 비화되었다. 보수정권은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정치적 대립과 불안 해소에 나섰다. 그러나 실패하였다. 이처럼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자 정부는 반공주의를 국내 정치적 갈등 및 기존질서에 대립하는 모든 형태의 대항 이념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였다.

당시의 콜롬비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파병은 국민에게 보수정권의 이데올로기를 확실하게 주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한편 콜롬비아 군은 장기간의 국내 폭력사태로 인해 무력감, 사기저하, 실전경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콜롬비아 군은 한국전쟁 참전을 군 현대화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참전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콜롬비아 군은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실전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참전기간 동안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아서 군 장비의 현대화 장교와 사병 훈련 시스템을 전문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식 장비, 행정체계, 우편제도 등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대한 억압적 통제 기구를 강화시켰다.

## 콜롬비아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

콜롬비아 청년들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파병된 참전국의 병사들은 대부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콜롬비아 병사들은 자국 정부가 내세운 집단 안보 보장의 도덕적 책임과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을 되새기며,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자국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전쟁 파병을 목적으로 창설된 콜롬비아 대대의 병사들은 군사 훈련으로 단련되었거나 전쟁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게다가 자원병도 아니었다. 각 지역 수비대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던 병사 중에서 상관이 차출한 것이었다. 일부 병사는 친구의 권유나 모험심 혹은 호기심으로 군 입대를 앞당겨 파병부대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 콜롬비아 군 참전 당시 한국전쟁 상황

우선 콜롬비아 군 참전 당시의 한국전쟁 상황을 살펴보면,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거듭하여 한-만 국경 진출을 목전에 두고 승리를 확신한 유엔군 사령부는, 추가로 파병될 부대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부대의 파병이 지연되었다.

1950년 12월 29일 라우레아노 고메스(Laureano Gómez) 콜롬비아 대통령은 법령 3927호를 통해 한국 파병을 목적으로 보병대대 '바따온 콜롬비아(Batallon Colombia)'를 창설하였다. 수도경비대장인 뿌요(Jaime Polania Puyo) 중령을 대대장으로 3개 소총중대와 1개 중화기 중대, 본부중대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병력은 1,089명이었다. 다음날부터 미국식 장비와 함께 지원된 미국교관들로부터 12주간의 훈련에 돌입하였다.

한편 육군보다 먼저 파병을 결정한 해군은 189명이 탑승한 프리깃함 파딜라호를 한국해역에 투입하기 위해 진주만에서 미국 해군과 합동훈련에 주력하였다.

## 콜롬비아 군의 한국전 참전 경위

1951년 4월 중순 중공군의 춘계 공세로 다시 전쟁이 가열되자 만반의 준비를 갖춘 프리깃함 파딜라호가 일본의 사세보항으로 출발한데 이어, 1951년 5월 21일, 콜롬비아 청년 1,086명은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태평양연안 최대 항구인 부에나 벤투라(Buena Ventura) 항에 도착하여 미지의 땅 부산으로 향하는 미 군함 아이켄 빅토리(Aiken Victory) 호에 몸을 실었다. 한국으로 향하는 26일 동안 이들은 미 육군 빅토르(Victor) 대령의 지휘 아래 신무기 사용법, 군사훈련 그리고 정신교육을 받았다.

6월 15일 부산에 도착한 콜롬비아 병사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부산시민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부산의 동래 유엔군 수용대로 이동하여 6주간에 걸친 현지적응



및 전술훈련을 실시하였다. 7월 30일 강원도 화천군 산양리로 이동하여 미 제24사단 제 21연대에 배속되었고, 실전경험은 부족했지만 8월 7일 알바로 발렌시아 토바르(Alvaro Valencia Tovar, 콜롬비아 전 육군 참모총장) 대위의 지휘 아래 첫 전투에 투입되었다.

콜롬비아는 우여곡절 끝에 참전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상군 1개 대대와 프리깃함 1척을 파병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 합류하였다. 비록 파병은 소규모였지만 라틴아메리카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참전국이라는 점 그리고 복잡한 내부사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참고로 에티오피아 강뉴(Kagnew)부대 역시 콜롬비아와 같은 이유로 비교적 늦은 1951년 5월6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유일의 지상군 1개 대대 파병으로 인원은 소규모였지만 포로가 한명도 없었다는 점과 253전253승의 무패를 자랑하는 용맹한 부대였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 육군

### 콜롬비아 육군의 주요 전투 개관

1951년 6월15일 부산항에 도착한 콜롬비아군은 미 제 24사단에 배속되어 8월6일 흑운토령 북쪽 851고지 적군의 정보 수집을 위해 참전 이후 처음으로 1개 소대 규모의 정찰대를 파견했다. 한국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콜롬비아 군은 이동 중 적군의 기습을 받아 11명의 부상자를 내고 철수했다.

1951년 8월 31일 흑운토령 부근 정찰작전 도중 적과의 전투에서 호세 델리오 마사아스 사파타(JOSE DELIO MACIAS ZAPATA)병사가 전사했다. 한국전쟁 참전 이후 콜롬비아 대대의 첫 번째 전사자였다.

10월13일 미 제 24사단의 금성 진격작전에 참전한 대대는 흑운토령 북쪽 570고지를 공격했다. 이 공격에서 적군 38명을 사살하고 적 중대장을 포함한 포로 4명과 수많은 화기와 탄약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지만, 대대장이 중상을 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1952년 1월28일 미 제 24사단이 일본으로 복귀함에 따라 대대는 양구군 원당리로 이동하여 미 제 7사단에 배속되었다. 5월10일 처음으로 김화(강원도 북부에 위치)북쪽 탐동 부근 저항선인 미주리선 방어를 시작했다. 6월21일 04:00시, 중공군의 방어 거점 400고지를 기습 공격한 A중대 제 3소대는 적군의 견고하게 구축된 진지 11개를 파괴하고 적군 28명 사살하고 2명을 생포했지만 3소대원도 2명이 전사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8월17일 야간 적군을 생포하기 위해 소대 규모의 정찰대를 적의 전초기지인 325고지와 400고지로 파견하였지만, 정찰계획을 사전에 탐지한 적의 집중 공격에 장교 2명과 사병 94명이 전사했다. 이 충격으로 장병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대대는 8월 20일 와수리(강원도 철원군 서면)로 철수했다.

1953년 2월 27일 재정비를 완료한 대대는 연천 서북쪽 덕현동으로 이동하여 미 제 7사단 제31연대의 예비대 임무를 수행하던 중, 3월10일 중공군의 전초인 180고지를 공격 개시 30여분 만에 적의 개인호와 화기진지를 전부 파괴하고 150명 이상의 적군을 사살하였다.

3월12일 180고지의 격전을 치룬 이틀만인 불모고지 전초가 있는 미 제32연대의 중앙 지역을 인수하여 경계를 강화하였다.

### 휴전 전 후의 콜롬비아군

1953년 3월25일 불모고지에서 A중대와 B중대 교대 도중 중공군의 기습공격에 허를 찔린 대대는 불모고지를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콜롬비아군과 미 제32연대는 600여 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지만 전사 95명, 부상 97명, 실종 30명 등 참전 후 단일전투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여전히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저항 진지를 미군에게 인계하고 4월 27일에 연천으로 이동 훈련과 부대정비를 완료했다.

5월 20일 미군으로부터 인수 후 한동안 평온하던 갈현리 327고지 전선은 6월 19일 야간 짙은 안개를 이용해 침투한 적의 공격으로 C초소(진지 좌단 북쪽 200m) 매복조장 모라노(Pedro Jose Molano) 하사가 전사하고 5명의 병사가 부상을 당했다.



7월 3일 갈현리 주진지를 미군에 인계하고 연대예비로 고포리(高浦里, 연천 남쪽 4km) 부근으로 이동했다. 7월 6일 부상자 포함 220명의 장병들을 귀환시키고, 8일에는 365명의 보충병을 맞아들어 전력을 보강했다.

7월 27일 휴전협상 조인으로 22:00시를 기해 전투행위가 중지되었지만 막동(莫洞, 덕은동 동남쪽 2km)-천덕산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대대는 보충병 없이 병력을 감축하다가 1954년 10월 29일 인천항을 거쳐 한국을 떠났다.

표 1 콜롬비아 육군의 지휘관

구분	참전기간	계급	성명
제1차. 콜롬비아대대	1951.6.15.~1952.7.4.	중령	Jaime Polania Puyo
제2차. 콜롬비아대대	1952.7.4.~1953.6.25.	중령	Alberto Ruiz Novoa
제3차. 콜롬비아대대	1953.6.25.~1954.10.29.	중령	Carios Ortiz Torres

표 2 콜롬비아 육군의 주요 전투, 전사/사망·부상·포로

전투 명칭	참전 기간	전사/사망,부상,포로
1. 현지 적응 훈련과 전선으로의 이동	1951.6.16~8.1	-전사/사망 : 214 -부 상 : 448 -포 로 : 28 (실종자 69명은 전사/사망자에 포함)
2. 흑운토령 부근 정찰작전	1951.8.2~10.12	
3. 금성 진격전 1) 노매드선(Nomad Line) 공격 2) 폴라선 (Polar Line) 공격	1951.10.13~10. 21	
4. 금성지구 작전 1) 회고개 전투 2) 초서리 전투	1951.10.22~1952.1.19	
5. 미 제7사단 배속과 후방활동	1952.1.20~4.24	
6. 미주리선(Missouri Line) 작전 1) 탑동 진지 인수 2) 400고지 기습공격 3) 부대개편과 전초진지 정찰활동	1952.4.28~12.27	
7. 제임스타운선(Jamestown Line)작전 1) 스맥(Smack) 특수작전 지원 2) 덕은동 바브라(Barbula) 작전 3) 불모고지(Old Baldy) 전투	1952.12.27~1953.7.27	
8. 휴전 전 후의 콜롬비아군 1) 막동~천덕산 경계 임무	1953.7.28~1954.10.29 귀국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p.280~281;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8,



##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 해군

### 콜롬비아 해군의 참전 과정 및 주요 임무

콜롬비아 정부는 지상군을 파견하기에 앞서 해군함정 파딜라호(Almirante Padilla) 파견을 결정하고 미 합동참모본부와 함정 파견을 위한 세부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190명의 승무원과 함께 프리깃함 1척을 신속히 유엔 해군 작전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진주만에서 미 해군과 합동훈련 실시 후 1951년 5월 8일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하여 제95기동부대에 배속되었다.

1951년 5월 8일 일본 사세보 항에 도착한 콜롬비아 해군의 프리깃 함 파딜라호(Almirante Padilla)는 영국함대가 주축이 된 서해안 봉쇄전대에 배치되었다. 14일 서해로 이동하여 초도(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석도(황해남도 과일군)간 해상 초계 작전을 시작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5월20일 동해전대로 배속이 전환되어 동해안에서 보급선단 엄호, 해안초계와 함포 지원사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시 콜롬비아 함정은 75mm함포를 장착하고 있어서 사격거리가 짧아 함포사격에는 불리하였으나 10월 하순 청진(함경북도 북동부 항구 도시)부근에서 적 해안 포대를 명중시키는 등 그들의 우수한 사격술을 과시하였다.

1952년 2월12일 2차 참전함인 토노호(Capitan Tono)가 파딜라호의 임무를 인수하였고, 5월 하순 동해로 출동한 토노호는 원산항(함경남도 원산)과 성진항(함경북도 성진시)부근에서 작전 중인 유엔 소해함(수중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들의 엄호임무와 수송선단의 호위임무를 수행했다.

11월12일 3차 참전함인 브리온호(Almirante Brion)가 도착하여 토노호로부터 임무를 인수하였다. 브리온호는 재정비 후 1953년 6월29일 동해에서 활동 중인 해군함정들의 보급품 수송 및 선단 엄호임무를 시작했다. 1954년 4월 17일 브리온호로부터 작전 임무를 인계받아 제2차 임무를 시작한 토노호는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및 서해안(인천과 백령도 일대)에서 소해작업 중이던 미군과 한국군의 소해함정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임무를 끝내고 일본의 사세보항으로 향진 후 1955년 3월 11일 콜



롬비아로 귀항하였다.

1955년 1월 12일 제2차 임무를 위해 일본 요코스카항에 도착한 파딜라호는 보급선단 호위 및 기동훈련 참가 등을 통한 전술능력 향상과 인접국 방문을 통해 국가 간의 우호증진에 힘썼다. 파딜라호는 10월11일 유엔 해군으로서의 공식적인 임무를 마치고 콜롬비아로 귀항하였다. 콜롬비아 해군은 참전기간 내내 최소한 1척의 프리깃함을 파견하여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해안초계활동, 대지함포사격 및 소해정 엄호 등 소형함정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유엔군의 해상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3 콜롬비아 해군 함정 명칭, 참전기간 및 지휘관

함정명	참전기간	계급	지휘관
Almirante Padilla	1951.5.8~1952.1.19	소령	Julio Ceasar Reyes Canal
Capitan Tono	1952.2.12~1952,11.12	소령	Hernado Beron Victoria
Almirante Brion	1952.11.12~1954.4.17	소령	Carlos Prieto Silva
Capitan Tono	1954,4,17~1955,3,11	소령	Jorge Taua Suarez
Almirante Padilla	1955,1,12~1955,10,11	소령	Dario Forero Gonzalez

## 콜롬비아 해군의 함정별 주요 임무

표 4 파딜라호(Almirante Padilla, 1951. 5. 8 ~ 1952. 1. 19)

참전 기간	주요 임무
1951.5.8	일본 사세보항 도착, 미 극동해군에 배속
1951.5.14	초도-석도 간 해상초계작전으로 한국해역에서의 첫 작전 임무 개시
1951.5.20	일본 사세보항에 작전기지를 두고 동해안에서 활동 개시
1951.6.8~14	원산-성진간 해안순찰, 유엔 함정들과 연합하여 함포사격 가담
1951.7.24~27	원산봉쇄분대(TE 95-21)에 파견되어 유엔 함정들과 원산포격작전 참가
1951.8.10~9.9	원산 포격작전 참가, 중형함정 호위 임무 수행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정비 완료, 원산-청진간 해안초계활동
1951.10.12~30	청진부근의 적 해안포대 포격
1952.1.19	한국해역에서의 제1차 근무를 공식적으로 마침



표 5 토노호(Capitan Tono, 1952. 2. 12 ~ 11. 12)

참전 기간	주요 임무
1952.2.12	파달라호로부터 임무 인수
1952.5.1	보급선단의 엄호와 동해안 초계임무로 한국해역에서의 작전 개시
1952.5.23.~6.3	원산항과 성진 항 부근에서 소해작전 중인 유엔 소해함들의 엄호 동해안 철로를 운행하는 적 보급열차 함포사격, 수송 선단의 호위
1952.6.3.~22	일본 사세보 항에서 정비 및 승무원 휴식
1952.7.22~8.7	성진과 원산 봉쇄분대에 각각 보급품을 수송하는 선단 호위
1952.8.22~9.17	보급 수송선단 호위, 원산 포격작전 참가
1952.9.17~25	동해안으로 수송되는 미국의 탄약 수송함 Mount Katmai호의 호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1952.10.9~12	일본 사세보항 근해에서 대잠수함 경계임무 수행
1952.11.4	부산에 입항하여 그 동안 해상작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해군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승무원들은 유엔군 묘지를 참배
1952.11.12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수리 중, 교대 차 새로 도착한 브리온호에 임무 인계

표 6 브리온호(Almirante Brion, 1952. 11. 12 ~ 1954. 4. 17)

참전 기간	주요 임무
1952.11.12	토노호로부터 임무 인수
1953.6.29~9.6	제77기동전대를 포함한 동해안 각 부대로 가는 보급품 수송선단의 호위를 맡음
1953.9.11~24	일본 요코스카 근해에서 유엔 해군 함정들과 기동 훈련
1953.10.22~11.25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일본 사세보항 근해에서 실시된 각종 훈련에 참가해 전술 경험 축적
1953.11.27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장비 정비
1954.4.6	부산항 입항 유엔군 묘지 참배
1954.4.17	일본 요코스카항 입항, 제2차 근무를 위해 3월 26일 도착한 토노호에 임무 인수 인계



표 7 토노호(Capitan Tono)제2차 파병, 1954. 4. 17 ~ 1955. 3. 11

참전 기간	주요 임무
1954.4.17	일본 요코스카항 도착, 브리온호로부터 작전 임무 인계
1954.5~9	한국의 동해안과 서해안을 오가며 보급품 수송선단의 호위, 해상 합동훈련 참가, 소해함정 엄호
1955.10.9~24	서해안 소해 작업 미군 소해정 2척과 한국군 소해정 2척 엄호
1955.3.11	콜롬비아 귀항

표 8 파딜라호(Almirante Padilla)의 제2차 파병, 1955. 1. 12 ~ 1955. 10.11

참전 기간	주요 임무
1955.1.12	일본 요코스카항 도착, 토노호로부터 작전 임무 인계
1955.2~10	보급선단의 호위, 각종 기동훈련 참가, 전술능력 향상, 인접국 방문 통한 국가 간의 우호 증진 활동
1955.10.11	유엔 해군으로서의 공식적인 임무를 마치고 귀항

## 콜롬비아 군의 참전 결과와 의의

어려운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결정한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전 참전 대가로 받은 원조를 바탕으로 미국식 장비와 우편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등 사회 발전에 온힘을 기울였다. 콜롬비아 군 역시 참전기간 동안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원조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던 군대를 재정비하고 군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참전을 통한 실전 경험을 토대로 습득된 지식을 활용해서 장교와 사병 훈련 시스템을 전문화하고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콜롬비아군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참전기간 동안 콜롬비아 군의 병력파견은 약 1000명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1951년 6월 30일에는 1050명, 1년 후인 1952년 6월 30일에는 1007명을 기록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1일의 병력현황은 1,068명이었다. 1개 보병대대와 1척의 프리깃 함(전쟁 기간 중 5회 파견)을 파견한 콜롬비아는 기간 중 연인원 5,100명을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 불모고지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전사/사망 214명, 부상 448명, 포로 28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대대는 미국대통령 부대 표창 1회를 비롯하여 총 54건의 각종 훈장, 대한민국 을지 무공훈장, 콜롬비아 무공훈장 등 462건의 훈장을 수여받았다.

콜롬비아는 남미 유엔회원국 중 유일하게 6·25전쟁에 육군, 해군병력을 파견하여 유엔의 집단안보활동에 기여하였다. 배경에는 유엔창설 회원국인 콜롬비아 정부와 의회 및 국민 모두가 유엔안보리의 북한 응징 결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미국의 협조와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였다.

## 한국전 참전용사 귀국 이후의 콜롬비아 상황

### 한국전쟁 영웅들의 귀국과 쿠데타

한국전 휴전과 함께 빛나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귀국한 참전용사들을 칭찬하기에 바빴던 언론들은 물론 시민들의 영웅 찬가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콜롬비아 사회는 참전용사들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 보다 더 혼란스러워져 있었다. 귀국한 영웅들은 자신들이 한국전쟁에서 했던 일을 자국의 시민들에게 되풀이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군부는 혼란을 틈타 1953년 6월 쿠데타에 성공하였다. 쿠데타의 주역은 1951년 한국전에 참전했던 구스타보 로하스 피냐(Gustavo Rojas Pinilla, 1900.3.12~1975.1.17. 재임기간: 1953.6.13~1957.5.10. 제19대 대통령)였다. 1953년 6월 쿠데타를 통해 카스트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다. 로하스는 한국전 참전 장교들을 국방부 장관 등 요직에 등용하였다. 장기 폭력 사태에 지친 대중들은 군사정권을 지지했다. 군부가 사회질서를 회복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고메즈 보수정권은 군부에 의해 붕괴되었다. 군사정권은 무엇보다도 사회 안정에 주력했다. 특히 국내에서 확산되는 반정부 게릴라 진압에 사활을 걸었다. 군사 독재 체제를 통해 반대파를 철저히 억압하는 한편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콜롬비아의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



## 잊혀진 영웅들

쿠데타에 성공한 로하스 정권은 시위대와 반정부 게릴라 조직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하였다. 반공주의는 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통제 도구로 활용되었다. 반공주의 깃발 아래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국내 게릴라 소탕전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시위대와 게릴라 조직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한국전의 경험은 게릴라전에서 빛을 받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중들은 이들의 폭력적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공적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고 이들은 사회로부터 잊혀졌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없었다. 오로지 군 장성 및 장교들에게만 참전 대가가 주어졌을 뿐이었다. 참전용사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지면서 현재 대부분의 콜롬비아 인들은 콜롬비아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참전용사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군 관련 업무 담당자 혹은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도나 알고 있을 뿐이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충구를 자국민에게 돌리게 한 로하스 군사정권도 국내 질서 회복의 대안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되어 국가기관이 붕괴 직전까지 놓이게 되었다. 로하스 군사정권도 결국, 1957년 5월 가브리엘 파리스 고르디요 장군이 주도한 쿠데타로 축출되었다. 새로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세력은 군사평의회를 결성하고, 양당(자유당, 보수당) 지도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소설 속 전쟁 영웅

콜롬비아의 혼란스러웠던 정치 사회상을 소설로 표현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노벨상 수상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José de la Concordia García Márquez, 1927.3.6~2014.4.17)의 소설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El coronel no tiene quien le escriba)”(민음사)에 이들이 처한 현실이 잘 표현되어있다.

가난한 퇴역군인인 대령, 그는 매일 낡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군인 연금 자격 통지서를 기다린다. 마지막 내전이 끝난 지난 50년 동안 그는 그것을 기다리는 일 외



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편지하지 않는다. 그 사이 대령부 부에게 희망이었던 아들은 정치 싸움에 휘말려 투계용 닭 한 마리만 남겨놓고 죽임을 당했다. 그에게 싸움닭은 참전용사들이 목숨과 바꾼 가슴에 달려있는 훈장과 같았다. 콜롬비아의 일부 참전용사들은 생활고 해결을 위해 훈장을 팔았지만, 대령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유산인 싸움닭은 마지막 까지 팔지 않으려고 한다. 부인은 이웃들이 모르게 냄비에 돌을 넣어 음식을 만드는 시늉을 하는 것도 지켰다면 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요” 라고 불평하지만 대령은 부인에게 “똥” 이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하면서 이 소설은 끝난다.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피해 사지로 떠난 젊은이들은 전장에서 살아 돌아 왔지만 콜롬비아는 참전용사들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 보다 더 혼란스러워졌다. 특히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 정치권의 보복적 폭력은 극에 달해있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로하스 정부는 사회질서 유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정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대와 반정부 게릴라 조직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로하스 정권에게 반공주의는 정부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통제 도구로 활용되었다.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싸우며 잘 훈련된 참전용사들의 총부리는 자국의 선량한 시민들에게로 향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부와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려졌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그들로서는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향하는 행위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한국전의 영웅들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상부의 명령에 따라 시위대와 게릴라 조직을 향해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명령을 따른 한국전 영웅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었다.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반역자로, 한국에서의 영웅적인 공적은 오명이 되었고 사회로부터 잊혀져갔다. 반공주의라는 이름 아래 한국전의 영웅들을 게릴라 소탕에 동원한 쿠데타의 주역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한국전쟁 참전용사는 콜롬비아에 뿐 아니라 에티오피아에도 있다.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쟁 참전영웅들은 자신들의 동료였던 황실근위대 멩기스투의 쿠데타로 하루 아침에 영웅에서 반역자로 낙인 찍힌채 야만도주 하거나 감옥 아니



면 죽음을 당했다. 두 나라 참전용사는 전쟁터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무찌르고 살아 돌아온 영웅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국에서의 영웅적인 공적은 오명이 되었고 사회로부터 잊혀져갔다. 목숨과 바꾼 훈장은 한 끼의 끼니를 위해 베품시장으로 팔려나갔다. 필자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사진집 타이틀 ‘원 비르의 훈장 The Value of Honor’은 이들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추종자였던 멩기스투의 쿠데타로 시작된 그들의 비극은 5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3대째 계속되고 있으며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지금까지 해온 일, 해야 할 일 그리고 남은 과제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군의 활약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참전국이라는 것 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언어문제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언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이다. 우리가 한국전쟁에 대해 배운 것은 참전국이 몇 나라인지 전사자가 몇 명인지 등 통계숫자만 가르칠 뿐 참전용사들이 한국에서 어떤 희생을 치렀으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북한의 침략에서 한국을 지킨 것은 참전용사 개개인의 희생이 있어서였다. 나는 참전 22개국 참전용사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렀으며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켰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강연을 한다. 부모는 자식을 잃었고, 부인은 남편을, 자식은 아버지를 잃었다. 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미망인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들의 한국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전쟁을 기억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그들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 한국과 콜롬비아의 참전기념 시설

###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

- 1973년 5월 19일 보고타(Bogota)시 해군본부 내 한국 정부에 의한 다보탑 모양 ‘한



국전쟁 기념탑' 건립, 1997년 3월 19일 국방대학교로 이전.

- 1975년 9월 24일 정부는 콜롬비아의 참전을 기리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에 참전 기념탑 건립, 2018년 7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공원으로 이전.
- 2003년 3월 23일 콜롬비아 정부에서 보고타 국방부 경내에 불모고지 전투와 금성 지구 전투 기념 '한국전 기념비' 건립.
- 2008년 11월 1일 한국 국가보훈처에서 거북선 모양의 '한국전 해군참전 기념비'를 콜롬비아 북쪽 카르타헤나에 건립.
- 2011년 7월 21일 보고타 시 '콜롬비아 해군 6·25참전비' 개막식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참석, 참전용사와 미망인 위로, 참전용사 후손 13명 장학금 전달.
- 2014년 6월15일 화천군 '6.25 참전국 적근산지구 전투 기념공원' 내 콜롬비아 산양리 지구 전적비 건립.

정부는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공원과 기념탑을 세워 희생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9 한국-콜롬비아, 육군·해군 참전비 목록

기념비 명칭	건립 일자	위치	특징
1.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1973.5.19건립, 1997.3.19 이전	콜롬비아 보고타	다보탑 형상화
2.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1975.9.24준공, 2018.7.25 이전	대한민국, 인천	칼을 든 용사와 기도하는 여인 조각
3.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2003.3.23 준공	콜롬비아, 보고타	불모고지와 38선 돌격하는 모습 형상화
4. 한국전쟁참전해군기념비	2008.11.1.준공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파달라호 출항지	거북선 형상화



5. 한국전쟁참전해군기념비	2011.7.21.준공	콜롬비아 보고타	토노호 비문, 거북선 형상화 기반부
6.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2014.6.15 준공	대한민국,강원도,화천	용맹한 콜롬비아 용사 형상화



콜롬비아 보고타, '한국전 기념비'



## 참고자료

6,25전쟁 주요전투 1,2권(군사편찬연구소),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  
하지 않다”(민음사). 구글, 다음, 송병선 교수, 차경미 교수 등





**한국전쟁에서**

**콜롬비아의 역할**





헤수스 에두아르도 모레노 펠라에스

Jesús Eduardo Moreno Peláez

콜롬비아 육군 중령

앙헬리카 마리아 곤살레스 곤살레스

Angélica María González González

콜롬비아 국방대학교 전략 및 지정학 석사

## 서론

한

반도 분단으로 종결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사회·정치적 역학으로 인해 당시 한국을 지지했던 콜롬비아를 비롯한 다양한 참전국과 한국은 호혜적이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쌓아 왔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는 한국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한국전쟁 발발의 역사적 배경과 콜롬비아의 참전을 다룰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전쟁이 콜롬비아 국군과 양국의 국제 관계에 미친 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전쟁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면, 전쟁 초기인 1950년에 한국을 지원하였던 국가들과 한국 간의 관계는 오늘날에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당시 한국의 상황을 비롯해, 소련,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UN의 지원 요청과 콜롬비아의 참전까지 이르는 한국전쟁의 전개 양상을 간략히 짚을 것이다. 이후,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 동기와 콜롬비아 국군의 요체를 바꾸어 놓은 1950년의 파병 결정에 있어서 당시 콜롬비아 대통령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루고, 현재까지 한국과 콜롬비아가 어떻게 유대 관계를 쌓아 왔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 한국 전쟁의 시작

남북한 분단으로 귀결된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전 상황에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한 19세기 한국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맥락과,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공산주의 사상의 남하를 저지하고 한국과 일본을 통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대두된 아시아의 불안정화라는 맥락을 분석하여야 한다.

역사학자 알리시아 로메로 데 라 로사(Alicia Romero de la Rosa, 2016)는 정치이데올로기로 불거진 갈등과 아시아 지정학적 우위에 대한 모색이 어떻게 남북한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귀결되었는지 설명한다. 19세기 초반, 일본은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여 국가 제도와 사회 관계를 근대화하고, 군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라는 국가 철학을 주입하였고, 국가 경제 모델을 개선한 국가민족주의를 만들어내면서 유럽식 제국주의 국가로 전환하였다.

같은 시기 조선은 조선의 통상적 이점 지배를 위해 각축을 벌였던 청과 일본이라는 두 역내 강국 사이에서 고통 받았다. 이 시기 아편전쟁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 무역업자들의 개입으로 청의 종주권과 역량은 위협받고 있었으며, 결국 청은 1873년 아편전쟁에서 패하였다. 덕분에 일본은 1876년 제정 러시아와 합의 하에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쿠릴 열도를 손에 넣으며 북태평양 식민지화 프로젝트를 전개했으며,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 함대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선의 약속을 획득하였다.

이후, 조선 왕조는 유교 사상은 유지하면서 서구 열강의 제도와 군사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양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청과 수교하였다. 청과 조선은 1894년 동학이라는 전국 단위의 농민 혁명을 계기로 일본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며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붙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은 포모사 영토와 평후 제도 및 랴오둥 반도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조선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친일파 정부를 추진하여 관계를 바꾸고, 시장을 개방하며 사회 계층에 따른 차별 정책과 노예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청 위주의 문화적 사상을 제거하며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이권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모든 조치는 러·일 전쟁(1904-1905)을 촉발했고, 이 전쟁으로 일본은 본격적으



로 한국(대한제국)의 주권 침탈을 시작한다(Romero de la Rosa, 2016).

러·일 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립을 지킬 수 있었으나, 제정 러시아에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 점령을 결정하고 서구 열강의 동의 하에 한국에 일본의 보호령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 메이지 정부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국교 종식을 강요하였다. 한편 일본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 사회의 불만을 새로이 고조시켰다. 1907년 군대 해산은 봉기로 번졌으며, 한국인들은 시민들과 당시 정부 지배계층 및 양반 5만 여 명으로 구성된 항일저항단체를 결성했다. 그러나 항일저항단체의 조직력과 훈련이 미진한 탓에 일본군은 항일단체를 빠르게 소탕했다. 일본은 이를 구실 삼아 한국을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합병하고 총독부 산하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둔 중앙 집권 형태의 군사 정부를 구성하여 1945년까지 한국을 통치하였다(Romero de la Rosa, 2016).

이 같은 과정을 발판으로 일본은 한국의 경제를 수탈하였다. 토지를 수용하고 국내 산업을 통제하여 한국 생산량의 약 절반을 일본에 수출하도록 강제했으며, 만주에서 건너온 수입품으로 한국인의 먹거리를 대체하게 하였다. 항일 저항 단체의 활동은 망명지인 만주, 시베리아, 중국, 하와이, 미국, 그리고 유럽 등지의 한인 사회에서 시작되었다(Sánchez, 2019).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권’은 반식민 운동에 불길을 당겼다. 한반도 전역에 퍼진 3.1 운동을 위시한 반식민 운동에 대해 일본 당국은 폭력적인 대응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일본 내의 새로운 정치 프로세스와 한국의 불만으로 인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조약이 체결되었고, 변화를 상징하기 위해 황태자 이은(역자 주: 영친왕)은 마사코 나시모토(Masako Nashimoto) 일본 공주(역자 주: 이방자 여사)와 혼인했다(Sánchez, 2019).

한편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운동이 동아시아에 번질 것이라는 공포가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혁명에 고무된 이동휘는 1918년 한국과 시베리아 동부 한인 사회에서 사회주의 당을 창당하였고 소련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의 해방을 목적으로 붉은 군대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간 충돌로 위협받던 일본의 식민 정권은 1931년에 들어 더욱 강화된 정책을 펼쳤으며, 두 진영 간 충돌이 경제 위기를 촉발하면서 극우주의가 등장했다. 이는 제2차 청일전쟁으로 이어져 한국은 더욱 심각한 폭력과 잔혹성에 노출되었다. 이 시기 일본은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과도하게 수탈하며, 한국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군대와 수용소에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하였다. 일본은 일본인들의 “인종적 우월성”을 주입하는 교육을 하고, 한국어 사용 금지와 일본의 종교 신도를 믿게끔 종용하며 창씨개명을 강제하는 등 한국 문화 말살 정책을 폈다(Lankov, 2011). 일본의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자국 문화 및 대외 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팽창주의를 견지하는 역내 강대국에 둘러싸여 지정학적 정책을 펼칠 수도 없게 만들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되고 일본이 점령한 영토를 소련이 위협했다. 이후 한국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 하에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양강의 대립은 이데올로기의 직접 충돌로 이어졌고 1948년, 사회주의 이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하며 한반도는 UN이 승인한 38선을 기준으로 분단되었다. 한반도 분단은 북쪽에서부터 진격해오던 소련군(붉은 군대)의 남하를 저지하고 서울 점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한반도의 분단에는 그 어떤 강대국을 위한 전략적 논리도 작용하지 않았고 미국과 소련, 중국, 영국은 통일된 임시 정부를 창설하려 시도했으나 북의 산업 발전과 남의 농업 한계는 인력 동원과 상품 교역에 있어 갈등을 촉발하였다(Maglio, 2006).

존 R.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이끄는 재 조선 미 육군사령부 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이 한국에 설치되면서 미국과 한국 간 문제는 확대되었다. 보수주의자인 하지 중장은 한국의 자유로운 문화적 사상 발전을 저지하였으며, 이러한 미군정은 한국 사회 내 충돌을 야기하여 불만을 가중시켰다. 한편 북한을 통치하였던 소련 정권은 사회주의 정책 정립을 도모하면서도 북한의 자유로운 문화 발전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통일 가능성이 줄어들고, 북의 김일성과 남의 하지 중장으로 대변되는 분단과 사회정치운동이 초래되었다. 이 운동을 통해 김일성은 일본 산업의 국유화와, 토지 수용 후 가족농 대상 재분배, 타 정당



의 정치인 및 기독교 신자 투옥, 소련이 추진하던 자유로운 문화 발전 정책의 종식에 성공하였다(Maglio, 2006).

상술한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UN은 1947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 Temporary Committee on Korea, UNTCOK)을 파견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간(그리고 대·내외 간) 정치, 문화적 분열로 인해 상대를 통치하고자 하는 욕구는 양측의 통일을 가로막았고, 결국 남북한은 완전히 분열됐다. 그 결과 남한에서는 UN의 일방적인 선거 지원을 통해 1948년 이후 매 4년마다 국민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헌법이 제정되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같은 해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권위주의 정권인 이승만 정권은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부상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로 인해 1949년 제주 학살이 야기되었다. 제주에서 무장 혁명 운동이 시작된 이후 약 3만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분단 이래 총 1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미국과의 항구적인 군사 관계가 수립되기도 전에 미군정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또한 T-34 전차 등 소련제 무기 구입 및 소련의 군사 훈련 지원 등은 북한이 한국 전쟁 초반 승기를 거머쥌 수 있었던 단초가 되었다(Lankov, 2011).

전쟁 초기 김일성은 남한에 대한 서구의 지원 부족과 군사 물자 부족(당시 북한군 15만명 당 남한군은 10만명이 채 안되는 수준이었다)을 심분 활용하였고, 중·소 조약과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승리는 남북한 간 직접적인 충돌인 전쟁에 영향을 미쳤다(Romero de la Rosa, 2016).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지휘 하에 북한 보병대와 공군은 38선을 넘어 남한 수도 외곽에 위치한 김포공항 상공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임시 총회를 요구하고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며 후퇴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만 민족주의자들이 중국 의석을 점유한 것에 대해 소련이 유감을 표명하며 불참하면서 총회의 정당성이 약화되었다. 6월 27일 안보리는 북한의 침공에 반대하고 UN 회원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 S1511호(1950) 수립을 위해 다시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였고, 1950년 10월까지 공격이 계속되면서 UN 다국적군은 중공군 개입 전까지 북한의 수도로 진격하는 데 성공



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과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UN 회원국은 남한을 지지하는 전쟁 진영이 형성되었다(Maglio, 2006).

콜롬비아 참전 요청은 보수주의 정권인 마리아노 오스피나 페레스(Mariano Ospina Pérez) 정부 당시 이루어졌다. 그러나 페레스 정권은 외교부를 통해 1948년 4월 9일의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Jorge Eliécer Gaitán) 당시 자유당 대통령 후보의 암살로 인해 촉발된 ‘보고타 폭동(Bogotazo)’과 ‘폭력의 시대(Período de La Violencia)’ 등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인해 참전을 거절하였다. 상기 연유로 20세기 전반 콜롬비아 국군은 4개 여단의 의료, 군복, 운송 및 전쟁 물자 수요를 겨우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군병력은 2만 4천여 명에 불과하였고 장교와 부사관 병력 역시 부족하였다. 콜롬비아 육군의 박격포와 대포, 수송 수단과 군수품 등의 물자 부족은 이들 간의 전투면 전량 소진될 정도였다. 해군은 현대전에 필요한 기기를 갖춘 프리깃함 2척 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구축함은 구식인 데다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장기간에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공군은 두 개 중대 편성이 가능한 101명의 조종사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군용기 62기 중 12기만이 전쟁용이었고, 전투기(F-47) 4기와 경폭격기(B-25)만이 전투에 활용 가능했다. 더군다나 콜롬비아는 방공호도 없던 상황이었다(Torres del Río, 2019).

해당 기간 미국의 지원도 축소되었다. 1940-1953년 미국의 대 콜롬비아 지원금은 1,400만 달러에 불과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적은 수준이었다. 비록 미국의 임무 연장과 서구의 평화 유지 및 수호를 목적으로 재래식 전쟁을 벌이기 위한 군사 원조를 연장한 양자 협정이 1952년 체결된 이후 양국 군사 관계가 강화되고, 여러 국가에서의 외교 임무 중 무관의 역할이 우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전쟁 참전을 위해 곤살로 레스트레포 하라미요 (Gonzalo Restrepo Jaramillo)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범미주외교장관협의회가 워싱턴에서 개최됐고, 미국과 브라질, 쿠바,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참석하여 정치-군사 분과회의에서 UN 군의 일환으로써 평화와 반구수호를 위한 대륙군을 창설하자는 제안이 승인되었다(Torres del Río, 2019).

1950년 8월 7일 대통령직에 선출된 라우레아노 고메스(Laureano Gómez)는 오스



피나 대통령보다 강력한 급진 보수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UN을 지지할 기회를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친 고메스 성향의 일간지인 엘 시글로(El Siglo)는 진보주의자들을 마르크스주의자들로 규탄하며, 국토의 평화 유지를 위해 안보리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를 ‘통과할 권리’ 외에도 UN 회원국이 군대를 파견할 것을 요구하는 샌프란시스코 헌장 43조를 인용하며 콜롬비아의 한국 전쟁 참전이 미군과 함께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치 공세를 펼쳤다(Torres del Río, 2015).

이에 따라 1950년 10월 23일, 알미란테 파디아(Almirante Padilla) 함이 미 6함대의 일환으로 한국 해역을 순찰하도록 하는 법령 3230호가 통과되었으며 며칠 후 에두아르도 앙헬 술레타(Eduardo Ángel Zuleta) 대사는 ‘바타온 콜롬비아’로 명명된 보병대를 파견하였다(Atehortúa, 2008: 65).

콜롬비아 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알바로 발렌시아 토바르(Álvaro Valencia Tovar) 장군이 맡았다. 토바르 장군은 참전을 설득하기 위해 대대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 3년 간 약 5,100명의 군인을 만나 2개의 대대로 편제하였다.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발표는 동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진보주의자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진보주의자들은 고메스 정부가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타국의 전쟁을 이용한다고 지적하였고, 여기에 더해 재무부와 국방부, 외교부는 콜롬비아에 참전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 결정에 대해 반대하였다. 군의 상황은 더욱 여의치 않았는데, 게릴라와의 전투에 직면해 있었던 데다가 콜롬비아 군은 한국전쟁과 같은 정규전에 참여하여 전투할 정도로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Valencia Tovar, 2011).

## 콜롬비아 대대의 도착

바타온 콜롬비아는 한국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역사의 이정표를 세우며 세계적으로 그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군사 작전 전개 과정에서 콜롬비아 대대는 군사 교리와 물류 프로세스에서 변화를 일으켰으며 이 변화는 이후 전국 단위로 실행되었다(Rodríguez, 2021). 콜롬비아 대대의 이 같은 성공에 미국은 콜롬비아 대대에 훈장 2개를 수여하였으며, 행정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사고문단





(Military Assistance Advisory Group, MAAG) 도입으로 가지고 있던 12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탕감하였다. 여기에 더불어 한국 정부 역시 콜롬비아 대대 바타온 콜롬비아에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였다(Torres del Río, 2019).

## 참전의 동기

고메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원칙적으로는 예상 외였다. 당시 콜롬비아는 국가 비상사태였으며 해외 파병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군병력은 콜롬비아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었다. 비록 고메스 정부가 1950년 11월 14일, 미국과의 회담 후 유엔군의 일환으로 콜롬비아에 참전할 것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병력을 지원하게 되었지만 말이다(Coleman, 2005).

한국전 파병은 오스피나 정부에서 고려한 안건이었으며, 고메스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스탠스로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파병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멜렌데스(Meléndez, 2014)는 고메스가 스페인의 팔랑헤(Falange)와 파시즘에 공감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행위에 불만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서구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즉각적인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이미지를 지워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멜렌데스에 따르면 고메스는 미국에 대해 견지해온 태도를 숨기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고메스는 파나마 분리독립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대해 품고 있던 자신의 분노를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콜롬비아의 정세를 고려해 국군 전력을 강화하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다른 이유는 콜롬비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특히 미국의 FDI를 증가시키고자 했던 것일 수 있다(Schroeder González, 2009).

불운하게도 고메스 정부는 기대했던 만큼의 군사적 이익을 취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은 당시 체결 예정이었던 군사지원협약에 따라 콜롬비아 육군에 대한 기부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순히 판단하였고, 로베르토 우르다네타(Roberto Urdaneta) 국방장관의 요청에 화답하였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안





의 모습을 상당 부분 유지하지만 고메스 정부의 이점이 일부 제거된 군사지원협약이 1952년 체결되었다. 이로써 지원 물자가 내부 분쟁 등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경우 미국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경고와 함께 오로지 한국 전쟁을 위한 명목으로 콜롬비아에 지원 및 물자가 공급되었다(Atehortúa, 2008).

콜롬비아는 이웃 국가와 함께 미국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더욱 큰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었고, 콜롬비아의 고메스 정부와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만이 한국 정부를 지원하라는 UN의 중남미에 대한 호소에 유일하게 응답하였다. 비록 한국전 참전이 국가의 전략적 비전과 미국에 야기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 독일식 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어 UN 사령부를 구성하는 강대국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콜롬비아 군대의 뒤늦은 파병 등으로 인해 그다지 환영 받지 못한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에두아르도 술레타(Eduardo Zuleta) 주미대사가 주재한 협상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전 참전을 피력해 온 콜롬비아의 주장은 고메스 정권 강화를 우선적 이익으로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한 역량을 쇄신하고자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Barbosa, 2012).

## 국군에 미친 한국전쟁의 영향

한국전쟁이 콜롬비아 국군에 미친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은 미군과 UN 사령부의 틀 안에서 전쟁 중에 얻은 3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군 사고방식의 변화였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L. Burger)와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n)의 이론에 따르면, 일상 생활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습득하는 부문과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학습으로 나뉘며,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과 행위는 일상으로부터 공고해진다. 1950년대 콜롬비아 국군은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프로이센식 군대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한국전 참전과 다른 군대(특히 미군)와의 상호 교류로 인해 일상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동력이 창출되었고, 이로써 새로운 작전 계획에 기반한 학습을 우선시할 필요에 의해 역할 수행 방식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운영 계획은 국가적 절차에 적용되며 항구적인 군대 제식으로 자리잡았다. 이같은 군 현대화 및 전문화 과정은 “미국의 조직 및 팀 구성표(TOES)에 기반한 전술 조직 단위 구성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지원 하에 콜롬비아 군의 단위는 정규전을 위한 정비되고 교육되고 훈련된 단위로 변모” 하였다(Schroeder



González, 2009). 이때 적용된 요소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군대 내에 서훈, 승진 및 전장 외부에서의 명예상 수여, 가족과의 면회와 보건 및 위생 관리 등을 통한 보훈 활동의 사기 진작의 중요성
- 적군의 전술 분석과 적군이 기밀 문서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중요 문서를 제거하기 위한 요원을 배치하는 대적 첩보 활동과 적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야간 병력 동원
- 적군을 약화시키기 위한 프로파간다 및 보상을 통한 심리전
- 보병전을 비롯, 공격 및 방어 조치와 지상, 해상 및 항공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작전 수행
- 식량과 군복 배분, 군수품과 위생 용품까지 물자를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류 체계 마련
- 게릴라전(특히 1980년대까지 콜롬비아 게릴라 부대와와의 전쟁에서 귀환한 콜롬비아 국군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해 교육받은 장교들과 전쟁을 지휘하고 준비하는 사령관으로 구성된 참모 본부의 구성(Schroeder González, 2009).

한국 전쟁 이후 콜롬비아는 군사 정보부 구성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군사 정보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콜롬비아 육군 사령부는 전쟁이 끝난 지 수년 후인 1962년, 미국의 Fort Halabrid 정보부 과정을 이수할 고위급 장교들을 선발하여 군 장교 대상 정보 및 대적 첩보 과정 1기를 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은 리카르도 차리 솔라노(Ricardo Charry Solano) 중령이 지휘했다. 1964년 11월 2일, 결의안 제 20호를 통해 정보 및 대적 첩보 대대(BINCI)가 창설되며 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부대가 만들어졌고 활동 착수를 위해 산 크리스토팔(San Cristobal)의 군사 병원 시설로 옮겨졌다. 본 대대는 1982년 9월 특수 학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Torres del Río, 2019).



1985년 결의안 612호와 육군 사령부의 1월 24일자 규정 002호, 합동참모본부의 2월 1일자 규정 003호는 차리 솔라노 준장 정보 및 대적 첩보 대대(Batallón Escuela de Inteligencia y Contrainteligencia Brigadier Charry Solano)의 “육군 작전 정보 전문가”의 중요성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1991년 고등 사령부의 지시로 해당 정보 학교는 호세 마리아 코르도바 장군 육군사관학교(Escuela Militar de Cadetes “General José María Córdova”) 내 군사종합학교(ESDEG)의 현 시설로 이전되었다(육군, 정보 및 대적 첩보 학교[ESICI], 2022).

오늘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양국 해군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측 해군의 참여와 한국 측의 공여는 콜롬비아 해군의 진보에 기여하였으며, 이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이 콜롬비아 해군에 무상 증여한 C-STAR 미사일과 ARC Nariño 함(동해급), ARC Boyacá 함(포항급)이 있다. 첫 공여는 2014년에, 두 번째 공여는 2020년에 이루어졌다(Agencia EFE, 2020).

콜롬비아와 한국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약 5천만의 양국 인구 규모다. 또한 양국은 역내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반을 흔들 국지적 갈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양국 정부를 종식시키지도, 정부의 동력인 국익을 소멸시키지도 못했다. 또한 양국은 우의를 바탕으로 9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협정을 공고화 하며 향후 25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Jong, 2011).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이 야기한 유일한 부정적 결과는 장교 병력 감소일 것이다. 약 5,100명의 콜롬비아 참전 병력 중 213명이 전사하였고 2명이 실종, 448명이 회복 불가능한 중상을 입었다(Hyun Wo, 2021).



## 참고문헌

- Atehortúa, A. L. (2008). Colombia en la guerra de Corea. *Folios*, (27), 63-76. <https://doaj-org.ez.urosario.edu.co/article/8429bac5ae1f453f92e3498f57ca93e5>
- Barbosa, F. (2012). Colombia y Corea: un camino sin recorrer. *Revista Análisis Internacional*, 76, 75-86. <https://revistas.utadeo.edu.co/index.php/RAI/article/view/847/858>
- Consejo de Seguridad de la Naciones Unidas. (1950). S/1511. Resolution concerning the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at the 474th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27 June 195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74105>
- Coleman, B. L. (2005). The Colombian Army in Korea, 1950-1954.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9(4), 1137-1177. <http://www.jstor.org/stable/3397182>
- Agencia EFE. (2020, septiembre 28). Conozca el navío que Corea del Sur regaló a la Armada colombiana. *El Colombiano.com*. <https://www.elcolombiano.com/colombia/armada-colombiana-recibe-navio-de-corea-del-sur-por-apoyo-en-guerra-de-corea-CE13719694>
- Ejército Nacional, Escuela de Inteligencia y Contrainteligencia (ESICI). (2022). Reseña histórica. <https://cemil.edu.co/index.php/escuelas-cemil/escuela-de-inteligencia-y-contrainteligencia-esici/>
- Hyun, W. O. (2021). 2 Colombian veterans of Korean War to make first visit in 69 years. *News Focus: Policies*. *Korea.net*. <https://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202715>
- Jong Youn, C. (2011). Por una nueva relación cooperativa entre



- Corea y Colombia. *Crónica Universitaria*, (41), 5-7. [https://www.usergioarboleda.edu.co/wp-content/uploads/2015/01/cronica\\_corea.pdf](https://www.usergioarboleda.edu.co/wp-content/uploads/2015/01/cronica_corea.pdf)
- Lankov, A. (2011, 3 de marzo). Japanese policy of assimilation. *The Korea Times digital*.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ion/2013/02/165\\_82414.html](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ion/2013/02/165_82414.html)
- Maglio, F. M. (2006). La guerra de Corea. <https://dlwqtxts1xzle7.cloudfront.net/36796485/guerradecorea-with-cover-pagev2.pdf>
- Meléndez, J. D. (2014). Colombia y su participación en la guerra de Corea: Una reflexión tras 64 años de iniciado el conflicto. *Historia y Memoria*, (10), 199-239. <http://www.scielo.org.co/pdf/hismo/n10/n10a08.pdf>
- Romero de la Rosa, A. (2016). La guerra de Corea: el conflicto vivo de la Guerra Fría [trabajo de grado]. <https://zaguan.unizar.es/record/56972#>
- Rodríguez, A. N. P. (2021). Logística del Batallón Colombia durante su participación en la Guerra de Corea y sus aportes al Ejército Nacional. *Brújula Semilleros de Investigación*, 9(18), 23-32.
- Sánchez Ben, I. (2019). La ocupación japonesa sobre Corea y análisis de películas que tratan el conflicto [trabajo de grado]. <https://idus.us.es/handle/11441/90590>
- Schroeder González, C. (2009). La influencia de la participación de Colombia en la Guerra de Corea en la construcción de la nueva mentalidad del Ejército Nacional entre 1951 hasta 1982 (tesis doctoral, Universidad del Rosario).



Torres Del Río, C. M. (2019). Colombia siglo XX. Desde la guerra de los Mil Días hasta la elección de Álvaro Uribe (2.a ed.). Editorial Javeriana.

Valencia Tovar, A. (2011). Presencia colombiana en la guerra de Corea. Crónica universitaria, (41), 8-15. [https://www.usergioarboleda.edu.co/wp-content/uploads/2015/01/cronica\\_corea.pdf](https://www.usergioarboleda.edu.co/wp-content/uploads/2015/01/cronica_corea.pdf)



## 제6부

# 한-콜롬비아 공공외교(문화)



### 한국의 대콜롬비아 공공외교

손혜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교수



### 콜롬비아와 한국 : 공공, 문화, 전략 외교의 역사

마우리시오 하라미요 하시르  
(Mauricio Jaramillo Jassir)  
로사리오(Rosario)대학 부교수

### 콜롬비아의 시청각 산업

클라우디아 트리아나 소토  
(Claudia Triana Soto)  
콜롬비아 프로이마헤네스 이사



**한국의**

**대콜롬비아 공공외교**







손혜현

한국의국어대학교 객원교수

## 한국과 콜롬비아의 “잘 통하는 관계”의 기반

### 최

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소통과 공감이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않고 잘 통합’, ‘뜻이 통하여 서로 오해가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소통의 영어 단어인 communication의 어원은 ‘공유한다’는 뜻의 라틴어 ‘communicare’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소통은 어떠한 공통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공감함으로써 서로 잘 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서도 점차 커지고 있다. 세계가 급속한 세계화와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글로벌 이슈의 부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가 복잡하게 얽힌 초연결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국가들 간의 협력과 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고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한 국가의 이미지나 평판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되면서 비국가 행위자의 외교적 영향력이 커졌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타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준은 바로 ‘연결성(connectedness)’이다. 즉 이제는 다양하고 많은 국제관계 행위자와 잘 연결된 국가가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성’은 국내외 대중과의 소통외교를 통해서 내 편을 많이 만들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통의 목적이 ‘잘 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공통의 경험’과 ‘감정적 공감’이 필수 조건이라면 중남미에서 콜롬비아만큼 우리와 잘 통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우선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5천 명이 넘는 병력과 군함을 파견했던 국가이다.

콜롬비아인들은 ‘자유’, ‘민주주의’, ‘평화’라는 신념과 가치를 위해 싸운 ‘한국전’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나라가 세계의 성공적인 발전모델로 칭송받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들은 한국을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그리고 한국이 콜롬비아 참전용사들 및 후손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보훈 사업에 감동한다. 따라서 콜롬비아에서 한국전 참전 경험과 참전용사의 존재는 양국관계를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다.

콜롬비아는 문화 및 무역 관련 협정의 체결과 갱신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지지하고 표를 던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한국을 각별한 우방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콜롬비아에서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으로 선정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 밖에도 한국과 콜롬비아는 세계정치구조에서 중견국의 범주에 속하며, 양국 모두식민 지배, 탈식민화 과정, 권위주의 지배, 민주화, 내전, 미국에 대한 높은 안보 의존도 등 역사적 발전과정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공통점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소통과 공감하기 쉬운 관계임을 의미한다.

이 글은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대콜롬비아 공공외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대콜롬비아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의 공공외교의 역사적 발전과 새로운 방향성

오늘날 외교에서 소프트파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공외교는 타국의 국민들이 자국의 국가적 목표와 외교 정책 그리고 가치, 제도, 문화를 지지 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외교적 행위를 의미한다. 강제나 보상이 아닌



매력을 통해 자국이 원하는 바를 상대가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공공외교의 목표이다.

공공외교는 종종 국가 이미지 창출과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매력과 이미지 창출 자체가 공공외교의 목적은 아니다. 그보다는 타국의 대중과 소통하여 얻어낸 호감과 공감을 소프트파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하고 우리의 안보 또는 경제정책 등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공공외교가 전통적 외교와 구별되는 점은 외교의 대상이 타국 정부가 아닌 타국의 국민들이라는 점과 외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하드파워 외교의 한계,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영향력 증가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있다. 세계화는 테러, 금융위기, 환경, 인권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초국적 문제들을 만들어냈다. 초국적 문제들은 소수 강대국이나 전통적인 국가행위자들만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게 됐다.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게 됐고, 하드파워 능력이 부족한 중견국에게도 국제적 의제를 설정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비국가 행위자들의 힘까지 동원해야 하는 총력전이 됐다. 민주주의의 확산은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내정치 과정이 중요해졌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 SNS 같은 정보기술(IT)의 발달과 확산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시민들간의 소통이 활발해졌다. 개인이 정보의 생산자와 보급자가 되면서 한 국가의 이미지와 평판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일반대중의 영향력이 커졌다.

공공외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은 외교부가 2010년을 공공외교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존의 정부외교·경제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우리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학계를 중심으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권력의 변화와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정부도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2011년 공공외교 대사가 임명되고, 2012년에는 공공외교



정책과가 신설되어 공공외교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그리고 2016년 공공외교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외교예산도 2013년 60억에서 2020년에는 321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국민과 함께, 세계화 소통하는 매력 한국”이라는 공공외교의 비전이 제시됐다. 갈수록 공공외교에서 국민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교에서 내국과의 쌍방향 소통과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외교’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공공외교에서 비정부행위자 즉 국민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됐다.

최근 국민들의 공공외교 역할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공공외교는 여전히 정부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외교위원회는 외교부장관 소속이고 구성원도 주로 주요 정부 부처이고, 공공외교의 추진기관은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다. 그 밖에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등 공공외교의 최전선에 정부기관들이 포진돼 있다.

9·11 발발 직후 미국에 대한 세계의 오해와 증오에 놀란 미국 정부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한 이유가 타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세계가 미국의 입장과 정책의 정당성을 알게 되면 미국에 대한 호감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은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 문제는 정보에 대한 노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통의 방식이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21세기의 신공공외교에서는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대화의 소재를 찾아서 상호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

즉 자국중심에서 벗어나 타국 국민들의 견해와 여론을 잘 듣고 분석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추구하는 공공외교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공공외교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를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경제 규모 10위, 글로벌 소프트웨어 11위 그리고 블룸버그혁신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국



제사회에서 위상과 영향력이 증가했고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의 수준 또한 달라졌다. 이제 한국도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외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주도권은 인류가 당면한 공동의 보편적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국가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 콜롬비아외교는 한국이 질적 도약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한국의 대콜롬비아 공공외교의 특징과 진화과정

###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

한국과 콜롬비아의 정부차원에서의 문화관계는 1967년 문화, 교육, 과학, 체육, 예술 및 문학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화협정의 체결로 시작했다. 이후 양국의 문화와 교육관계는 동협정을 사회적 현실에 맞게 갱신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분야에 집중됐다. 그리고 외교부는 2011년부터 콜롬비아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3개의 조직이 출범했다. 첫 번째 조직은 ‘참전용사 후손회’로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참전용사들의 후손들과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650명 정도의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있으나, 대부분 80대 이상의 고령이라 그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참전에 대한 기억도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원, 한국방문,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파, 한인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은 한국전쟁이라는 양국 공통의 경험을 젊은 세대들과 유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외교의 기반을 젊은층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참전용사의 후손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군장성, 정치인 등 주류층 인사가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참전용사 후손들과의 연계 강화는 공공외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사업에는 포스코, 대우, 삼성 등 민간 기업들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조직은 콜롬비아 한국학회로 한국에 대한 학술연구와 한국과의 학술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창설됐다. 콜롬비아는 한국학 학자가 한 명도 없는 불모지였으나, 창



립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학회가 개최되면서 한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확산됐다. 학회에서 한국대학의 연사들이 한국의 교육모델을 소개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도 전시됐다. 뿐만 아니라 신진연구자 경진대회, ‘한국어를 말합시다’과정, 참전용사 자녀 및 손자/손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기업이 제공하는 장학금 홍보, ‘콜롬비아의 한국인 그리고 한국의 콜롬비아인 웹사이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술교류와 한국어교육을 촉진했다. 대사관과 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협력단이 재정 후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학회에 2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세 번째 조직은 2013년에 창설된 한국문화친선협회로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문화 및 사회관계 강화에 관심이 있는 콜롬비아의 문화계·예술계, 학계, 정·재계, 언론계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며 한국문화행사의 확산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문화친선협회는 라미로 오소리오 폰세카(Ramiro Osorio Fonseca) 전 문화장관을 초대 회장으로, 엘비라 꾸에르보데 하라미요 전문문화장관 및 모니카 하트만 Casa Grau 미술관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년 임기의 이사진에 안드레스 보테로 체육청장(IOC 위원), 미겔 두란 전 주한대사 등 콜롬비아 문화·예술·체육계 대표인사 9명이 지명되었다. 한국문화친선협회는 2013년 주콜롬비아한국대사관 및 대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발레극장 발표회와 대한민국 미식전을 주최했다.

그 밖에도 2011년 주콜롬비아 한국대사관의 노력으로 한국의 아리랑TV와 콜롬비아의 카라콜TV(Caracol)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국 다큐멘터리 및 드라마가 콜롬비아에서 방영될 수 있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정보통신과학기술을 사용하여 교수법 및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콜롬비아의 교육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한국의 교육방송(EBS)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교육방송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EBS와 콜롬비아의 교육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밖에도 한국 대사관은 한국영화 확산을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후원으로 '신세대 한국 영화' 영화제(Ciclo de Cine Coreano)를 콜롬비아 5개 도시(Bogota, Pereira, Barranquilla, Bucaramanga, Medellin)를 순회하며 상영하였고, 상영 직후에는 한국 영화에 대한 감상 및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함으로써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2012년에는 한국 정부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대중화를 위해 전 세계에 세종학당의 수를 늘리면서 콜롬비아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세종학당이 보고타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세종학당은 모든 수준의 한국어 과정뿐만 아니라 케이팝, 태권도, 김치담그기, 전통 악기 연주 및 전통 가락 전수 등 다양한 문화체험 수업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발전의 급성장을 통해 콜롬비아가 이룩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심층 토론회도 진행했다. 세종학당이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콜롬비아사람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수강생도 2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학생 수는 512명으로 늘었고, 문화강좌에는 연간 1천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폭증했다. 한국어 및 한국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 경제, 사회, 문화 등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로까지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다.

지난 10년간 콜롬비아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는 한국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한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었다. 이제 콜롬비아에서 한류는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됐다. 한국학이 생소했던 대학에서는 한국의 날이 제정되고(하베리나대학교, 8월3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 한식 시식회, 한국 영화 시사회, 태권도 시범, 한글 쓰기 강습, 한국 공예품 및 사진 전시회, 한국의 발전 경험 소개, 한-콜롬비아 관계 발전 소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기념하여 지난 4월 19일 보고타 국제도서전에 “공존”주제로 한 주빈국관이 설치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전시와 문학 행사, 공연, 영화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사람들, 국가간, 인간과 자연 간 공존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스페인어로 번역·출간된 한국 그림책이 전시됐고, 오징어 게임의 구슬체험관, 한복체험관, 전통놀이관 그리고 은희경과 이수지 작가 등의 북토크 행사는 연일 만석을 기록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콜롬비아 여성 독자들은 수신





지 작가의 고부갈등을 그린 '며느라기'와 낙태문제를 다룬 '곤'에 깊은 공감을 표출했다. 문학이 한국과 콜롬비아의 대중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민간주도의 공공외교

2011년 이후 한국정부는 한국의 이미지 개선 및 국가 인지도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경제 규모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었고, 삼성, LG, 현대와 기아와 같은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국가브랜드 보다 비교적 높게 평가됐다. 이러한 이유로 콜롬비아에서는 '한국'과 '한국기업들'이 비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인기와 충성심을 국가의 이미지와 인지도 개선에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삼성, LG, 현대·기아와 '한국'이 동조화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기업들이 현지 소비자를 공략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K-pop의 '쿨코리아' 이미지와 '한국 교육의 성공'을 벤치마킹한 정보통신기술교육 지원을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했다. LG전자는 2011년부터 2013년 동안 콜롬비아 민영방송인 카라콜(Caracol TV)과 손잡고 "K-pop by LG" 경연대회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방송채널을 만들어 휴대폰과 태블릿용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K-pop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삼성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정보통신기술 및 교육을 연결하여 기술혁신분야의 최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수업, 청소년들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길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내일을 위한 해결(Solve For Tomorrow)', 젊은 기술자 양성을 위한 '삼성기술학원',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진행했다.

삼성의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한국은 기술과 교육 분야에서 본받을만한 모범 국가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삼성의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삼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마케팅전략이었으나, 한국의 이미지 개선 및 '기술과 교육'선진





국이라는 국가브랜드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포스코-대우 역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기술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직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콜롬비아에서 현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한국기업들의 전략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발신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문화와 교육이 활동의 목표인 기업도 있다. "JM Productions"는 K-pop과 관련된 행사를 조직하고 홍보하기 위해 한국인이 설립한 회사로 남미 최대 페스티벌인 이벤트 340(Evento340)에 유키즈(U-Kiss)를 초청하여 콜롬비아에서 처음으로 K-pop 공연을 펼쳤다. 5만 명의 관객이 몰리고 수많은 방송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할 정도로 K-pop에 대한 콜롬비아 대중들의 열기와 반응은 뜨거웠다. 이 공연을 계기로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도 K-pop 공연이 열렸고, 아시아와 유럽에 국한됐던 한류열풍이 중남미로 확산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콜롬비아 한류팬들의 요청으로 "JM Productions"는 2011년 아시아 문화 센터 "BeSeTo(베이징, 서울, 도쿄로)"를 설립하고, 한국어, 중국어 및 일본어 어학 수업, K-pop 수업, 요리수업을 제공하고 한국 음식 및 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K-pop 전파에 있어서는 세종학당 보다 더 효과적이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대콜롬비아 공공외교의 중요한 행위자로 2011년부터 매년 ‘한·콜롬비아 우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전 참전용사 및 후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6.25전쟁의 경험을 공유하고, K-pop 공연 및 한국 음식 나눔 행사도 개최한다. 이러한 행사는 콜롬비아인들과 한국인들이 직접 소통함으로써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콜롬비아인들이 한국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한국인들은 주류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 밖에도 한국 내 기업, 대학, 개인 차원의 공공외교도 주목할만하다. 지난 2021년 이반 두케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콜롬비아 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양국 상공회의소가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협



력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대학의 공공외교활동도 활발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계명대학교의 국외봉사단은 콜롬비아로 봉사활동을 나섰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대학은 로스안데스 대학 및 호르헤 타데오 로자노 대학에서 타악콘서트와 전통연희 공연을 선보였다.

## 보훈 공공외교

보훈 외교는 한국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한국전 참전용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공헌에 보답함으로써 해당국가와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외교 행위를 의미한다. 콜롬비아는 수교도 체결하지 않았던 1951년 5,314명의 군병력과 프리킧함 1척을 한국전쟁에 파견했다. 전쟁에서 213명의 콜롬비아 군인들이 사망했고 56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0명이 실종됐다.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은 650여 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80대 이상의 초고령이기 때문에 참전국 및 참전용사와의 후호관계를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보훈외교는 대상을 참전용사에서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확대하고 있다.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정책은 해당국가 국민들과 정서적 공감형성 및 협력적 외교관계의 기반을 공고화 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표현과 보답은 상대국 국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은혜에 보답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을 확보하는 외교적 효과가 있다. 참전용사 및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방문 사업의 경우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한국의 대외이미지 개선에 기여한다.

현재 보훈외교는 국가보훈처 내 전담부서인 국제협력관이 보훈 사업 및 국제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 사업은 크게 유엔 참전용사와와 유가족 방한 초청사업, 유엔참전용사 현지 위로 및 감사 행사, 유엔참전용사 후손 초청 평화캠프, 참전용사 후손 국내외 장학금 지원 및 영계금 지원 등이 있다. 국가보훈처의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으로 2019년까지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 238명이 한국을 방문했고, 유엔참전용사 후손 초청 청소년 평화캠프에 87명의 콜롬비아 참전용사 후손이 참가했으며, 참전용사 후손(초,중,고) 국외 장학금 사업으로 200 여명의 콜롬비



아 후손이 장학금(1인당 월 3만원)을 지급 받았다.

우리 정부는 2014년 한국 해군 최초로 초계함급 군함인 안양함을 그리고 2020년에는 익산함을 콜롬비아에 무상 양도해 주었다. 2016년 보고타에 재활병원인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를 그리고 2017년엔 한인회가 제공한 부지에 참전용사 우호회관을 건립했다. 그리고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참전용사 생존자 400명의 집으로 마스크, 생필품, 영양제, 상품권들을 담은 상자를 배송했다. 특히 콜롬비아 육군이 배송작업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이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콜롬비아 장병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에 참전한 16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참전용사 후손회가 결성된 나라로 한국참전용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계승함으로써 콜롬비아와의 미래지향적인 보훈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콜롬비아에는 참전용사회, 참전용사 후손회, 장교회, 사병회 그리고 미망인회 등이 결성돼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콜롬비아의 국방참모대학교에는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한국전 참전기념탑이 있다. 탑의 전면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콜롬비아군에게 드림’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리고 국방대 중심부에 한국정부가 기증한 석가탑 모양의 참전기념탑이 있다. 한국전 참전 70년이 지났으나, 콜롬비아인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전의 의미를 기념한다. 3월 불모고지전투 기념식, 6월 기념식, 10월 금성전투 기념식, 11월 파병 기념식 등 공식행사만 1년에 4차례나 열리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중 2명이 국방장관을 역임했고 여러 명이 참모총장을 지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콜롬비아 사회의 여론주도층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참전용사를 친한파로 만드는 보훈외교는 콜롬비아 사회의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보훈외교는 정부만이 주체가 아니다, 민간차원에서는 보훈외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삼성, LG, LIG, 케이홀딩스, 대진건설, 보령제약 등이 참전용사 및 후손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콜롬비아참전용사 후손의 유학을 지원하고



있고, 순천향대학교는 국내 유망중인 콜롬비아 참전용사 후손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했다. 그리고 콜롬비아 주재 한인회와 한국 기업들도 참전용사와 후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의 보훈사업은 정부주도의 정책홍보와 일방적인 소통에서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전달함으로써 기존 정부차원의 보훈외교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정책에 공감하는 적극적인 지지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귀중한 외교적 자산인 참전용사 네트워크를 관리 유지하는 사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대콜롬비아 공공외교의 과제

한국의 대콜롬비아 공공외교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 한국학 전공자의 불모지였던 콜롬비아에서 한국학 세미나가 연례 행사로 개최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콜롬비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이 개최됐다. K-pop의 열풍으로 콜롬비아 어린 소녀들의 생일파티에서 한국어 노래가 불리고, K-pop 스타를 마중나온 수많은 인파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는 풍경은 콜롬비아에서 이제 낯설지 않게 됐다. 가장 인기 있는 K-pop 그룹인 BTS의 콜롬비아 팬클럽에 등록된 회원 수가 3만 명을 넘는다.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k-pop은 소비자를 매혹하는 필수적인 마케팅 수단이 됐다.

콜롬비아 전체에 걸쳐 확대되는 한류열풍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한국의 국가 위상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여 콜롬비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공공외교의 자원이 지나치게 한류에 편중돼 있는 현상은 공공외교의 활동이 지나치게 매력 어필과 이미지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사서 우리의 국익 실현에 유리한 외교적 환경을 만드는데 있으며, 매력 어필과 이미지 개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현재는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지만, 한류의 인기가 영원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시들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과 콜롬비아의 관계를 혈맹과 형제의 특수 관계로 결속시키는 한국전 참전 경험과 참전용사의 존재 역시 영원하지 않다. 참전용사들의 초고령화로 생존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속력이 약화 될 우려가 있다. 참전용사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콜롬비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삼성의 휴대폰, LG의 가전제품, 현대와 기아의 상품들은 한국의 기술 수준에 대한 콜롬비아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한국의 이미지와 호감도 증진에 크게 기여 한다. 그러나 콜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며, 장기 투자에 인색하다. 그리고 한국과 콜롬비아간 불균등한 교역구조는 한국을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시킬 가능성도 있다.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협력모델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한국-콜롬비아 관계를 위한 한국의 대콜롬비아 공공외교의 방향성은 한류, 한국전 참전용사,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 첨단기술, 초일류기업 등의 한국이 가진 소프트파워를 한국을 홍보하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활동에 과도하게 집중하기 보다는 양국이 당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된 외교환경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상대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의 입장만 주장하고, 나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려는 자기중심의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리고 국가 중심성에서도 벗어나 더 많은 민간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과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즉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업과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잘 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기술이다.





**콜롬비아와 한국 :**

**공공, 문화, 전략 외교의 역사**





## 마우리시오 하라미요 하시르 Mauricio Jaramillo Jassir

로사리오(Rosario)대학 부교수

### 공

공외교는 콜롬비아 대외정책의 오랜 염원이라 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1990년대 초부터 문화와, 대외 통상, 환경, 평화보다는 경제 개방 과정에 집중했다고 여겨진다. 상당 수의 문헌이 이 시기를 경제·금융 개방과 같은 세계화의 초기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은 국가가 다양한 분야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콜롬비아의 외교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장을 통해 콜롬비아와 한국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정확히는 공공외교, 창조 및 혁신 산업 전략의 도입과 관련하여 양국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관계를 심화했다. 첫째,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이고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다. 둘째, 콜롬비아는 ‘지속 가능한 현대화 이룩’이라는 목적 하에 한국형 발전·혁신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현대 세계에서의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한국의 혁신, 문화 산업과 유치정책 관련 전략을 모방 중이다.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의 세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콜롬비아 대외정책의 핵심 단계에서의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와 아시아·태평양 및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위한 공공외교정책의 구체화를 다루고, 이후 근래 양국 관계 긴밀화 및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Acuerdo Estratégico de Cooperación)’ 수



립을 가능하게 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정리와 함께 미래 지향적인 도전과제를 다룬다.

## 콜롬비아의 공공외교,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진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콜롬비아 대외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는 최근 콜롬비아 외교사의 핵심적인 두 시기에 이뤄졌다. 첫 번째 시기에는 세계를 향한 더욱 균형 잡힌 외교정책의 필요성이 명확히 대두된 바, 특히 외교 정책이 미국과 같은 이웃 국가와의 대외 관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시기이다. 콜롬비아와 한국간 첫 번째 주요 연결고리는 전쟁 기간 동안의 지원이었다. 이는 콜롬비아가 ‘respite polum’ 독트린<sup>1</sup> (Tokatlian y Cardona, 1991.05.19)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노선과 결을 같이한 결과물이며, 콜롬비아의 자유 세계 수호 및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이라는 정책이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50년 UN에서 마리아노 오스피나(Mariano Ospina)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고 라우레아노 고메스(Laureano Gómez)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며 구체화되었다. 동 파병으로 인해 131명의 콜롬비아 국민이 희생되었다(Barbosa, 2011: 30).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콜롬비아는 다자주의를 표방하며 1949년 미주기구(OAS)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전쟁 파병을 통해 콜롬비아는 국제 무대에 편입되었으며 냉전시기에는 미국과의 노선 일치와 함께 진정한 권리 수호, 라틴아메리카 대외정책의 우수성 관련 길잡이 등의 역할을 이행하였다.

대외정책이 활발하던 이 시기에 공공외교만을 생각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정책 수행은 이미지 개선을 통한 국가의 영향력 제고라는 목표 하에 이뤄졌다고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다극화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냉전시기(양극 구조)와 같이 강대국간의 균형에 따른 질서가 아닌 다수 국가 간 세력 분배의 개념이며 이중에서 특히 핵심적인 것은 한국 등 중진국 또는 강대국의 출현 및 재등장이다.

1 마르코 피델 수아레스 (Marco Fidel Suárez, 1918-1921)가 주창한 친 북측 독트린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정책을 수반하였다.





아울러, 냉전시기 동안 미국의 지정학적 정책 하에 있던 콜롬비아는 역내 및 기타 지역에서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공공외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후 두 번째 시기는 벨리사리오 베탄쿠르(Belisario Betancourt) 대통령(1982-1986)과 비르힐리오 바르코(Virgilio Barco) 대통령(1986-1990) 재임기이자 글로벌화의 전조 시기이다. 두 행정부 동안 콜롬비아는 국외 진출을 위한 대외정책이 집중된 카리브 지역과 냉담으로 일관하였던 태평양 지역 간 명백한 불균형에 대해 숙고하였다. 콜롬비아의 공공외교 주요 원칙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각령(제 40호, 1983)이 베탄쿠르 대통령의 지지와 함께 승인되었고 이를 통해 문화 및 과학 협정 진전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부문에서의 국가의 통합적 이미지 해외 홍보를 위한 첫 번째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때부터 콜롬비아는 과거의 마약 붐과 카르텔로 인해 폭력과 전쟁, 마약이 연상되는 국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대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왔다. 베탄쿠르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르코 대통령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발전에 힘썼다.

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바르코 대통령 행정부에선 외교부 내 지역 담당 부서를 설립하였으며 이중 한 부서가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업무를 수행하였다(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olombia, 2014: 25). 이후 세사르 가비리아(César Gaviria) 정부는 태평양에 위치한 바이아 말라가(Bahía Málaga)에 해군 기지를 구축했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위원회(PECC)와 태평양 경제 협의회(PBEC)에 가입했다(Barbosa, 2011: 3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역 외 기타 부문에서도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환경부와 대외교역부처도 신설되었다. 동 부처들은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컨센서스(교토 프로토콜, 기후변화 당사국 협의회(COP),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발을 맞추고, 국가브랜드라는 국제 사회 편입 전략 수립 등과 같은 문화외교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브랜드의 경우 통상관광부 산하 프로콜롬비아(Procolombia, 전신은 프로엑스포트, Proexport)가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콜롬비아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외국인투자유치, 관광, 국제 협력 부문에서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콜롬비아의 공공외교는 80-90년대 폭력과 마약밀매로 점철되었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세계화 맥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구축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 왔다. 특히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세 요소로 설명된다. 첫째는 문화와 기술 부문에서의 전략을 바탕으로 한 세계 편입 및 혁신 관련 한국형 모델을 모방하고자 하는 콜롬비아의 열망이다. 둘째는 한국이 80년대부터 콜롬비아의 국익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 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입로라는 점이다. 셋째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이념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및 서구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Roldán Pérez y Vieira Posada, 2015: 35).

## FTA, 문화외교, 창조산업

2011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정부(2010-2018)가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Acuuerdo Estratégico de Cooperación)’를 수립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당시 콜롬비아는 빈곤을 극복하며 중위 소득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으며(한국 정부, 2017: 2) ‘한국의 경제 기적’이라는 불리는, 한국이 70년만에 이룩한 사회 발전을 모방하였다.

한국의 공공외교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및 유치정책 우수성에 재벌과 경제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공공외교의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긴 하지만(Hernández Umaña; Rosado Salgado 2010: 37), 이러한 기업이 정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높은 혁신 수준과 기업의 사회 복지 기여는 콜롬비아가 지향해야 하는 모델로 여겨진다. 콜롬비아 내에서 이러한 대기업들의 매력은 경제, 행정,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관련 논문 수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Lozano Montoya, 2021; Prada Villalobos, 2014; Andrade Tovar y Pérez Álvarez, 2012; Pedraza Moreno,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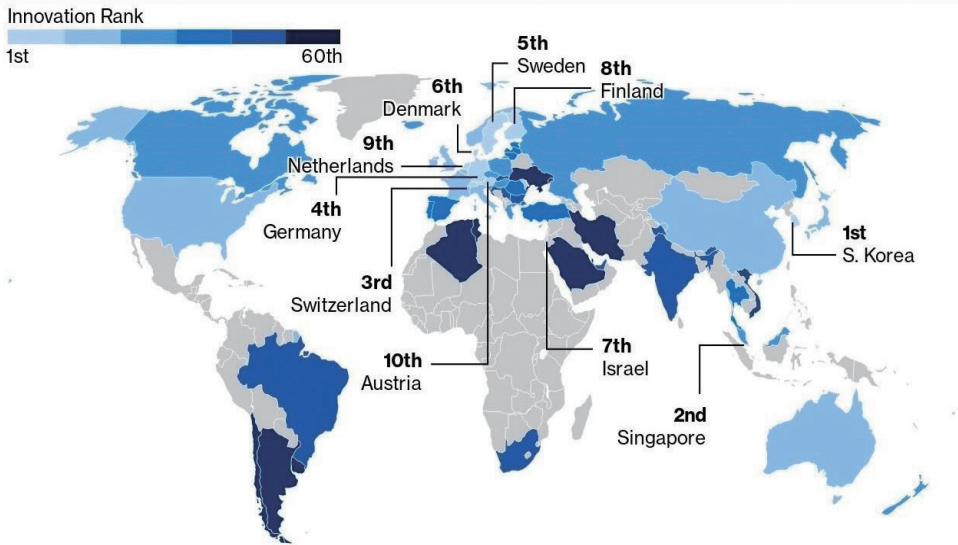
콜롬비아는 국가브랜드 전략 및 문화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한국의 인상적인 발전 양상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 혁신 분야에서 단행된 높은 수준의 투자를 일례로 들 수 있다. 한국은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1년 혁신 지수’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9년간 7개 분야에



서 선두를 달리며 혁신이라는 부문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예시가 되었다. 동 지수는 R&D 투자, 제조업 역량, 기업의 첨단기술 집중도를 평가한다(Bloomberg, 2021.02.02.).

## World's 60 Most Innovative Economies

South Korea, Singapore and Switzerland lead the index in 2021



Sources: Bloomberg,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Bloomberg**

출처: Bloomberg.

링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2-03/south-korea-leads-world-in-innovation-u-s-drops-out-of-top-10>

콜롬비아의 유치 정책 수립에 있어 한국은 혁신뿐만 아니라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동일시하여 하나의 카테고리리로 분류하는 것이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한국의 문화적 저력과 세계적인 영향력은 주목할 만하다. 한류는 90년대에 시작되어 문화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상당한 영향력을 키워왔으며 최근 그 성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화계의 선



구자적 작품인 김기덕 감독의 작품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03년작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흥행하여 널리 이름을 알렸고 BBC 선정 100대 21세기 영화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BBC Culture, 2016.08.19). 이후 2019년 ‘기생충’의 등장 및 오스카 작품상 수상으로 한국 문화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한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는 음악장르 K-POP으로 인해 더욱 힘을 얻었으며, 이제 한국은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TV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다. 시리즈와 드라마 붐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는 두말 할 것 없이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이다. 동 시리즈는 온라인 플랫폼 재생 횟수뿐만 아니라 관련 동영상 바이럴 흥행에도 성공하였고 틱톡(TikTok)에도 관련 숏폼 영상들이 등장했다. #SquidGame 태그를 단 관련 영상은 약 140억 건에 달한다 (Vineyard, 2021.09.29).

콜롬비아 정부는 ‘오렌지경제’라는 이름으로 문화·창조 산업을 추진하는 등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동 산업의 국가GDP 기여도도 확실히 커지고 있다. 콜롬비아는 2018년, 오렌지경제 및 창조산업 관련 부처를 창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발전해 온 문화산업, 공공외교, 국가브랜드 세 분야의 결합을 꾀하고 있다.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이는 한국형 모델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콜롬비아와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가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긴밀해지는 기반이 되었다. 양국의 연결고리는 1990년도 콜롬비아의 개방 시작 시점부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기존에 콜롬비아는 교역 개방에 치중했으나, 공공외교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한국형 모델은 큰 귀감이 되었다. 2000년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Acuerdo Estratégico de Cooperación)’ 수립, 2013년의 FTA체결 이후 양국의 관계는 더욱 심화되었고 콜롬비아의 문화·창조 산업의 확장을 위한 한국형 모델 벤치마킹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 수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향력에



는 양국 간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콜롬비아의 시급한 도전과제 중 하나는 오렌지 경제 재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지속이 필수이며, 공공외교의 혁신적인 추진과 한국형 모델의 활용을 통해 문화, 혁신, 대외정책을 성공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콜롬비아의

시청각 산업



## 클라우디아 트리ানা 소토

Claudia Triana Soto

콜롬비아 프로이마헤네스 이사

# 지

난 60년 동안 콜롬비아와 한국의 영화계 사이에는 많은 연결점이 다수 존재했다. 이 관계는 심도 있는 조사를 할 가치가 분명히 있으며 두 나라의 영화 산업의 최근 발전을 고려할 때 서로의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 나아가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관계는 영화 산업의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고 문화 교류를 확대할 지속적인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콜롬비아 센트랄(Central) 대학교의 씨네 클럽(Cine Club)과 주 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 덕분에 보고타에서 여러 회의 한국영화제가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상영은 봉준호 감독의 '괴물',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같은 영화들의 성공가도를 확실히 열어주었다. 여기에 덧붙여 K-pop 그룹 BTS는 대안 전시로써 콜롬비아에서 영화관 콘서트로 흥행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제55회 카르타헤나 국제영화제 - FICCI에서 최근 서거한 김기덕 감독의 존재와 감성의 마스터 클래스를 포함하며 기념한 회고전은 절대 잊을 수 없다. 즉, 콜롬비아의 관객들이 한국 영화에 무관심한 것이 아닐뿐더러 한국도 콜롬비아 영화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5년에 콜롬비아 영사관은 콜롬비아의 해외진출 계획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대사



관에서 안드레스 부르고스의 “소피아와 고집 센 남편”, 로베르토 플로레스의 “반딧불이 잡기”, 시로 게라 “바람의 여정”, 레이 삭비니의 “아코디언의 여정” 등의 영화를 상영했다. 이로써 앞으로 있을 콜롬비아 영화 산업을 기대하게 한다.

2016년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콜롬비아 영화진흥기구(Proimagenes Colombia)의 성원에 힘입어 특별전 ‘칼리그룹: 현대 콜롬비아 영화의 뿌리’를 통해 1970년대부터 당시까지 콜롬비아 영화의 현대사를 취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 8편의 장편과 6편의 단편을 상영하였다. 박진 기획 담당자는 더 나아가 회고록을 집필하였고 이는 영어와 한국어로 출판되었다. 한국의 대표 영화제에서 콜롬비아 영화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인지(recognition)는 감독 루이스 오스피나(Luis Ospina)와 오스카 루이스 나비아(Oscar Ruiz Navia), 호르헤 나바스(Jorge Navas)가 참석하였고 각각 그들의 영화 ‘에피파니아(Epifanía)’와 ‘핏빛의 밤에 비가 내린다(La sangre y la lluvia)’를 선보였다. 부산 영화제가 계속 되어 2019년에는 니콜라스 린콘 기예(Nicolás Rincón Guillé)의 ‘망자의 계곡(Tantas almas)’이 후보로 지명되었고, 2021년에는 태국 영화감독 아피차퐁 위라세타쿨(Apichatpong Weerasethakul)과 콜롬비아 공동 제작 작품인 ‘메모리아(Memoria)’가 상영되었다.

그러나, 콜롬비아와 한국 영화 사이의 연결고리는 극장 개봉과 축제에서의 상영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콜롬비아에서는 김성제 연출인 한국의 유명 배우 송중기와 콜롬비아 여배우 후아나 델 리오 등이 주연을 맡은 1990년대 배경의 스릴러 '보고타'의 촬영이 마무리됐다. 이 영화는 보고타와 카르타헤나에서 콜롬비아 회사인 재규어 바이트(Jaguar Bite)의 영화제작사 하에 60명 이상의 한국인이 참가한 가운데 촬영되었고, 콜롬비아 영화진흥기구 Proimagenes 와 콜롬비아 수출관광해외투자진흥청(ProColombia),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이 함께 하고 한국상공회의소가 참여한 덕분에 가능했다. 이 작품의 초연을 손 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산업의 발전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세계가 비극적인 펜데믹에 대해 해답을 찾고 있었고 모든 국면에서 수많은 문화적 계획들이 이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2020년 중반으로 돌아가야 한다. 콜롬비아는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일(work), 서비스, 촬영 및 사후 제작의 매력적인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스페인-남





미 시청각 인센티브 모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개시하고 있었다.<sup>1</sup>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7년 이래로, 그리고 특히나 이번 세기에, 콜롬비아는 엄청난 모험을 하였고, 문화와 창의성의 사회적인 효과 및 정부 간 및 시민 의제의 중심에 단계적으로 위치하는 문화 정책의 날카로운 비전이었다. 이는 지정학적, 부문간 또는 경제적 관점과 일치하여 인류의 발전과 공존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들 한다. 콜롬비아의 시청각 부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 고결하고 가속화된 시스템의 구축이 세속적이었다고 한다면, 결과는 일종의 자극과 부문별 조직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떠한 대단한 영화와 유사하다. 콜롬비아 내 해당 분야에서 가장 큰 4대 산업 중 투자, 고용, 생산, 서비스 등의 여러 지표에서도 볼 수 있으며 효율성의 참고 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

콜롬비아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문학에 있어 상징적인 인물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가 “나는 항상 영화를 좋아했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은 영화 뿐이었다. 나는 어떤 학교에서도 문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나는 스페인어 문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다. 나는 귀로 글을 쓴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 영화 수업을 들었다…”라고 말했을 만큼 수많은 역설과 신비한 현실주의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뱀의 포옹’  
(Proimagenes Colombia 제공)  
2016년 해외 영화  
취우수상 Oscar 상 수상.

1 2019년 법률 1955호와 2020년 법령 제474호, 이는 콜롬비아 내에서 제작 및 사후 제작 작업을 수행하는 제작사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총 규모 2억 7200만 달러에 달하는 44개의 영화, 시리즈, 리얼리티 시리즈 및 기타 콘텐츠 프로젝트의 투자를 획득하였다.



콜롬비아의 시청각 발전과 관련된 것 또는 국가의 문화 생태계를 보다 광범위하게 언급하기 위해서는 국가 특징 중 일부 또한 참고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다섯 번째로 큰 영토로(1.142.000 km<sup>2</sup>) 아마존 생태계의 약 40%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5천만) 3위이며, GDP는 남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이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3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OECD<sup>2</sup> 가입국이다. OECD의 회원국은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있어서 으뜸이며 이러한 부분은 국제관계선택권의 등록에서 촉진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통합 시청각 정책의 역사가 통합되기 시작한 이후(1997년 현재까지) 짧은 기간 동안,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의 4대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는 출판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문화 생산 수출에 있어 선진국 중 하나이다. 또한, 문화 전통, 음악, 전통이 다양한 국가임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아프리카 후손 11%와 원주민 4.4%이 포함된 근본적으로 혼혈인 인구의 DNA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절 일어난 문화적 약탈 이후 살아남은 65개 언어가 존재하는 다문화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또한 인구의 42.5%가 빈곤층이 되는데 원인인 사회 구조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심지어 통신, 교육 또는 문화 분야에서도 소득 분배와 기회 접근에 있어 현저한 격차가 있다. 또한 주요 도시 외 국토 내의 갈등과 배제의 역사,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더해진 베네수엘라 난민(단 3년 만에 약 200만 명)과 2.200km가 넘는 국경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국가 전체가 비상 상태이다. 하루하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히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콜롬비아 사회의 문화 전략은 중남미 지역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사회-정치적인 다양한 세계와 개념 사이를 이동해 왔다. 그러나 1991년, 중요한 정치적, 이념적 합의와 오랜 사회적 요구의 결과로 새로운 헌법의 승인과 함께, 다양성, 다문화주의, 문화 시민권, 문화적 권리의 발달, 시민 참여와 문화 생활에 대한 자극에 의한 국가 개입의 개념이 유난히 널리 퍼졌다.



다양성의 개념에서 새로운 차원의 문화 정책, 이 분야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및 사업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시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신중하다. 문화, 문화의 문제, 표현, 가치 사슬, 지역 사회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인식에서 점차적으로 구별되는 정책은 문화 기관, 예술가 및 관리자의 관심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및 기술, 무역, 공존, 사회 발전, 경제성장, 고용, 혁신, 국민 계정, 기억, 예술 분야의 즉각적이고 활동적인 관계망이다. 물론 평화를 추구하거나 사회적 불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내놓을 수 없다.

금세기 마지막 몇 년간 문화환경의 생활과 가치는 GDP의 3%에 가까운 기여를 하였다. 심지어 현 정부의 국가발전계획에서도 지속적인 조치와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 계정 부가가치의 5.1%까지 늘리기를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촉진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는 초월적 차원의 도전; 시청각적인 것이 선봉인 목표인 평화와 공존을 위한 대안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및 훨씬 더 깊고 이질적인 상황에서, 콜롬비아가 오늘날 만족스럽게 보호하고 보여주는 시청각 정책 또는 시스템이 표현된다. 시청각적으로 해설된 콘텐츠의 수요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세계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도 그러하다.

이 시스템은 국제 영화 촬영, 여러 플랫폼용 시리즈, 지역 예술, 기술 및 물류 서비스를 커버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3억 4천 7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시스템이며, 영화관에 420개(2004년~2021년)의 국가 장편 영화가 존재하고, 이 모든 숫자 뒤에는 인간이라는 가치, 문화유산, 전해지는 살아있는 기억, 작품 성장, 성장에 대한 예술적 훈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일러준다.

## 콜롬비아 국가 전략에서의 시청각 부문

미주 개발 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라틴 아메리카에 시청각 제작을 위해 약 57억 달러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150만 개 이상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Cesar Acevedo 감독의 '대지와 그늘' 촬영 현장 (Proimagenes Colombia 제공)

시청각 창작산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각국이 제작한 작품 수 뿐만 아니라 조직적 창작 활동의 핵심에 주목하는 것, 기업, 기술, 학교, 인프라, 예술, 글쓰기, 서비스, 무역, 국제 대화, 유통되는 작품에 대한 대중의 감상과 토론, 동영상 또는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와의 접촉 등을 의미한다.

비록 이러한 예시가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콜롬비아에서 시청각 정책의 포괄적인 관점은 1997년 문화법과 2003년 영화법의 발행과 함께 시작되었고, 정부 기관과 시민 사회가 방해받지 않으면서 유지하고 강화해 온 중요한 도구와 행동 세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이야기도 대본 없이, 과거 혹은 어떤 시발점 없이 등장하지 않는다. 움직이는 그림 이야기에 매료된 세계의 위대한 콘서트에서, 1897년, 바이타스코프가 콜롬비아에 처음으로 도착했고 그 불안한 형태의 신과 악마들을 보여주었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정치지도자의 암살을 그린 무성영화이자 첫 국립작품인 'El drama del 15 de octubre'(1915)는 며칠간의 촬영을 위해 임시적으로 출소한 암살자 본인들이 작품에서 연기했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었다. 'Maria'(1922)는 픽션 장르에서의, 'Flores del Valle'(1937)는 음성 지원이 가능한 첫번째 작품이었다.





20세기 중반,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황금기를 동경한 콜롬비아 정부는 “영화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하는 법을 제정했다. 역설적으로 영화관 입장권은 약 40%의 세금과 영화 제작을 위한 국가 자금을 부담했는데, 이는 낮은 예산과 높은 금리와 부채로 인해 일시적으로 민간·신용·가족의 노력으로 예술적 방식으로 진행된 것일 뿐이었다.

1978년과 1993년 사이에만 영화 제작자와 금융 신용 시스템의 공동 제작자로 활동했던 FOCINE를(Compañía de Fomento Cinematográfico, 영화진흥공사) 통해 시행된 영화에 대한 국가 지원 모델이 존재하였지만 이는 결국 제작사와 정부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세금 부담이 국민과 지역 제작자들에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다른 감세 계획들은 영화 제작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1915년에서 2002년 사이에 270편의 국립 장편 영화가 개봉되었다 (연평균 3편). 이 중에는 칸 영화제 공선 작품인 빅토르 가비리아(Víctor Gaviria) 감독의 ‘로드리고 D: 미래 없이(Rodrigo D. No Futuro)’와 ‘장미 파는 소녀(La vendedora de rosas)’



작품 “Rodrigo D. No future” (Proimagenes Colombia 제공)



가 포함되고, 이 이외에도 프란시스코 노르덴(Francisco Norden) 감독 작품 ‘원칙의 사나이(Cóndores no entierran todos los días)’, ‘Las murallas de Cartagena’, ‘La leyenda de El Dorado’, ‘Arte Tairona’ 그리고 호르헤 알리 트리아나(Jorge Alí Triana) 감독의 ‘오이디프스(Edipo alcalde)’ 및 시로 두란(Ciro Durán) 감독의 ‘가민(Gamin)’ 등의 작품이 상영되었다.

2003년까지 4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1천 2백여 개의 지방 자치 단체로, 영화관의 수는 약 3백 개에 달했고 관객 수는 겨우 1천 7백만 명에 이르렀다. 1954년 국내 텔레비전 도래 50년 후, 콜롬비아는 가장 중요한 경제 대기업의 손에 두 개의 민간방송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미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국제적인 제휴를 맺고 있었고, 스페인-중남미, 더 나아가 때로는 전세계적인 청중들에게 환영받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다. 오늘날 콜롬비아는 다른 민간방송사를 가지고 있고, 전국 공영 텔레비전, 30개의 지역 및 지역 채널들이 그것을 보완하고 있으며, 조금씩 그리고 국가 예산의 변동에 따라, 자체 프로그램의 질과 영향에서 진보하고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티나 가예고, 시로 게라, 안토니오 볼리바르, 브리온 데이비스 (EFE 제공)



## 선명한 변화

콜롬비아 시청각 역사에서 일어난 극단적인 변화는 도구, 사례, 자극, 부문간 활동, 개척정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동시에 암울하면서도 환상적인 삶과 인생, 역사, 국가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콜롬비아 사람들의 갈망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봐도 무방하다.<sup>3</sup>

2003년 영화법<sup>4</sup>은 국제 영화의 전시 및 배급자와 콜롬비아 장편 영화의 제작자의 수입에 기초하여 전체 부문의 가치 사슬에 대한 자금 조달과 관심을 위한 메커니즘인 영화 개발 기금(FDC)을 세웠다.

2004년과 (FDC가 이미 진행 중이었을 때) 2022년 사이에 현 환율<sup>5</sup>로 계산한 7,200만 달러를 모았으며, 이는 시청각 생활의 영역 중 지역 특집 영화 및 단편 영화 제작, 각본, 영화제 작품 참여 및 유통, 전문 교육 과정, 시청각 유산 보존 등에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영화법은 지역 영화 프로젝트에 금전적 자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법인은 그들의 소득세로부터 영화에 부여된 가치의 165%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금 우대 조치를 제정하였다.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증권을 부여하는 이 메커니즘에 따라 같은 기간 9,300만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이 이뤄져 이 분야를 매력적인 투자 시나리오로 보는 기업과 개인의 관심을 끌었다.

FDC와 앞서 언급한 세금 인센티브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 2004년에서 2021년 사이에 420편의 국가 장편 영화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극장에서 개봉되었다 (이전 87년 동안 270편만 개봉되었음을 기억하라), 그 중 50% 이상은 다른 국가와 공동 제작하였고 그 중 일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하거나 지명되었다<sup>6</sup>.

3 카스테야노스 V. 곤살로. 콜롬비아의 영화산업, 산업의 발자취를 따라, 2014, 이코노 출판사 - 프로이마헤네스

4 2003년 법령 제814호

5 현재 달러당 3,759 달러의 비율로 콜롬비아 페소 2,700 억 달러

6 레이디(2014), 시몬 메사, 황금종려상, 칸 영화제 공식 단편 경쟁 부문. 지구와 그림자(2015), 세사르 아세베도, 황금 카메라, 장편 영화 공식 선정, 비평가 주간, 칸 영화제. 뱀의 포옹(2015), 시로 게라, 아트 시네마, 감독 주간, 칸 영화제. 2016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예수 죽이기(2017), 로라 모라, 에로스키 청년상, 산세바스티안 페스티벌. 원숭이들(2019), 알레한드로 란데스,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너와 기적들 사이에서 (2020), 마리야나 사폰, 베니스 영화제 최고의 단편 영화, 오리손테스 섹션. 우리는 잊혀질 거야(2020), 페르난도 트루에바, 칸 영화제 오피셜 셀렉션 및 최고의 이베로 아메리칸 영화, 고야 어워드. 알리스





세사르 아우구스토 아세베도는 2015년 칸느 영화제에서 장편 데뷔작인 땅과 그림자로 *Caméra d' Or*를 수상했다. (EFE 제공).

이 목적을 구축하고 조정하는 데 몇 가지 전제가 필수적이었다: 첫째로 영화 문화 산업이 가치 사슬이기에, 다른 것에 비용(예를 들어 전시세)을 부과하여 특정 연결(예: 현지 제작)을 강화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불가능하다는 이해이다. 모든 기획은 모든 참여자에 대한 부하, 기여 및 인센티브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했고 이는 선행과정에도 마찬가지로였으며 대중에게 더 높은 티켓 가격을 부과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가격을 낮추어 달성되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영화에 대한 자금 조달은 영화 자체에서 얻어졌다. 대중에게 공개된 극장 공연으로 인해 발생한 업계, 전시업체, 배급사 및 제작자 수입의 일정 비율이 영화 개발 기금(FDC)을 충당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법령이 업계 환경을 변형시키지 않기 위해 그 당시에 티켓에 존재했던 국세를 제외시켰다.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세

(2022), 클레어 바이스코프 및 니콜라스 폰 헤멜릭, 최고의 크리스탈 베어,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베를린 국제 영화제, 베를린.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 “캘리 그룹: 콜롬비아 영화의 뿌리”(2016).





금, 지불 및 거래를 통해 국민계정(GDP에서의 대표성)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전 메커니즘의 건전한 성과로 인해, 또한 국가를 시청각 작품의 무대로 보아, 2012년에 콜롬비아 영화 기금(FFC)의 설립과 함께 촬영법<sup>7</sup>이 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현지 및 해외 제작, 우선으로 영화, 그리고 콜롬비아산 예술, 기술 또는 물류 서비스를 고용하는 모든 시청각 유형(시리즈, 리얼리티 쇼, 비디오 클립 등)은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공부에 위치한 이 기금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국내 서비스를 계약하여 스태프의 경쟁력과 경험을 크게 향상시킨 37개 프로젝트가 제작의 모든 과정에 있어 미화 7,5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음 단계는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국가 개발 계획<sup>8</sup>에도 포함된 지역 서비스를 고용하는 해외 사업을 위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사회 및 경제 공공 정책의 계획된 비전, 주식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조세 법인의 발행과 연관되어 있고 투자 가치<sup>9</sup>의 35%를 대표하는 메커니즘을 위한 것이다. 이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44개의 영화 및 멀티플랫폼 프로젝트의 미화 2억 7,200만 달러를 투자금의 승인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지역 호텔, 음식 및 운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술적, 기술적 인적 능력과 연관이 있다.

## 민관협력의 공동행동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시청각 창작 산업의 발전을 자체적으로 촉진할 수 없다. 이 사회 경제적 가치 사슬이 마주하는 다른 경우에 대한 또다른 대응 및 도구와의 연결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재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금 감면 수단을 통한 공공 노력

7 2012년 제1556번 법.

8 2019년 법 제1955번.

9 시청각 부문 투자 증명서 (CINA).



에서 중요한 사회 경제적 승수 요소가 배치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영화법이 개정되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7년간 영화관, 영세·중소 창작기업(제작사, 후제작사, 콘텐츠 제작, 지식재산)의 티켓(부가가치세, 공연세)의 세금 부담이 제거되었고 소득세의 전면 감면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영화 전시 부문은 2003년 이전에 300개 미만의 스크린에서 2021년에는 1,224개 스크린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역사적 수준인 7,300만 명의 관객을 유치했다. 한편, 국가 수도인 보고타 D.C.에 등록된 시청각 회사는 같은 해에 20,000개를 넘어섰고 영화, 비디오, 프로그램, 광고 및 텔레비전 광고, 시청각 제작 및 광고의 제작, 후제작, 배포 및 전시 활동에서 약 4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영화 원숭이들. (제공: Proimages 콜롬비아)

시청각 분야의 문화 시설(스튜디오, 제작 센터, 장소 등)도 특별 대우를 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도시 공간에서에서의 문화적 소명에 따라 소위 주황 개발 구역으로 불리는 지역은 자금 조달에 동의하는 납세자가 그러한



자금<sup>10</sup>으로 소득세의 최대 50%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 취업 비자, 수입 관세 철폐, 자재 및 장비의 긴급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 관세 처리 또는 촬영 작업을 위해 수입된 제품의 신속한 재수출은 콜롬비아가 시청각 사업에 있어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서 설계된 도구의 일부이다. 이 작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 수많은 제도, 규정, 계획 또는 국가 및 지역 역량 프로세스를 일례로 국가 시청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이는 문화,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 시청각 가치 사슬 구조의 요소를 개발, 보존 및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이는 사회와 관련된 정체성, 기억 및 인간 문화적 권리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개입의 분야를 정의하고, 생산, 유통 및 전파 사슬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 또는 시청각 분야의 내부 교환 및 외부 교환의 관계에 있어 존재하는 불균형을 피하거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한다.

이 전체적인 접근 방식은 문화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문화부는 인증, 인센티브 전달, 모니터링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일련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국가 및 시청각 사슬의 모든 사회 부문이 참여하는 공공 정책 자문 기관인 국립 영화 예술 문화 위원회(CNACC), FDC 자원 총장, 콜롬비아 영화 진흥 위원회(CPFC), 이미 언급된 FFC 및 CINA 시스템의 총장을 포함하여 여기에는 상무부, 산업 관광부, 문화부, 투자 및 수출 촉진 기구인 프로콜롬비아와 시민 사회 대표가 있는 제작 분야가 참여한다.

또한, 추진, 자금 조달 및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정보 통신 기술부, 영화 위원회 및 경제 활성화 및 공공 장소 사용 촉진을 위한 자체적 도구를 보유하는 지역의 시장들, 국방부, 국세 및 관세청과 같은 부문이 참여하며 국방을 포함한 모든 공공 기관이 시청각 부문을 지원하고, 자산 및 위치 사용을 허가하고, 촬영 활동 과정에 있어 항상 복잡하고 시급한 모든 역학 및 요구 사항을 용이하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지침을 동반하는 국가 원수<sup>11</sup> 또한 직접 참여한다.

10 2021년 제2155번 법. 세금으로 인한 사업.

11 국방부; 2021년 영구지침 제8호.



## 프로이마헤네스(Proimágenes) - 24년

민관 연합의 관점에서, 이 놀라운 문화산업의 발전 모델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키고 성찰하기 위해 1998년에 공동 영화 진흥 기금 “Proimágenes Colombia”가 만들어졌다. 교육부, 정보통신기술부, 문화부,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Colciencias(과학, 기술 및 연구 진흥 기관), 국세 및 관세국, 국제 영화 배급자 협회, Cine Colombia(국내 최대 전시 및 배급 회사), 콜롬비아 영화 유산 재단 및 제작자, 감독, 아카데미 및 기술자 등의 시민 사회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비영리 기업 또는 싱크 탱크로 운영되는 이 기관에서 언급된<sup>12</sup> 모든 법적, 규제적, 재정적 및 정치적 도구를 일치할 수 있게 되었다. Proimágenes는 FDC, FFC 및 CINA 시스템을 관리하는 동시에 비자 절차 및 시청각 수입에 대한 국가 영화 위원회 및 인증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행동의 모자이크(전략적 비전으로서의 시청각 개발)는 우리가 국가, 사람, 노동 조합, 또는 조직된 커뮤니티를 시청각 국가 등으로 부르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구조에 대해 행동, 작업, 옹호 및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시청각 분야의 리스크는 무엇일까? 새로운 요구 사항과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 미래와 산업에 대한 비전은 무엇일까? 시청각 부문의 각 분야에 대한 기대치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및 시민적 제안의 피드백의 일부이다.

콜롬비아는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과 소비 습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포지셔닝하는 것에 적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열이 없는 국가에 우리 자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러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12 2007년 경제 및 사회 정책 문서(CONPES)(영화) 및 2010년의 3659 (문화 산업); 국가 개발 계획 2018 - 2022.



## 참고문헌

- 알보르노스, 루이스 A. 및 마리아 트리니다드 가르시아 레이바.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국내에서의 경험 및 유럽, 아메리카 및 아시아의 지역적 다양성. 라 크루히아 출판사, 부에노스 아이레스, 2012.
- 카스테야노스 V., 곤살로. 콜롬비아 영화산업, 산업의 발자취를 따라. 이코노 출판사, 프로이마헤네스, 보고타, 2014
- 카스테야노스 V., 곤살로.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유산, 통합 및 개발. 경제문화기금, 보고타, 2010.
- 가레톤, 마누엘 안토니오, 헤수스 마르틴-바르베로, 마르셀로, 카보로찌,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과달루페 루이스, 히메네스 및 로돌포 스타벤하겐. 라틴 아메리카 문화 공간: 문화 통합 정책의 기반. 안드레스 베요 협정, 경제 문화 기금, 칠레 산티아고, 2003.
- 이글레시아스 곤살레스, 레오나르도. 현대 문화와 가치. 안트로포스 출판사, 바르셀로나, 2007.
- 클릭스버그, 베르나르도. 경제 발전과 변화를 위한 국가 재설계, 전략적 의제. BID 연구 문서.
- 콜롬비아 영화 유산 재단. 영화 및 비디오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장편 영화. 콜롬비아 영화 유산 재단, 보고타, 2005.
- 가르시아 마르케스, 가브리엘. 축복받은 세는 습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스크립트 워크샵, 쿠바 산 안토니오 데 로스 바뇨스 영화 및 텔레비전 국제학교, 데볼시오, 2003.
- 리포베츠키 길레스, 세로이 진, 세계의 화면, 하이퍼모던 시대의 미디어 문화와 영화, 아나그라마, 2009.
- 문화부, 움직이는 프로이마헤네스,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영화산업: 콜롬비아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산업. 제작 및 마케팅 경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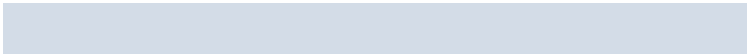
부. 보고타, 2004.

니에토, 호르헤 및 디에고 로하스. 올림피아의 시간. 콜롬비아 영화 유산 재단, 보고타, 1992.

센, 아마르티아 및 베르나르도 클릭스버그. 사람이 우선이다. 개발 윤리에서 세계화 된 세계의 주요 문제에 대한 살펴보기. 데우스 토, 마드리드, 2007.

시빌라 파울라, 친밀감을 공연으로, 경제문화기금, 2008.

솔라나스, 페르난도 E. 및 옥타비오 헤티노. 영화, 문화 및 탈식민지화. 21세기, 부에노스 아이레스, 1979.





# 미래협력분야





## 제7부

# 과학·기술·혁신·환경· 지속가능성



### 한국-콜롬비아 그린경제 협력방향과 이슈

하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연구교수

### 건강기능식품산업

### 한국-콜롬비아 협력방안

최수영 · 코스맥스엔비티(주) 수석연구원·부장



### 한국의 경제 사례

세사르 페라리 (César Ferrari)  
콜롬비아 공화국 대통령실 경제 고문



## 한국-콜롬비아 그린경제

### 협력방향과 이슈



##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연구교수

### 2023 콜롬비아 경제 전망

#### 코

로나 시대를 탈출하면서 2022년 현재 많은 국제경제 학자들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2023년에 콜롬비아는 최근 팬데믹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세계적 공급망 경제위기(인플레이션)에서 회복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삼중과제(Triple Task)’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과 6월 대선을 맞아 새롭게 등장하는 신정부도 이러한 긴급한 과제 해결은 중요하며 콜롬비아 경제회복과 미래 발전은 물론, 직면한 다양한 정치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해 신정부로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전망하고 있다.

물론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들도 불구하고 많은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이미 OECD 회원국인 콜롬비아(2018년 5월 3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를 대상으로 2022년 2월 OECD의 분석에 의하면 콜롬비아는 2022년 말까지 GDP의 5.5% 그리고 2023년에는 3% 정도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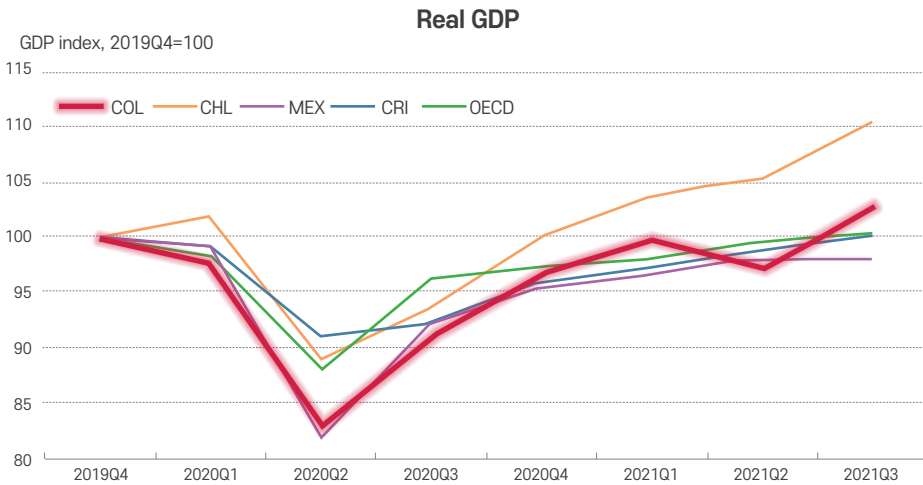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3번째 규모의 인구 규모를 가진 콜롬비아의 경우 내수 소비에 기반해 이러한 성장은 견인될 것이며, 특히 팬데믹 이후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가를 통해 이러한 긍정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이웃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율이 상당히 증가해 있으며 특히 콜롬비아의 원유 및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은 GDP 성



장에 긍정적이다.

콜롬비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 예를 들어 신규 FTA 추진은 당분간 중단되어 있지만(내수시장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견지), 이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EU, 한국 등과 맺은 17개의 경제 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가입한 태평양동맹(PA; 멕시코, 칠레, 페루)의 회원국으로서 역내 경제 블록을 디딤돌로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해 무역선의 다변화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 및 수출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도모한다는 무역 전략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1 콜롬비아 GDP 성장 전망(2022년, 2019년 4분기=100 기준)



출처: 2022년 2월 OECD 전망<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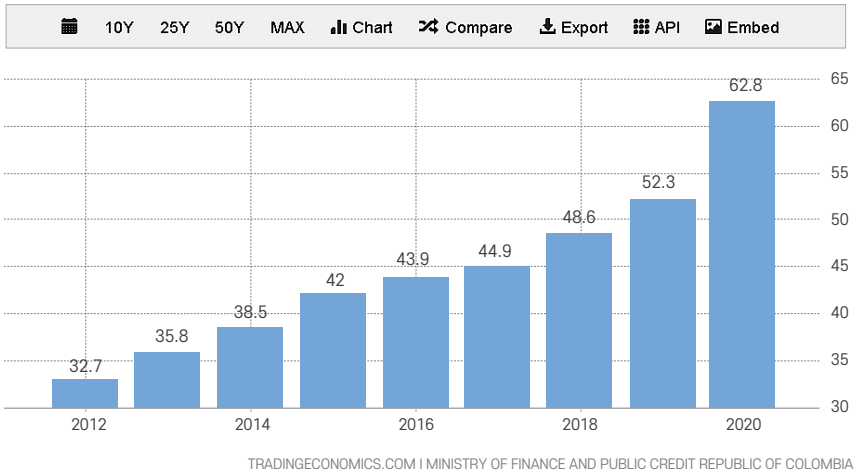
2022년 동안 콜롬비아 정부는 긴급 재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회적 안정을 유도해 오고 있다. 물론 재정 지출 감소 부문은 2023년에 강화 예정인 점진적 재정 조정을 통해 보전해 간다는 계획을 시행 중이다. 최근 재정 개혁을 통해 이러한 조정의 근거가 마련되고 있으며 거의 60%

1 <https://www.oecd.org/economy/colombia-economic-snapshot/>



를 상회하는 공공부채는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2022년 명목 GDP 성장으로 더 감소 예정)<sup>2</sup>

그림 2 콜롬비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2012-2020)



출처: 콜롬비아 공공신용 재정부 2021.

글로벌 위기인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경제회복 전망은 그동안 콜롬비아 정부의 시장 친화적 경제성장 정책들의 노력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18년 하반기 출범한 이반 두케 정부의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발전 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교통·인프라 개선 국가 프로젝트 이행과 고용 창출 정책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콜롬비아의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통신, 의료관광, 전력, 섬유·의류,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들을 기간산업으로 육성 추진한다는 국가 전략과 더불어, ICT 기술과 문화산업 콘텐츠를 융합하는 ‘오렌지 경제(Economía Naranja)’ 정책을 중점으로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온 덕분이다.<sup>3</sup>

2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colombia-budget-outperforms-post-election-prospects-less-clear-08-02-2022>

3 ‘오렌지 경제’란 지적 재산권이 확보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창조성이 핵심인 산업을 뜻하며, 건축, 시각 예술, 공예품, 영화, 디자인, 패션, 출판, R&D, 음악,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광고 등이 해당된다(외교부 콜롬비아 개황 2021년 판 참고).



이러한 단기 및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미래를 위한 약속(Compromisos para el Futuro de Colombia)’이라는 경제발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공공투자의 강화 및 1백만 개에 달하는 고용 창출을 설정하기도 했다.<sup>4</sup> 이러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ICT 분야를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히 지속 가능한 그린 경제 성장을 강화해 간다는 전략이었다. 예를 들어 그린 성장(Crecimiento Limpio) 전략으로 콜롬비아는 현재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과 완화 정책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 확대, 기후변화 적응 강화, 환경자원 보존, 불법 자원 채굴 방지, 유해 물질 규제 그리고 순환 경제 실현 등을 목표로 다양한 그린경제 국가 전략을 전개해 오고 있다(예를 들어 수소에너지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략과 시설 투자 및 전력 공급 송전망 인프라 건설 등). 물론 이러한 그린경제로의 국가 전략 실현의 중심에는 콜롬비아 정부가 제시해 오고 있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 특히 글로벌 아젠다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병행해 추진되어 오고 있다.

## 콜롬비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적응과 완화 전략

2020년 UNFCCC에 보고된 콜롬비아의 NDC는 온실가스 배출 완화, 기후 변화 적응, 저탄소 정책 및 기후 회복력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단기 및 중장기 국가발전 과정에 기후변화 이슈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기후 행동에 대한 프로세스를 통합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 예를 들어 빈곤과 불평등 감소, 인권 강화, 고용 창출, 양성평등, 기후변화로부터 취약한 인구(인종) 보호, 정책 이행 과정에서 거버넌스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적응(Adaptación) 전략

여타 이웃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적응 전략은 콜롬비아 NDC에서 중요하다.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에 따르면, 콜롬비아 전체 영토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

4 <https://compromisorcolombia.gov.co/>



한 위험 상태에 직면해 있지만, 특히 안데스와 카리브해 지역의 생물학적,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은 특히 높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콜롬비아는 NDC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전략들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표 1** 콜롬비아 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우선 순위

- 1)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가 지침 및 도구의 통합
- 2) 수자원 보호 및 보존 조치 (낮은 강우량을 보이는 지자체/수로 공급)
- 3) 2030년까지 건기 및 우기로 인한 물 부족에 대한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지자체 30%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위험관리 방법 개발
- 4) 2030년까지 폐수 처리량 68% 달성
- 5) 2030년까지 생활 폐수 10% 재사용
- 6)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민감한 질병 사례 감축
- 7) 공공 의료 40% → 기후변화 관련 사건에 대한 적응 조치 시행
- 8) 2025년까지 탄화수소, 석탄 채굴, 전력 부문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 분석
- 9) 2025년까지 기후변화 위험 요소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특히 에너지 부문)
- 10) 전략적 차원의 환경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에너지 부문 기업이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예를 들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최소 10%가 산업, 통상, 관광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 이행)

이에 더하여 운송 인프라 부분을 개선, 농업 부문에서 적응 조치 이행(예를 들어, 콜롬비아 주요 10가지 농작물 - 쌀, 옥수수, 감자, 쇠고기, 유제품, 사탕수수, 코코아, 바나나, 커피, 등 -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농업 생산 잠재력이 큰 안데스, 카리브 및 오리노키아(Orinoquía) 지역의 농업 활동 보호, 2030년까지 ‘국가 기후변화정보시스템(SNICC)’과 연계된 모니터링 및 평가 기관 마련, 콜롬비아의 총 135개의 수자원 유역 관리, 황무지의 이용 제한과 보호, 생태계 분석 능력 향상, 국립공원 보호구역(18,000헥타르 증가), 2030년까지 조기 경보 시스템 모니터링 비율(24% → 35%) 향상 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분야들을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배출량 완화(Mitigación) 전략**

콜롬비아의 완화 전략 우선순위는 콜롬비아의 각 정부 부처에 모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가장 획기적인 전략은 탄소세 및 탄소 중립세 도입에 관한 개혁적 내용을 포함하는 2018년 기후변화법(ley 1931 de cambio climático)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하여 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률(2014), 대기질에 대한 법령(1972), 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령, 삼림 벌채 방지 및 생태계를 보존하는 등 제도를 통한 미래 그린경제로 발전

해 간다는 전략을 수립해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들을 활용해 2050년까지 콜롬비아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sup>5</sup>

**표 2** 콜롬비아 정부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 완화 전략과 ‘약속(compromiso)’<sup>6</sup>

- 1)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51%로 감축
- 2) 2023년까지 탄소 예산제 (2020-2030) 구축
- 3) 2030년까지 2014년 수준 대비 ‘블랙 카본’ 배출량 40% 감축
- 4) 배출량 저감 범위 및 적용 분야: 경제의 모든 분야 포괄 / 온실가스에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플루오르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포함
- 5)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태양광·풍력 중심의 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
- 6) 2022년 청정에너지 수소생산, 수소 모빌리티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 개발
- 7)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콜롬비아 2020년 NDC에서 나타난 완화 전략은 2015년 제출한 배출량 감소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완화 노력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2030년까지 삼림 벌채 비율을 50,000ha/년 수준으로 줄이고자 하는 등 삼림보호 정책은 물론, 산불 관리를 통해서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관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는 ‘블랙 카본’ 관련 항목에서 콜롬비아의 대기질 악화의 원인이 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블랙 카본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채택하기도 했다.<sup>7</sup> 콜롬비아 정부는 또한 NDC에서 설정한 위와 같은 적응과 완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 및 관리 매커니즘을 제시한 바 있다: 1) 계획; 2) 교육과 훈련 및 인식 전환; 3) 정보 및 과학기술 및 혁신; 4) 금융 및 경제수단 마련; 5) 국가 역량 강화로 5가지 영역은 상호보완적으로, 그리고 실용적 접근 방식을 토대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위한 실현한다는 전략을 이행 중에 있다.

5 출처: NDC de COLOMBIA(ACTUALIZACIÓN 2020 Versión para Consulta Pública Octubre 5 de 2020), Bogotá Colombia, pp. 50-51.  
6 ‘Compromiso por el Futuro de Colombia’, Duque, 20/08/2020 참고.  
7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Colombia%20First/NDC%20actualizada%20de%20Colombia.pdf>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적응과 완화 전략

한국도 UNFCCC에 2015년 (INDC 제출), 2020년 배출량을 절대값 방식으로 수정한 NDC 보고서 제출 그리고 2021년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과 완화 전략과 이행 수단을 마련해 오고 있다.

### 배출량 완화(Mitigación) 전략

구체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727.6백만 톤) 대비 40% 감축(2030년 배출량 436.6백만 톤)을 목표로 1) 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 2) 전 부문의 가능한 역할을 최대한 동원; 3) 국내 감축 노력, 특히 기업을 포함한 사적 부문의 자발적 협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 전략’(2021-25)을 수립했으며, 1)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2) 감시 예측 및 평가 강화; 3) 적응 주류화 등의 구체적인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NDC의 이행체계로는 제도적 기반인 ‘탄소중립기본법’ 마련, ‘탄소중립위원회’ 설립 그리고 에너지·산업·수송·건물·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들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1)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2)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3)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4)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5)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완화 정책으로 등장했다. 이에 더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식 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재정 마련을 통해 NDC 이행을 현실화시킨다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 한국식 그린뉴딜 정책과 그린경제 전환

-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1)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도시숲 조성, 생태계 복원 등);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
-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1) 에너지 관리 효율화 및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2)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3) 전기



## 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3) 그리고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1)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업 조성; (2)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지원, 노후 전력 기자재의 재제조 기술 등 자원순환 촉진, 녹색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펀드(녹색금융) 조성 등의 구체적인 ‘그린경제’로의 전환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부문별 녹색고용 창출은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38만개);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확산(21만개);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6만개)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녹색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8</sup>

## 한국-콜롬비아 그린경제 국제협력 전망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이 팬데믹 국면을 벗어나면서 사회적 회복과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관점에서 ‘그린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글로벌 아젠다인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그린경제 투자 및 양국 간 국제협력은 가장 중요한 접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이 미래 발전 목표로 설정한 다양한 정책들과 대안은 대부분 그린경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협력 분야에 대한 고려는 협력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집중과 선택이 요구된다. 상호 협력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분야는 탄소저감 효과가 가장 큰 산업 분야인 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등) 분야이다. 물론 콜롬비아 적응 분야에 대해 고려한다면 다양한 그린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그린 교통, 스마트 상하수도 등)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수질 오염(도시 오폐수 처리 및 수질 관리 등) 제거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체계’ 협력도 우선시 되는 협력 분야이다.

8 [http://www.keei.re.kr/keei/download/KEIB\\_201202.pdf](http://www.keei.re.kr/keei/download/KEIB_201202.pdf)



또한 이러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라는 우선 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통신(ICT)분야 및 디지털 인프라 분야도 협력과 투자에서 동시에 고려해 진행되어야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디지털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2년까지 디지털 소외계층 제거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사회 70%가 초고속 인터넷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협력과 투자는 양국에 상당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조건이 우수한 콜롬비아의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개발은 한국의 우수한 수소 에너지 개발 기술과 접목해 양국의 그린경제 발전에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생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현재 이 분야에 특화해 바이오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구체적인 정책과 국가 전략(2021년)을 수립해 가고 있다. 과학, 기술 및 혁신(STI)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신약 등) 개발을 위한 바이오매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콜롬비아 정부의 특화된 그린경제 발전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과학기술혁신(STI)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과 투자의 증대이다. 특히 양국에서 STI 분야 인적 교류의 확대 및 증가는 미래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현재 실험하고 있는 탄소재정(탄소세) 및 탄소 금융(기금)에 대한 경험들을 교환하거나 새로운 재정과 금융 수단들을 활성화해 그린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실제 산업에 투자를 강화해 가는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과 투자는 반드시 ‘금융’ 협력과 함께 상호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9 <https://www.ksla.se/wp-content/uploads/2021/05/2021-06-08-Monica-Trujillo-Colombia-Bioeconomy-Strategy.pdf> 참고.





건강기능식품산업

한국-콜롬비아 협력방안



## 최수영

코스맥스엔비티(주) 수석연구원·부장

### 최

근 한국은 웰빙 (Well-being)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 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 2015년 3조였던 시장 규모가 2022년 현재, 6조원에 이를 정도로 2배 가까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TV홈쇼핑과 TV 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흔히 접할 정도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최소 한 두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매일 섭취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웰빙 (Well-being)이 아니라, 건강하게 늙길 원하는 웰-에이징 (Well-aging)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대두하였고,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건강기능식품이 커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을 정도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하루 일과의 한 부분으로 공고히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했다면, 이제는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할 때 미리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된 상황이다. 게다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피부의 주름이 덜 가게 한다거나, 탈모를 늦춘다거나, 기억력 감퇴를 지연시킨다거나, 노화로 감소되는 근육량과 근력을 개선시키는 것과 같이, 나이가 들더라도 보다 더 건강



하게 늘을 수 있도록, 의약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를 개선시켜주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일반식품 대기업들과 제약회사들마저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앞다퉈 뛰어들 정도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 정부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바이오산업에 포함시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좌우하는 “기능성 원료”이다. 의약품에서는 효능 (efficacy)으로 칭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구별하고자, 기능성 (functionality)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개발하여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업이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여 식약처로부터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 받은 원료를 “개별인정형 원료 (individually recognized ingredient)”라고 부르는데, 동일한 기능성을 소구하는 (claim) 건강기능식품들과 기능성 원료들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 소비자들은 쉽게 식상해지게 되었고, 그런 만큼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새로운 차별화된 원료들을 끊임 없이 개발하여,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허가 받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소구하는 기능성만큼, 다양한 기능성 원료들이 개발되어 왔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기업들은 차별화된 원료들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성 중에서도 체지방 감소, 피부 건강, 관절 건강 기능성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라, 해당 소재들의 종류도 가장 많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해당 기능성의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다.

차별화된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 내에서 기능성을 발휘하는 작용 메커니즘



이 경쟁 소재와 다른지, 효능이 경쟁 소재 대비 우수한지, 원료 가격이 경쟁 소재 대비 저렴한지, 일일 섭취량이 낮은지, 새로운 소재인지, 특허가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효능이 우수하면 원료 단가가 비싸거나 섭취량이 높거나 하는 식으로, 이들 차별화 포인트를 모두 충족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앞다퉀 신규 기능성 원료들을 개발하다 보니, 최근에는 새로운 원재료 (raw material)를 찾기 위해 한국만이 아닌, 해외로까지 범위를 넓혀 새로운 원재료들을 찾고 있으며, 그만큼 자생 식물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하기가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콜롬비아는 세계 2위의 자원 부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기능성 원료 개발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 협약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원재료를 제공하는 국가는 원료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가진 다양한 원재료들을 활용하여 타국가와 협력하여 신규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게 되면 콜롬비아에 매우 유용한 국가간 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과 콜롬비아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기능성 원료 개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의 3가지 중요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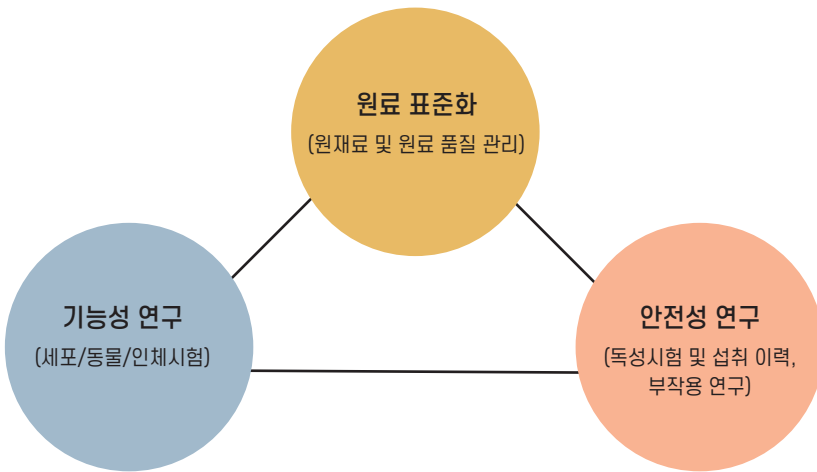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개발할 때에는 크게 3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이 3가지가 한국과 콜롬비아가 서로 협력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원료의 표준화” (standardization of the ingredient)로, 제조 단계에서의 원료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기능성 (functionality)인데, 이는 의약품 (medicine, drug)의 효능 (efficacy)을 의미하며, in vitro (인 비트로) 세포 (cell)와 in vivo (인 비보) 동물에서 원료의 효능을 연구하고, 분자 수준 (molecular level)에서 작용 메커니즘 (mechanism of action)을 규명하는 것 (verification)인데, 동물에서 효능이 확인되었을 경우, 인체적용시험 (clinical study) (의약품에서의 임상시험을 의미)을 통해 인체에서 최종적으로 효능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안전성 (safety)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GLP 기관을 통한 독성시험 (toxicity study)을 수행하여 독성 유무를 정밀하게 확인하거나, 인체 적용시험에서의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고, 실제 사람들이 그 원료를 장기간 섭취한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중요 포인트가 잘 연구되면,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과학적으로 잘 검증된 원료로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동물실험 검증 없이, 인체적용시험만으로 효능을 입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국의 식약처에서는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할 때,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작용 메커니즘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능성 원료를 허가할 때 동물실험을 반드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개발된 원료가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실험을 수행해야만 한다.

### 기능성 원료 개발의 세 가지 중요 포인트



이 세가지 중요 포인트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료의 표준화 부분에서는 원재료로부터 원료를 추출 (extraction)할 때, 열수 (hot water), 에탄올 (ethanol), 메탄올 (methanol), 헥산 (hexane), 에틸 아세테이트 (ethyl acetate) 등과 같은, 추출 용매 (extraction solvent)는 무엇을 사용했는





지가 중요하다. 추출 용매가 무엇이냐에 따라 원재료로부터 추출되는 성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독성과 같은 안전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며, 독성시험 유무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추출된 원료로, 항산화 (anti-oxidation)나 항염 (anti-inflammation) 효과와 같은 기본적인 효능 연구도 필요하다. 물론 항비만 (anti-obesity)과 같이, 여러 다양한 효능들에 대해 세포 수준 (cell level)에서라도 연구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추출된 원료가 어떠한 기능성이 있는지 최소한의 효능 연구 결과가 있어야만, 원료를 개발할 가치가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MTT assay와 같은 세포 독성 연구 (cell toxicity study)가 기본적으로 수행돼 있어야 하며, 원료의 표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추출된 원료에 함유된 지표성분 (marker compound)이나 유효성분 (active compound)들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표성분이나 유효성분은 HPLC나 GC 또는 LC/MS 등으로 분석이 가능해야 하며, 분석법이 AOAC나 CAC에 따른 방법이 아닐 경우에는 자체 분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validation)이 이루어져야만 분석법으로 공식 인정 받을 수 있다.

원료의 추출 방법과 성분들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었다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생산된 원료에서 일정하게 품질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실험실 수준에서 (Lab scale) 제조한 원료로 연구된 것으로는 원료가 표준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파일럿 수준 (Pilot scale)에서 일차 검증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량 생산 (Mass scale)된 원료로 지표성분의 함량과 수율 (yield)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와 효능이 동일하게 확인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대량 생산의 규모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출된 원료로서 대략 수백 kg에서 수톤 수준의 생산량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대량 생산의 검증은 최소 3 배치 (batch) 이상의 반복 생산을 통해 일관되게 생산되는지의 여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일관성을 보일 경우에는 원료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게 된다. 더불어, 실온과 가속 조건 하에서, 원료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정성 시험 (stability test)도 수행해야 한다. 보통 원료의 유통



기한은 2년 ~ 3년이기 때문에, 최소 2년 동안은 원료가 안정적으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안정성 시험을 통해 확인해야만 한다. 대량생산까지 원료의 생산 수율과 지표성분의 함량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안정성까지 입증되었다면, 원료의 표준화가 완성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원료의 기본적인 고려사항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 원료를 제안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연구를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연구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일차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 기능성 원료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

- 자생 식물 등 원재료의 리스트-업 (학명 기재)
- 식용 가능성 및 전통적 사용 이력 (생약 또는 식품)
- 추출 용매 종류 (열수, 주정 (에탄올), 메탄올, 헥산, 에틸 아세테이트 등)
- 기초적인 세포 효능 연구 (항산화, 항염 등)
- 세포 독성 연구
- 지표성분 또는 기능성분 확인
- 대량 재배/경작 가능성 (원재료의 양으로, 적어도 수십 ~ 수백톤)

그러면, 한국과 콜롬비아는 각각 어느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만약 콜롬비아 기업이 원재료를 공급하고, 한국 기업이 원재료를 공급 받아 원료를 생산하고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상황이라 가정해 보자.

우선 자원을 많이 보유한 콜롬비아에서는 원재료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콜롬비아에 자생하는 천연 식물 기반의 원재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원재료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때에는, 학명 (scientific name)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실제 식용 (섭취)이 가능한지와 전통적으로 약용으로 섭취했는지, 또는 식품으로 섭취했는지에 대한 이력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섭취해 왔을 경우에도, 원재료 자체로 섭취했는지, 차로 끓여 먹은 것인지, 술에 담귀 먹은 것인지, 먹었다면 어느 정



도의 양으로 먹었는지 g 단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더욱 좋고, 해외에서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으로 판매된 이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원료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원재료 단계에서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원재료의 모니터링 또는 표준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재료의 학명(scientific name)을 기반으로, 원재료의 유전 정보(genetic information)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DNA fingerprinting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유사종(similar species)들과 유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DNA sequence 정보를 기반으로, NCBI Genbank를 통한 DNA matching 정보 등, 원재료의 유전적 구별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추후에 원료가 다른 유사한 종들과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 한국의 식약처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원재료 재배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농약들의 잔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확 종에 이르는 잔류 농약들의 검출 여부나 중금속의 양, 특히 납, 카드뮴, 수은, 비소의 함량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낮은 수치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식물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또는 계절별로 기후에 따라 지표성분과 유효성분의 함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동안 계절별로 지표성분과 효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수이다. 몇몇 식물들의 경우에는 연도와 계절별로 기후의 영향이 커서, 지표성분 함량에 일관성이 없어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콜롬비아와 같은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4계절을 가진 한국과 같은 기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식물 추출물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개발할 경우에는 이러한 변수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같은 국가에서도 각 지역별로 원재료의 지표성분이나 유효성분의 함량이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지표성분의 함량을 HPLC나 GC, LC/MS 등으로 분석하여,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복병은 원재료의 대량 수급 가능성이다. 추후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할 정도로 잘 팔리는 원료의 경우에는 연간 수십 톤에서 수백 톤의 원재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원재료들을 대량으로 재배/경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즉,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판



매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원재료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매년 가격이 폭등하여 원료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원료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재료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격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원재료의 양을 확보해 둬으로써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일정한 양으로 원재료를 매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일정한 품질 및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원료의 수요가 폭증할 경우,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소량 생산만 가능한 원료는 기업들이 메리트(merit)가 낮은 소재라 판단하여 개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재료가 다양한 곳으로부터 쉽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 대량 공급을 보장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최근에는 농가와 기업을 연결해 주고 중간에서 원재료 공급을 관리해 주는 중간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이러한 계약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품질의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량 재배/경작 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계약 재배”도 가능할 것이다. 효능이 검증된 소재라 하더라도 희귀해서 대량 공급이 안될 경우에는 대량 재배를 통한 대량 공급 및 생산을 고려해야 하는데, 자연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의 경우에는 대량 재배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량 재배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원재료는 건조된(dried) 상태로 한국에 수입되는데, 수입 시에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와 식물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정보가 원재료를 공급하는 쪽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콜롬비아 기업은 건조된 원재료 상태로 한국 기업에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원료를 추출, 농축, 분말화하여 원료 표준화가 된 대량생산 원료를 한국 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다.



만약 콜롬비아 기업이 표준화된 원료 (standardized ingredient)를 한국 기업에 수출한다면, 한국 기업은 이 원료로 in vitro 세포 효능 평가 및 in vivo 동물실험을 통한 효능 평가를 하여 효능이 입증될 경우, 인체를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하게 된다.

#### 콜롬비아-한국의 기능성 원료 개발 협력 방안

##### ● 콜롬비아(원재료 단계)

- 원재료 표준화
- 유전자 분석 정보 (DNA fingerprinting) (유사원재료와의 유전적 차이 입증 필요)
- 잔류 농약,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비소) 함량 분석 결과
- 산지별, 계절별, 연도별 원재료의 지표성분 함량 차이 분석 연구 결과 (HPLC profile, LC/MS 등)
- 원재료의 가격 변화 모니터링 / 가격 관리
- 대량 재배/경작 방법 표준화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식물검역증 (Phytosanitarycertificate)

##### ● 한국(원료 단계)

- in vitro 세포 및 in vivo 동물실험을 통한 효능 연구 및 임상시험을 통한 효능 연구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GLP 기관에서의 독성시험
- 한국 식약처 (MFDS)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 허가 상업화 가능
- 미국 FDA로부터 신규 식이 원료 (NDI, New Dietary Ingredient)허가 미국시장 진출

또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GLP 기관에서 독성시험 (toxicity study)을 수행하여 독성이 없는 안전한 원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 식약처가 요구하는 독성시험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단회 투여 독성시험 (Single dose toxicity study)과 4주 용량 결정 시험 (Four-week dose range finding toxicity study), 13주 반복 투여 독성시험 (13-week repeated dose toxicity study), 유전 독성시험 3종 (Reverse mutation genotoxicity study, Chromosome aberration genotoxicity study, Micronucleus genotoxicity study)이다. 비글견 (Beagle dog)과 같은 비설치류 동물을 대상으로 한 단회 투여 독성시험은 선택사항으로,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인체에서의 효능과 독성시험을 통한 안전성이 입증되면, 한국은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 (individually recognized ingredient)”로 불리는 기능성 원료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게 되면,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식약처의 기능성 원료 허가 심사가 워낙 까다롭고 엄격하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 호주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는 추세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용 이력이 거의 없는 원료의 경우에는, 안전성 (safety)에 대한 과학적 자료들을 미국 FDA에 제출하여, NDI (New Dietary Ingredient)나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허가 받고 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 콜롬비아 기업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는 서로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겠지만, 무엇보다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원료를 판매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콜롬비아 기업이 원재료 대량 공급부터 원료 제조 및 연구까지 모두 완료한 뒤에 한국 기업에 제안 및 수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감당해야 할 연구비와 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원료의 효능 및 독성 연구, 완제품 생산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원재료와 원료의 제조 및 공급을, 한국이 원료의 효능 및 독성 연구, 완제품 생산을 나누어 맡아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아니면, 양국이 처음부터 원료 개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연구 단계부터 협력할 수도 있다. 가령, 인체적용시험에서 대상자의 모집이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에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상대 국가는 동물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고, 연구 디자인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되,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서 모든 연구를 전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연구에 대해 양국이 연구비를 공동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즘은 해외 기업들과 연구비를 공동 분담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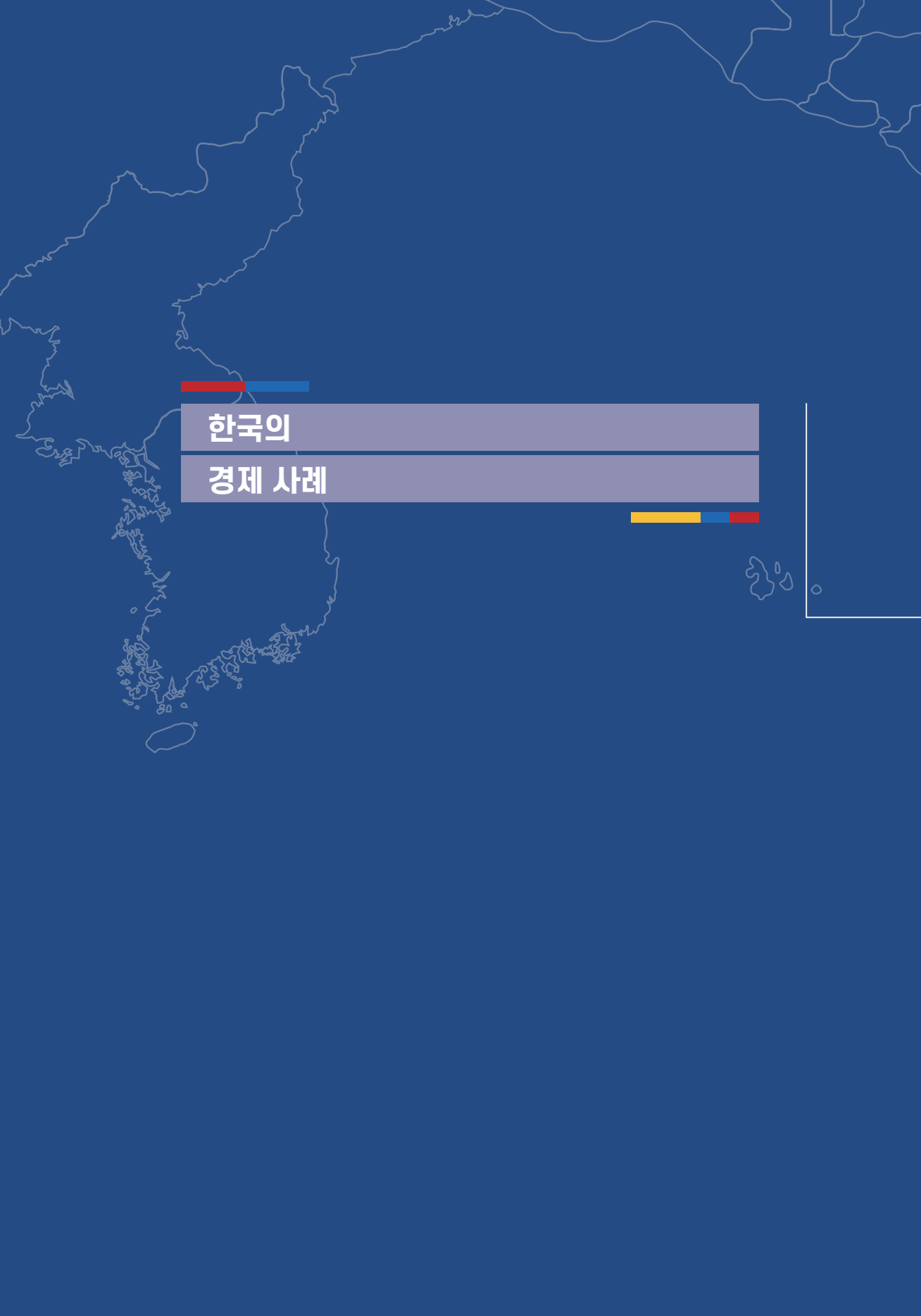
그러나, 자생 소재가 적고, 대량 재배 비용과 원료 생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한국의 입장에서는 콜롬비아에서 원료를 공급 받는 것이 원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며, 콜롬비아의 입장에서는 풍부한 자생 소재를 기반으로 한국에 원료를 대량 공급하여,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한국 식약처의 허가 기준으로 한국에서 연구가 진행된 원료를 역으로 공급 받는 것이, 향후 양국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콜롬비아는 다양한 천연 원재료들의 식용 가능성, 유전적 정보, 원료 생산, 지표성분에 대한 함량 정보, 대량 공급 가능성 부분만 확보되면 한국 기업들과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며, 한국은 수입된 원료로부터 효능과 안전성 연구를 통한 기능성 원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건강기능식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신규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기 위해, 인도, 중국, 동남아, 유럽, 중남미 지역에 자생하는 매력적인 소재들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해당 국가의 기업들과 공동 연구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상황이다. 콜롬비아는 세계 2위의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수교한지 60주년을 맞이한 지금, 생물종 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상황에서는 한국과 콜롬비아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합성이 아닌 천연 소재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개발하는데 자국의 다양한 자생 식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과 콜롬비아가 “원재료”의 수출과 수입, “원료”의 수출과 수입, “완제품”의 수출과 수입, “연구 교류”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의**

**경제 사례**







## 세사르 페라리 César Ferrari

콜롬비아 공화국 대통령실 경제 고문

### 시작점

# 한

국으로 더 잘 알려진 대한민국은 5,160만의 인구와 99,687 km<sup>2</sup>의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기준 연도 2010년의 불변가격으로 932달러였다. 인구 5,160만명, 국토 면적 1,140,619 km<sup>2</sup>의 콜롬비아의 1960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239 달러로, 당시 콜롬비아의 국민 총소득은 한국의 2.4배였다.

60여년 후 양국의 경제 상황은 급변하였다. 2019년 콜롬비아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7,884달러를 기록했으나, 한국은 3.6배 많은 28,876달러를 기록하였다. 196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국민 소득이 30.8배 증가한 데 비해 콜롬비아의 국민 소득은 3.4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떻게 이토록 짧은 기간에 두 국가 사이에 현저한 경제 상황의 전복이 가능했을까? 한국은 무엇을 하였고 콜롬비아는 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라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에 제시된 정보는 별도로 출처가 표기된 것을 제외하면 전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를 참고했다.



## 성장 논리

성장을 견인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내수 시장 집중이며 둘째는 투자와 수출 진작이다. 중남미 대부분 국가와 콜롬비아가 내수 기반의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한 것과 달리 한국의 성장 과정은 명백히 투자와 수출에 기반을 둔다.

소비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소비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면 공급이 따라간다는 것. 그러나 기존 설비의 여유가 있지 않는 한, 생산 능력 확대 없이는 공급이 항상 수요에 동일한 속도로 대응할 수 없으며, 기존 설비의 여유분이 늘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산 능력의 확대는 투자에 달려 있으며, 수익이 불충분한 경우 결국 수입을 통해 확대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반면 아시아의 논리는 다르다. 수요를 국제 수요로 정의하면 이는 제약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규모 경제 국가에 있어 수요는 무제한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생산 능력을 확대해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인들은 투자 집약적인 고속 성장의 초반부터 수출을 가시화하기 위한 국제 시장 제패를 성장 전략의 두 번째 요소로 정의하였다. 이는 한국 경제 성장기의 시작점인 1960년 당시 인구 2,500만의 위축된 내수 시장 규모와 미미한 1인당 국내 소득에 따른 논리적 귀결이었다.

필요한 수준의 투자 달성을 위해 한국은 체계적으로 지출을 줄였고, 그 결과로 저축과 투자 비율이 상승하였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960년 GDP 대비 79.4%였던 콜롬비아의 지출이 2019년에는 83.8%까지 상승한 것에 비해 한국의 지출은 1960년 GDP 대비 99.4%였으며(이는 생산량의 거의 전부를 뜻한다), 2019년에는 65.7%까지 점차 낮아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 한국의 투자율은 GDP의 31.3%를 차지하였으며 저축률이 GDP의 34.3%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대외 투자율은 GDP의 3%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콜롬비아의 2019년 저축률은 GDP의 16.2%, 투자율은 22.3%로, 이는 GDP의 약 6.2%가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콜롬비아 경제의 특징으로 꼽히는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재정 적자 지속 및 국내저축과 투자 사이의 마이너스 갭에 기인한다. 이와 달리 한국은 균형 잡힌 재정 수지와 투자를 웃도는 국내 저축 흑자로 오랜 기간 경상 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오고 있다.

## 산업화, 한국 성장의 축

한국 경제 성장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제조업의 산업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한국 성장 전략의 세 번째 요소이다. 반면 콜롬비아는 지난 수십 년 간 탄화 수소와 석탄을 위시한 원자재 채굴에 높은 의존도를 보여왔다. 1970년 GDP의 6.7%를 차지하였던 광업, 건설, 수자원 및 전력 등 콜롬비아의 일차 산업의 비중은 2019년 24.7%로 증가하였다.

한국전쟁(1950-1953) 동안 한국에서 제조업은 실질적으로 전무하였으며, 한국의 고속 경제 성장 시작기인 1960년에도, 제조업이 한국의 생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성장 가속화 10년 만인 1970년, 제조업은 GDP의 17.6%를 차지하였고, 2019년에는 25.3%로 증가하였다. 콜롬비아에서는 이와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나, 1970년 제조업의 GDP 비중은 20.7%였으나 2019년에는 10.9%로 위축되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완구와 섬유에서 자동차와 선박,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제품으로 점차 고부가가치 및 고도화된 상품 제조로 변모했다.

20세기에 50년 간 전 세계 조선업을 제패하였던 일본의 위상은 현재 한국과 중국으로 대체되었다. 한국은 품질, 중국은 물량 측면에서 세계 조선업 시장을 이끌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한국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한국은 70년대 조선업에 뛰어난 이래 수십 년 간 세계 주요 선박 건조 부문에서 손꼽히고 있다. 한국의 조선업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유의미하게 기여해왔으며, 해양 장비와 철강을 핵심 투입요소로 하는 확장된 해양 클러스터의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다.

한편 전자제품 관련, 한국은 전자기기와 컴퓨터, 자동차 제조의 필수품인 반도체



생산의 세계 2위 국가이다. 1위 대만은 반도체 세계 생산량의 22%를 차지하며 한국의 생산량은 21%로, 각각 15%의 생산량을 보유한 중국과 일본, 미국 (12%)과 유럽 (9%)을 앞선다.

한국 제조업 발전의 고도화는 제조업의 로봇화로 드러난다. 2018년 세계로봇연맹에 따르면 한국은 다목적 산업용 로봇 27만 9천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61만 4천기)과 일본(29만 1,800기) 다음으로 많다. 한국은 미국(25만 기), 독일(21만 6,800기) 및 기타 산업국보다 많은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 분야 로봇 밀집도에서 한국은 노동자 만 명당 855기의 로봇의 배치율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 이는 1위 싱가포르(918기)를 바짝 뒤따르는 수치이며, 아시아 평균 (118기)과 유럽 평균 (114기), 미주 평균 (104기)을 크게 웃돈다.

## 성장 프로세스에서의 교육

분명 교육은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다. 한국인들은 고속 성장기 진입 이전부터 이를 유념하며 노동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국의 성장을 연구한 저명한 학자인 앨리스 암스덴(Alice Amsden)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와 세계 제2차대전 종식 후 1946년 집계된 한국 노동 인구의 문맹률은 40%까지 치솟았으나 1963년에는 5.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1965년에는 중등 교육 이수자의 해당 학령인구 비중은 29%, 대학 교육의 경우 이수자 비율이 학령 인구의 5%에 불과하였으나, 한국이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구가하였던 1978년, 중등 교육 이수자의 비율은 학령 인구의 68%, 대학 교육 인구는 9%로 증가하였다.<sup>1</sup>

중등 교육 학습 성과 부문, 최근 OECD의 2018년 PISA(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78개국 중 9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학생들은 읽기 부문에서 514점, 수학에서 526점, 과학 519점을 달성하며 OECD의 평균인 읽기 487점, 수학 및 과학 각 489점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콜롬비아의 중등 교육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데, 콜롬비아의 성적은 70위로, 읽기 412점, 수학 391점, 과학 413점이었다.

1 Alice Amsden, 한국, 늦은 산업화의 성공적인 프로세스(Corea, un proceso exitoso de industrialización tardía) (original, Asia's next giant), Grupo Editorial Norma, Bogotá 1992. 274페이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교사에게 부여하는 중요도는 급여 수준으로 나타난다. 1983년 한국 교사들의 초봉은 군 대위와 거의 동등하였다. 대학 교수 초봉은 소장의 연봉을 상회하였다. 1984년 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군 장성보다는 적었으나 전문직 및 기술직의 월 평균 급여보다 높았다. 사실상 한국의 공립 학교 교사들의 월 급여는 대략 150~300만원 선 (1,150~2,650 달러)이며, 대개 여기에 더해 파견에 따른 숙박비와 수당을 지급받는다.<sup>2</sup> 한편 콜롬비아 중등 교사가 초봉으로 받는 순 월 급여는 140~270만 페소(대략 275~540 달러)이다.<sup>3</sup>

## 경제 정책

국가 산업화와 고속 성장 달성은 동 부문의 투자율 증대와 내부 한계로 인해 국제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때 소비 감축과 국제 시장에서의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데, 이는 거의 항상 배당금과 더 높은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적지 않은 세금, 그리고 산업화를 이끄는 산업에서의 적절한 수익성 담보를 뜻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결정되는 가격 구조가 수익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언급할 때 경쟁력을 빼놓을 수 없다. 결국 수익성이란 가격의 문제이며, 높은 경쟁은 시장에서 판매 여력이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이 생산 가격을 상회하는 한 항상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시장가격은 적절한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는데, 이는 시장이 미래를 고려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경우, 다른 부문을 이롭게 하는 공공정책의 유인이 없고, 사회적인 성격과는 상이한 민간 이익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와 같이 자본은 희소하지만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에서 투자가 자본 집약적인 부문으로 집중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유망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

2 : Cassie Wells, "How Much Do English Teachers Make in Korea?" July 20, 2022 다운로드 일자 및 링크: 2022년 11월 7일, <https://www.internationalteflacademy.com/blog/salaries-benefits-teaching-english-in-south-korea#:~:text=Public%20school%20teachers%20can%20expect,is%20about%20%241150%20%2D%20%242650%20USD.>

3 Tusalario.org/Colombia. 다운로드 일자 및 링크: 2022년 11월 7일, <https://tusalario.org/colombia/carrera/funcion-y-salario/profesores-de-educacion-secundaria#:~:text=Salario%20m%C3%ADnimo%20y%20m%C3%A1ximo%20de,en%20el%20puesto%20de%20trabajo.>



한 시장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암스덴은 자유시장의 가격만으로는 적절한 가격 구조가 형성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다음 용어를 만들어 냈다. 암스덴은 한국 경제가 수익성과 경쟁력을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였다’고 언급했다.<sup>4</sup> 여기서 왜곡이란, 통화, 재정 및 규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뜻한다. 이와는 달리 콜롬비아와 중남미의 경제 정책은 시장 가격에 의해 조정되는 수동적인 성격을 띠었다. 즉, 경제 당국의 추가적 간섭 없이 자유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수동성은 두 가지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한 예로, 수십 년 동안 콜롬비아 수출은 현재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마약 밀매에 따른 불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로 전인되고 있다. 이십 년 전에는 아마도 그 규모가 더욱 컸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고질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상을 낳는데, 이는 수출업자와 수입대체업자를 위협하는 일명 ‘네덜란드병’으로 알려져 있다.

시중금리도 이와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콜롬비아 중앙 은행에 따르면 신용 시장은 일반적으로 독점적이며, 소비와 마이크로 신용과 같은 일부 시장은 과점을 형성하는 카르텔처럼 운영된다.<sup>5</sup> 예상되는 바와 같이, 자유시장 체제에 의해 결정되어 모든 신용 시장에 적용되는 시중금리는 국제 신용 시장의 금리를 훨씬 웃돌며, 기업의 금융 비용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한국의 경우 산업 고도성장기 25년 중 1965-1972년을 제외한 대부분 기간, 특정 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부 기업을 선정해 실질 마이너스 금리를 장기간 적용하였다. 이 기간, 심지어 1965-1972년 에도 국내 저축은 필요한 투자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기에, 정부는 수혜 기업들에게 장기 국제 신용을 내수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였다. 한편 환율은 크게 왜곡되지 않았지만, 엄격한 수출 쿼터제와 보조금 정책이 함께 작용해 수출 진작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쿼터제는 80년대 중반 관세 보호로 인해 약 30% 부풀려진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허가로 상쇄되었다.<sup>6</sup>

4 Alice Amsdem, IBID, 6장

5 Wilmar Cabrera y Daniela Rodríguez, 저축과 신용 시장의 집중과 경쟁(Concentración y Competencia en los mercados de depósitos y crédito), 중앙은행, 특별보고서, 2019-하반기

6 Alice Amsden, IBID, 181-186 페이지.



요약하자면, 경제 고도성장기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은 ①기업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국제 신용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②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작용하는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③기업들의 외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이 무력화되도록 하였다.

이와 달리 콜롬비아는 신용시장의 과점화로 인해 환율이 왜곡되고 국제 금리에 비해 내수 금리가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콜롬비아는 환율 안정이나 국제 금리에 가깝게 금리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산업화 촉진 기제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질적이고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콜롬비아는 원자재 수출에 따른 외화 수입에 만족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맥락에서는 원자재의 국제 가격만이 중요하였으며, 환율, 금리 및 경제의 주요 지표에는 거의 무관심하였다. 심지어 국내 인플레이션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을 장려하기도 했다. 이는 수동적인 경제 정책의 방증이다.

한국 경제가 성공을 거두고, 콜롬비아 경제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양국의 여건은 상이하며, 아마도 한국이 활용하였던 기제가 이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콜롬비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환율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관세 보호는 농업, 산업, 관광 등의 부문에서 콜롬비아의 국제 경쟁력을 낮추고, 이에 따라 수익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쟁 유발이 필요하다. 이것이 한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8일, 보고타







## 제8부

# 한-콜롬비아 보건·의료 협력



### 한-콜롬비아 보건의료

곽재성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콜롬비아와 한국 : 협력과 동맹, 그리고 우정의 60년

파울라 루이스 카마초 (Paula Ruiz Camacho)  
콜롬비아 엑스테르나도 대학



**한-콜롬비아**

**보건의료**





##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정부간 보건 분야의 협력 프레임 구축

#### 한

국과 콜롬비아의 정상은 정부 간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2021년 8월에 체결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부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자, 보건협력 협정 체결이 2020년 7월 처음 논의되었고, 이후 양국간 해당부처<sup>1</sup>의 협의를 거쳐, △자국의 보건위기 상황 정보공유, △자국민 보호, △필수적 교류 보장, △기술협력·지원, △공동위원회 구성 등 20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1년 8월, 본 협정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한 양국의 보건 분야 주무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의료인 역량 강화’ 및 ‘민간기업 현지 진출 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 및 경험을 콜롬비아와 공유하고, 스마트병원 모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의료정보시스템을 비롯한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시스템을 중심으로 콜롬비아의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중환자 관리를 위한 양국 간 보건의료인 교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기업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보인 한

1 (한) 외교부,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 (콜) 외교부 개발국, 보건부 국제협력관, 공중보건국



국 헬스케어 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위해, 향후 전문가 포럼, 비즈니스 미팅, 박람회를 포괄하는 ‘한-콜 보건의료산업 교류회’(가칭)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지난 ‘62년 콜롬비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15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18년 보건의료분야 정부사절단 파견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왔으며, 현지 거점공관을 활용한 보건의료 수출로드쇼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추진해왔다(보건복지부 2021). 콜롬비아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이자 중남미 3위 소비국으로,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진출 필요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약 분야의 경우 ‘20년 7월 기준 약 1,800만 달러 수출(전년도 동기 대비 약 37% 증가)을 기록하였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20년 기준 약 7,000만 달러 수출(세계 20위, 중남미 3위 수출 규모)을 기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 보건 분야의 한-콜롬비아 국제개발협력

콜롬비아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점협력국(focused country)이나 보건의료분야를 중점분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2016-20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상의 주요 협력 아젠다는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 ▲교통(transportation), ▲산업발전(industrial development), 그리고 ▲포스트 분쟁(post-conflict)의 네 분야이며, 새롭게 개정된 2018-22 CPS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 ▲교통(transportation), ▲산업(industry), 그리고 ▲평화(peace)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무상원조 주무기관인 KOICA는 별도의 국별 전략(Country Plan, CP)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대 콜롬비아 CP는 ▲산업정책과 기술 역량강화(Strengthened capabilities for industrialization policies and technique), ▲지속가능한 평화구축 확대(Scale-up of sustainable peace-building)로 되어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는 한-콜롬비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중점 분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동 분야에 ODA 예산이 집중되거나 있어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ODA Korea 2017; KOICA 2020a).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콜롬비



아 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보건 분야 협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첫째, 대표적인 보건분야 지원 사례로 KOICA가 1천만 달러를 지원한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2010-16)’ 건립 사업이다. 본 병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한 콜롬비아 상이용사 등을 돕기 위한 재활병원으로서 연면적 1만2천487㎡의 4층 건물로 지어졌다. 체육관, 수영장을 포함한 물리치료 운동시설, 직업훈련 치료시설, 사회적응 치료시설, 환경적응 치료시설, 100병상의 아파트형 병실 등을 갖추고 있다(연합뉴스 2016).

둘째, 중남미에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비추어,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방역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KOICA는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였고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해당 지역 국가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긴급물품, 의료물품,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을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멕시코 등에 지원한 바 있다.

KOICA는 코로나 초반기부터 콜롬비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왔는데, 2020년 봄부터 콜롬비아 보건부 장관, 대통령 자문관, 외교부 국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지 맞춤형 지원계획을 긴밀하게 공유하였다. KOICA는 콜롬비아<sup>2</sup>를 한국의 중점방역지원국으로 선정하고 감염병 진단 및 예방 등 통합적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협력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포괄적 긴급지원 1차 사업을 위해 콜롬비아 보고타시(市) ‘북부 보건 네트워크(Subred Norte)’의 거점 병원인 엔가티바(Engativá) 병원에 RNA 추출기 1대, PCR 검사기 3세트, PCR 키트 2,031 Box, 인공호흡기 40개 등을 공급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총 450만 불(약 48억 원) 규모로 엔가티바 병원의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차 지원이 시행되었다. △코로나19 종합 대응 병동 구축, △코로나19 백신 접종 역량강화, △코로나19 연구조사 및 데이터 확보 지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KOICA의 활동은 콜롬비아 국가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의료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OICA 2020b).

2 코이카는 2020년 콜롬비아를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주요 방역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콜롬비아의 보건 분야 개혁 현황

콜롬비아는 사상 유래없는 대규모 팬데믹이 발생하자 ‘대통령 특별보건법(2016년)’에 기초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학교, 기업, 지역 공동체, 그리고 시민의 행동과 생활 방식까지 관여하는 대통령령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였다. 이와같은 특별조치로 6개월 락다운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가 정점에 있던 2021년 중반 누적 확진자 487만여 명, 누적 사망자 12만 4천여 명을 기록하여 콜롬비아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KOICA 2020b).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건 위기 상황에서 콜롬비아 보건부는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방정부와 마찰도 있었지만, 최근 국민 여론 조사에서 가장 우수한 중앙정부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 배경은 ‘대통령 특별보건법(2016년)’에 ‘공중보건 2012-2021, 10개년 계획’을 위한 법과 규정을 포함시켰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특별보건법(2016년)’은 현재 보건부와 공중보건에 적용되는 유일한 법안으로, 흩어져 있던 보건 관련 법, 행정, 재정을 한군데 모아 콜롬비아 보건부 위상을 강화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산층이 병원의 주 고객이었던 관행(국민의 23% 이용)에서 벗어나 현재 국민의 97%가 병원을 이용하게 될 정도로 큰 파급효과를 낳았다.

콜롬비아 ‘공중보건 2012-2021, 10개년 계획’은 이전 3년 계획에서 벗어나 마련된 1차 10개년 계획으로 취약 계층 파악과 복지, 보건 당국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와 지방 보건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국가 보건 위기관리 위원회 신설, 보건의료 상황 분석(Análisis de Situación de Salud, ASIS) 구축, 보건의료 종합 시민 업무 정책(Política de Atención Integral en Salud, PAIS), 공동 집단 대응 계획(Plan de Intervenciones Colectivas, PIC), 지역별 통합 대응 모델(Modelo de Acción Integral Territorial, MAITE) 등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면적으로 추진된 이상의 보건분야 체질 개선은 팬데믹 대유행에서 진가를 보여 주었고, 대통령 특별보건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콜롬비아 식약청 INVIMA’은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기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대통령 보건특별법(2016년)’은 보건분야 진입의 장



벽을 허물었지만 체제의 경직성과 기득권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법령은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콜롬비아의 국민과 의료기관은 COVID-19로 건강 의식이 고취되었고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의료보험체계 강화 등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공공보험 때문에 국민들은 민간 플랜에 가입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은 고갈되어가는 재정에 도움을 받고자 보험회사와 제휴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지만 개인 실손보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저소득층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코로나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이 어려운 점 등, 현재의 체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비율로 병원 이용자도 증가했지만 의료기관의 물리적 확대가 동반되지 않아 환자 진료에 혼란과 정체 그리고 서비스 품질 저하를 낳았다. 1993년에 800만 명의 환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의료 공급 체계로 오늘날 4,500만 명을 치료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까지 공공병원의 재정 문제와 진료 지연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에 많은 전문가들은 병원 시스템의 붕괴 위험을 주장한 바 있다. 옆친데 덮친격으로 민간보험 제도의 정착으로 전문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료인적이 공공체계에서 이탈하여 민간(보험) 영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공 의료 서비스의 양적 질적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이종현 2021).

## 콜롬비아 의료 시장 진출 가능성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정부가 부족한 의료품목 수입 절차를 완화하였고, 현지 화장품/의류 등의 제조업체들이 의료 및 보건용 소비재로 품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고타, 메데진 등 콜롬비아의 주요 도시들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있어 의료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조사 전문기관 Fitch Solutions와 콜롬비아 통계청 제조업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콜롬비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가장 주목할 품목으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X-Ray 기기이며, 휠체어, ICU



용 가구, 안과 장비 등의 의료용 가구도 유망한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X-Ray 기기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25.9%), 미국(17.7%), 일본(13.1%), 독일(11.4%), 한국(7.7%)의 순이다 (콜롬비아 무역관 2021). X-Ray 공급은 다국적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콜롬비아 지점이 자사 브랜드를 독점으로 수입하여 공급하는 형태와 여러 브랜드의 기기를 수입하는 도매유통형태가 있어 후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용 가구의 경우 2020년 총 수입액은 16.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14% 증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 수출시 콜롬비아 식약청(INVIMA)에 위생등록을 실시해야 하는게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상표권도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콜롬비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보건비상사태가 발효된 상황일 경우 콜롬비아의 공공기관은 공개입찰 과정 없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으나, 비상사태 종료 이후 절차 간소화 폐지 예정이다<sup>3</sup>.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향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평시에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KOHES 2021).

## 한국-콜롬비아 보건-의료 협력 아젠다

이와 같은 상황과 그간의 한국-콜롬비아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현황에 비추어, 앞으로의 협력 아젠다를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형 의료보험 시스템의 체계적인 이식이다. 시간이 갈수록 국가의료보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인 한국의 시스템 도입의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의 운영 및 재정이 단일 보험자에 집중되어 관리가 용이하고, 보장성이 높지 않아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의료 공급에 있어 민간 의존도가 높은 민-관 협력체제가 특징이다. 이는 재정이 튼튼하지 않고 공공 의료 공급 체계가 부족한 개도국의 상황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다. 물론, 건강보험 자체는 콜롬비아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인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징수 체계나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간의 전

3 국가비상사태로 수입절차가 간소화된 품목은 보호안경, 라텍스/니트릴/비닐 장갑, 무균장갑, 마스크 및 인공호흡기, 필터마스크, 전신 보호용 제품(무균제품만 해당), 안면 보호용품, 일회용 마스크, 방호복 및 보호복, 의료기기 (산소장치, 호흡기 치료장비, 환기용 팬, 흉관 절개키트, 심장 재세동 장비, 바이탈 모니터링 장비, 휴대용 진단 장치 등) 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자청구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등 ICT 기반 헬스 백본 (Health backbone)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건강보험으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특별 보건법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건강보험연금 관리회사(EPS)를 이동하거나 별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여 민간 실손보험 가입과 혜택 보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콜롬비아의 민간 실손보험은 매년 5 - 10% 성장을 기록하다 COVID-19로 2020년 7월 기준 1.5 백만 가입자가 2021년 4월 기준 4.7 백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에서 다양한 고부가 가치 의료서비스와 건강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콜롬비아는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부족한 의료품목에 대한 수입 절차를 완화한 바 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특히 팬데믹과 그 이전의 이주민 문제 등으로 취약성이 노출된 부실한 1차 보건 체제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 이미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보조를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SAID의 경우 지역의료체계 지속성(Local Health System Sustainability, LHSS, 스페인어로는 Comunidades Saludables) 프로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의 9개 주에서 베네수엘라 이주민, 콜롬비아 재정착민 등 중심으로 불안정해진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 지속가능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8만명 이상의 이주민들을 건강보험 시스템에 등록시켰고, 의료인 3만명과 지역보건의료 요원 4만명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1차 보건에 대한 지원은 그간 병원건립에 치중해온 우리나라가 경험이 많지 않은 분야이지만, 2-3차 진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며 질병을 예방하고 초기 단계에서 환자를 치료하여 미래의 비용을 경감하는 비용효율성(value for money)이 뛰어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모아진 집중 지원 영역이다.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1). 보도참고자료 “권덕철 장관, 콜롬비아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지 다져”. 2021.8.2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881>

연합뉴스 (2016). ‘한국전 참전’ 콜롬비아에 상이용사 재활병원... 한, 100억 지원. 연합뉴스. 2016.8.30  
<https://www.yna.co.kr/view/AKR20160830069500371>

이종현 (2021). “개정된 콜롬비아 대통령 특별 보건법이 콜롬비아 보건 분야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보건산업브리프 Vol.343. 2021.12.18. <https://www.khidi.or.kr/fileDownload?titleId=461418&fileId=1&fileDownType=C&paramMenuId=MENU01783>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 (2021). “콜롬비아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시장동향”. KhIDI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56645&menuId=MENU0245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콜롬비아 INVIMA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입 절차 간소화”. KhIDI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7909&menuId=MENU0152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7). “The Republic of 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Republic of Colombia.”  
[https://www.odakorea.go.kr/contentFile/CPS\(eng\)/COL.pdf](https://www.odakorea.go.kr/contentFile/CPS(eng)/COL.pdf)



KOICA (2020a). Detailed Document on KOICA's Country Plan (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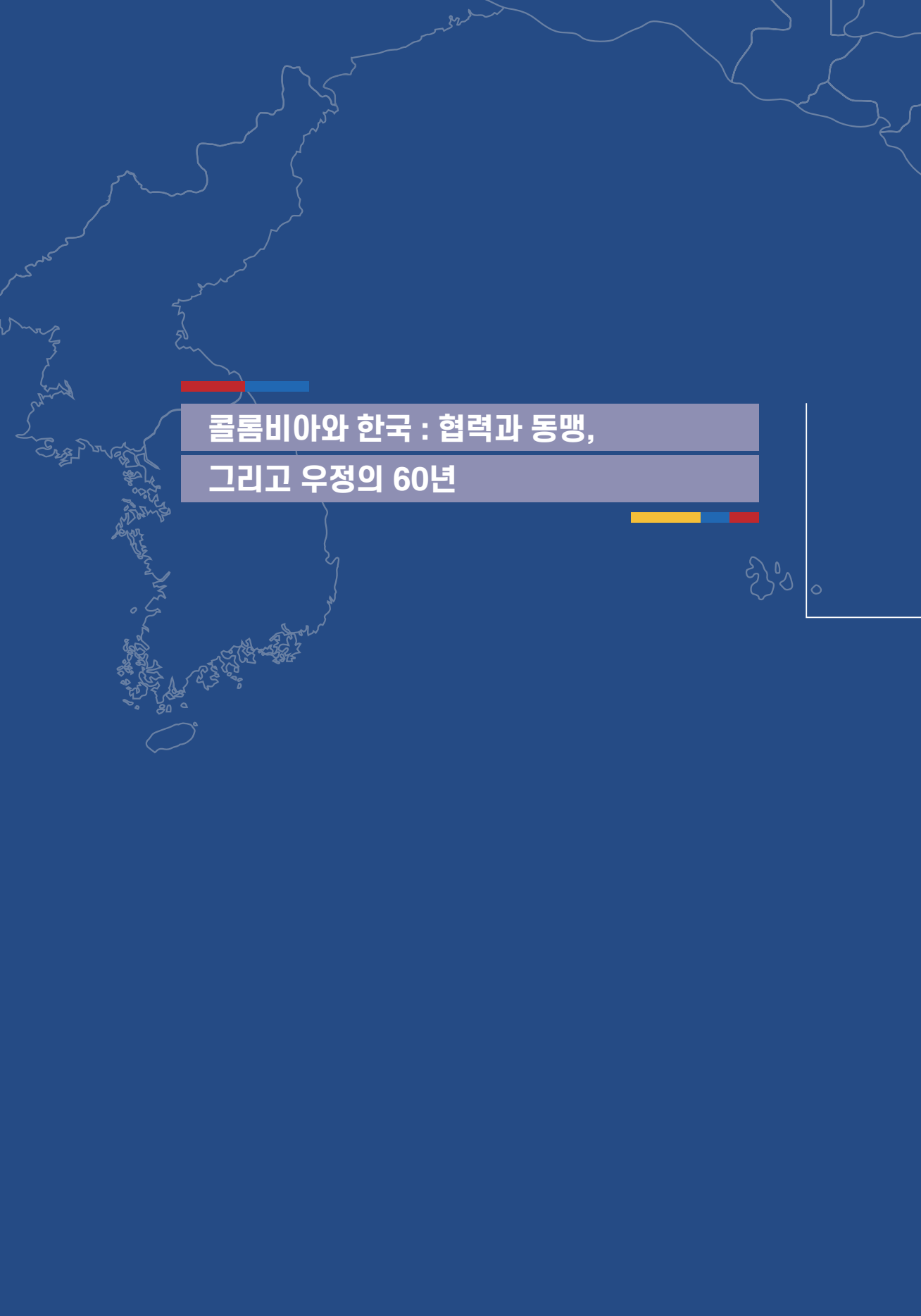
[http://www.koica.go.kr/sites/koica\\_en/download/9\\_Detailed\\_Document.pdf](http://www.koica.go.kr/sites/koica_en/download/9_Detailed_Document.pdf)

KOHES (2021). “콜롬비아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시장 동향”. KOHES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 2021.07.0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904610&memberNo=37586441>

KOICA (2020b). 코이카, 지구 반대편 중남미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 2020.06.09.

[https://www.koica.go.kr/koica\\_kr/99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9pY2Ffa3IIMkYxNTElMkYzNTkxMjAlMkZhcjRjbFZpZXcuZG8lM0Y%3D](https://www.koica.go.kr/koica_kr/99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9pY2Ffa3IIMkYxNTElMkYzNTkxMjAlMkZhcjRjbFZpZXcuZG8lM0Y%3D)





**콜롬비아와 한국 : 협력과 동맹,  
그리고 우정의 60년**



## 릴리안 카롤리나 곤살레스 링콘 Lilian Carolina González Rincón

보건사회보호부 국제관계 및 협력국 · 대한민국 담당 국제협력자문관

## 디마스 알레한드로 바스케스 데 알바 Dimas Alejandro Vásquez De Alba

보건사회보호부 홍보국 소속 기자

### 한

국과 콜롬비아는 14,700km에 달하는 거리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과 굳건한 정치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여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였다. 최근 양국이 발전시켜온 우호 관계와 국가 간 교류는 향후 발생 가능한 보건 위기에 대비해 콜롬비아의 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전략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콜롬비아 정부는 보건사회보호부 공무원과 민간 부문 대표로 구성된 방한단을 파견, 질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건 협력 협정과 두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첫 번째 양해각서는 국제백신연구소와, 백신 개발 및 생산을 다루는 다른 한 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체결하였다.

상기 한·콜롬비아 보건 협력 협정은 △감염병 관리, △미래 감염병 예방, △역학 조사 시스템 강화, △역학 정보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제 메커니즘 마련, △백신 생산, △질병 예방 및 대응 정책 강화, △다양한 병리학 시험 및 추적을 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 부문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 및 정보 교류 역시 양국 간 공동 작업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감염병 연구와 역학 및 연구 강화 목적의 양해각서는 지식 공유를 통한 백신 개발, 인적 자원 양성 및 민간 부문과의 연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양자 협정들의 체결 이후 콜롬비아는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미주 대륙 국가들도 향유 가능한 백신 공급 및 생산을 위한 전략 수립에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물학 발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왔기에 가능하였으며,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생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에 WHO 인력 양성 허브를 개소하였다.

## COVID-19 팬데믹 시기

2020년 COVID-19로 인해 촉발된 보건 위기 속에서 한국은 콜롬비아와의 국제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95만 달러 상당의 비상환성 자금을 동원, 두 건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상기 재원은 보고타 시내 병원 망 강화에 투입되었다. 엔가티바 병원(Hospital de Engativá)의 집중치료실 병상 40상 확보를 중심으로, PCR 검사 결과 분석 기기 및 6~8시간 내 검사 결과 전달을 위한 전문 장비 구매를 통해 Sars-CoV-2 검진용 연구시설을 개선하고, 샘플 채취를 위한 워크 스루(walk-through) 2 개소 및 개인보호장비(PPE)를 확보하는 등이었다.

특히 개인보호장비 관련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은 아마조나스(Amazonas) 주 정부 보건부와 통합재활센터(CRI)에 30만 달러에 달하는 마스크와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기증하였다.

이외에도 응급처치, COVID-19 환자 대상 심리 치료, 질병 검진, 생물안보, 인간 중심 의료 등에 종사하는 1,600명의 의료인력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한국의 대 콜롬비아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고타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백신 접종 계획이 수립, 보급되었다.

COVID-19 전담 부서의 창설은 상기 협력의 결과이며, 동 부서는 COVID-19 확진 후 계속되는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통합 관리와 지원 개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엔가티바 병원, 보고타 시 보건부 제공

## 우호 관계의 시작

최근 2년만 보더라도 양국 간 협력은 경제, 정치를 넘어 공중 보건과 국민 복지, 콜롬비아의 보건 주권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 비전, 과학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콜롬비아는 이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바, 이 모든 협력은 마리아노 오스피나 페레스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치적 지지로써 군대를 파견한 이후 60년간 축적된 것이다.<sup>1</sup>

1 페르난도 바르보사 (Fernando Barbosa), 콜롬비아 리포트: 한국, 끝나지 않은 길, RIA (Revista Análisis Internacional), 호르헤 타테오 로사노 대학, 2012



한국 정부는 콜롬비아가 한국전쟁에 파병한 유일한 중남미 국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를 높이 평가해왔다.

이후 양국 간 유대와 우의는 계속해서 깊어졌다. 1962년, 미국 워싱턴에서 수 차례의 협상과 담화 끝에 최초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1973년 대한민국 대사관이 콜롬비아에 개설되었고, 1977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보고타에 무역관을 개관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후인 1978년에는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이 개설되었다.<sup>2</sup>

이러한 관계 진전에 힘입어 1980~90년대 동안 양자 관계는 국제협력의 성격이 짙어졌다. 양국 간 문화, 통상, 사회 및 협력 협정이 증가하였으며 과학 및 연구뿐만 아니라 이주, 기술, 인도주의, 봉사단원 파견 등 협력 범위도 확대되었다. 보다 최근인 2009년에는 KOICA가 콜롬비아 사무소가 개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 임산부와 신생아 난민에 대한 콜롬비아 정부의 돌봄 정책에 주콜롬비아한국대사관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이니셔티브 지지 표명 이후 약 1,380명의 산모가 노르테 데 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 주, 아틀란티코(Atlántico) 주와 보고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에라스모 메오스 데 쿠쿠타 대학 병원(ESE Hospital Universitario Erasmo Meoz de Cúcuta)에는 50만 달러 상당의 장비 기증이 이루어졌다.

## 콜롬비아에서의 협력

대한민국은 콜롬비아의 국가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는 ‘2021-2026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도·농 발전을 통한 빈곤 감축, 교통 인프라 개선, 산업 경쟁력 및 생산 증대, 분쟁 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사회 재통합 강화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의 SDG 목표 달성과 ‘2014-2018 국가개발계획’에 명시된 목표의 이행에 한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2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년 간 2억 1,813만 달러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였다. 2021년에는 산업 발전에 85만 6,655달러, 지역 개발에 959만 달러, 분쟁 후 프로세스에 215만 4,783달러, 보건과 교통에 각각 461만 3,898달러와 339만 3,300달러를 지원하여 총 2,510만 달러의 협력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이 중 보건 분야는 보건 비상 사태로 협력 규모가 증대되었다.

세계화의 역동성과 호기를 누리고 있는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콜롬비아는 60년간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구가해왔다. 2021년에 체결된 최근의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의 유대는 통상, 투자를 넘어 보건, 보건 안보 등의 영역 등으로 확대일로를 걸을 것이다.







# 부록



##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2021.8.25 청와대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1.8.24.~26.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공화국 대통령과 8.25. 회담을 가졌다.
2.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양국이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연대와 우의가 양국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3.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해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4.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지향하는 양국 관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2022년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디지털 혁신과 연계한 농촌 개발, 청정 성장,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근 콜롬비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축하하였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OECD 가입이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 수준의 공공정책 기준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은 OECD 가입 이후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현행 위원회들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무역·투자

7.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 기업들 간 교역과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한-중남미 간 가치사슬을 개선하여 양국 국민들의 경제적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1년 태평양동맹(PA)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9.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APEC 가입 의지를 환영하였다.

## 국방·방산·보훈 협력

10. 양 정상은 2021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보답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후손 대상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사업들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한국전 실종 장병 수색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2021년 10월 개최되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양국 국방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양국 간 방산 및 군수 분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며, 양국 간 국방안보 인프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정상은 학술 교류와 콜롬비아 군사학교 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 과학기술·혁신·환경·지속가능한 협력

13. 양 정상은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정책 간에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정부 간 체결된 디지털정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창의산업, 창업 생태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양해각서들에 따라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창업생태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기술 및 경험 이전을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정상은 연구, 기술 및 산업발전, 연구인력 교육 및 교류,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 장려와 양·다자 및 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생명공학, 의료기술, 농축산업, 항공우주과학 등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 영역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외교,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양국 민관, 학계, 시민사회 간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



가기로 하였다.

17.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후 변화 대응, 식량안보 달성 등을 위해 농촌사회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과학기술, 농축산업 혁신, 식량안보,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포용적인 녹색 디지털 친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를 통해서도 디지털, 저탄소 농업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황폐화, 고갈, 오염 등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자연 기반 해결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19. 양 정상은 양국 환경부 간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 생태계 지원, 토양 관리, 대기 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화학제품 관리 및 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 정상은 수자원 사용 증가 및 이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목표 6번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 가장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 건강 상태 개선 및 빈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양 정상은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 발전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도구의 개발, 해양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사용 및 우주 분야 연구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 보건의료 협력

22. 양 정상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 있어 공동의 도전 과제이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상호 연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3.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과 연대 정신을 평가하고,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4. 콜롬비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는 콜롬비아 의료진 및 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보고타시 내 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5. 양 정상은 더욱 굳건한 국제보건체제 구축 및 국제보건규칙(2005)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질병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향후 팬데믹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역학 감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공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 개발 협력

26. 콜롬비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2021-2025년 간 콜롬비아에 대한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콜롬비아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 지원이 양국 간 깊은 우호 협력 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7. 양 정상은 2021-2025년 간 양국 간 신 국별협력전략(CPS)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합법성에 기반한 평화 구축, 지역 개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활성화,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28.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촉진시키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할 ‘무상 원조기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였다.

###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교육 협력

29. 양 정상은 2022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수교 기념 콘텐츠 제작,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창의산업 분야 국제포럼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 교류를 더욱 독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을 평가하면서 2022년 보고타 국제 도서전과 서울 국제도서전에 양국이 주빈국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였다.

30. 양 정상은 체육이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매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체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태권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1.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창의산업' 간 연계에 주목하여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문화창의산업 발전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2.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스페인어 및 한국어 교육, 교원 및 유학생 교류, 교육 혁신, 양국 대학 간 연구 추진, ICT를 활용한 교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33.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한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은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제3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4. 양 정상은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이 인류에 대한 가장 심각한 환경 위협이며, 상호 호혜성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 기반 해결책을 시행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며 복원력 있는 녹색 회복을 촉진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야심찬 기후 행동변화 대응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5. 양 정상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파리협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기후재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복원력 있는 저탄소 발전 등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6.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올해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26차 회의(COP26)'의 틀 안에서 과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야심찬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7. 양 정상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필요한 목표와 전략계획을 포함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2021년 8월 30일 개최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회의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38.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



상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9.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의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위한 한시보호법령’ 구상 및 이행이라는 과감한 결단과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콜롬비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주민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속적이고 소중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40.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가 중남미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중남미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1. 콜롬비아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



## 고위인사 교류



1. 정진석 특사,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Gustavo Petro 대통령 예방(2023.1)

2. 박덕흠 특사 Gustavo Petro 대통령 취임식 참석(2022.8)



① 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 예방







② 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 예방



③ 한국전쟁 참전기념탑(보고타) 헌화



3. Marta Lucia Ramirez 콜롬비아 부통령 겸 외교장관 한국 공식방문 (2021.11)



① 양국 외교장관회담



② 부산광역시장 면담



③ 한국-콜롬비아 우호기념비 제막식(부산)





#### 4. Ivan Duque 대통령의 한국 국빈방문 (2021.8)



① 정상내외 기념사진



② 확대정상회담





③ 국민 만찬,  
참전용사들과 함께



④ Ivan Duque 대통령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



⑤ 콜롬비아 보건부 국제백신  
연구소와 MOU 체결





5. 이낙연 국무총리 콜롬비아 공식방문 (2019.5)



① 공식환영식



② 확대회담



## 6. 박근혜 대통령 콜롬비아 공식방문 (2015.4)



① 공식환영식



② 확대정상회담





## 7. 이명박 대통령 콜롬비아 국민방문 (2012.8)



① 기자회견



② 확대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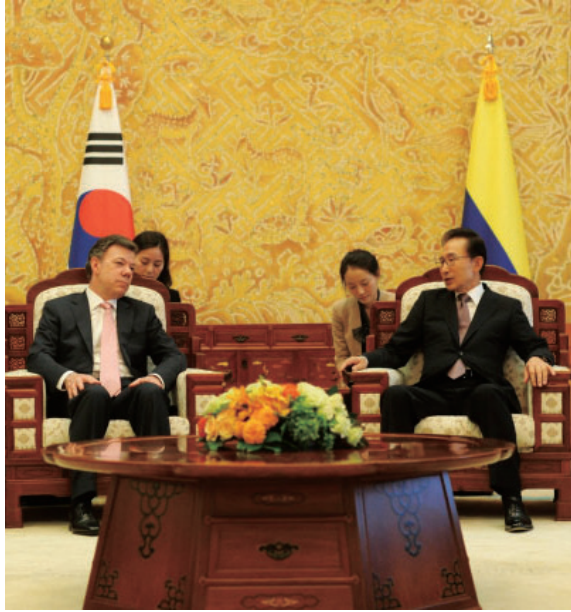
③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8.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 한국 국빈방문 (2011.9)



① 공식 환영식(청와대)



② 단독정상회담



③ 공식 환영식(청와대)





문화 교류



1. 박혜상 소프라노 보고타 방문 공연(2022.10)

(사진제공: Juan Diego Castillo / Teatro Mayor Julio Mario Santo Domingo)

El Banco de la República tiene el gusto de invitarlo a la inauguración en el Museo del Oro de la exposición

**Cerámicas del Museo Nacional de Corea**  
Voces de una cultura milenaria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도자 특별전 | 전통의 울림

Jueves 6 de octubre de 2022  
5:00 p.m. a 7:00 p.m.  
Museo del Oro - Banco de la República  
Sala de exposiciones temporales, piso -1  
Cra. 6 No. 15-88, Bogotá, D.C.

Una exposición que nos transporta a Corea para conocer su historia, cultura y arte a través de valiosas piezas de cerámica. Desde las primeras ollas de barro cocido hasta las vasijas esmaltadas más sofisticadas, estos objetos nos hablan sobre la vida de los coreanos, su pensamiento y su sentido estético.



Barro en forma de melón. Colección con diseño tallado.  
Dinastia Goryeo, siglos XI-1411.



**musco del oro**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2. 보고타 황금박물관 한국 도자 특별전 (2022.10-2023.2)





### 3.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보고타 방문 공연(2022.10)



① Teatro Mayor 극장 공연(10.4)



② Teatro Mayor 극장 공연(10.4) 기념촬영



#### 4. 서울에서의 수교 60주년 기념벽화 제작 및 문화행사



① 수교60주년 기념벽화(콜롬비아 그래피티팀 제작, 서울)



② 수교60주년 기념 서울 문화공연(한국 전통춤)



③ 수교60주년 기념 서울 문화공연(콜롬비아 전통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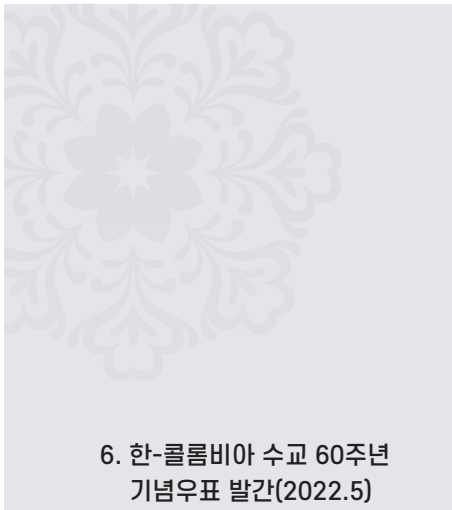
5. 콜롬비아의 2022 서울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2022.6)



① 콜롬비아 전시관 개관식



② 콜롬비아 전시관 문화공연  
(Julio Victoria 그룹)



6.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기념우표 발간(2022.5)





## 7. 2022년 한국의 보고타국제도서전(FILBO) 주빈국 참가(2022.4)



① 한국관 개소식(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



② 한국전시관 태권도 공연



### 8. 리틀엔젤스 공연단 콜롬비아 방문(2019, 보고타)



### 9. 2016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한식요리 콘테스트



① 심사위원 평가



②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